

한국의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의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조사 보고서

Survey on Resettled Refuge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23. 12.

박소이(사단법인 피난처)

안지영(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사단법인 피난처)

최영일(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의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조사 보고서

Survey on Resettled Refuge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23. 12.

박소이(사단법인 피난처)

안지영(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사단법인 피난처)

최영일(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집필진

박소이(사단법인 피난처)

안지영(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사단법인 피난처)

최영일(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 연구에 피력된 의견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목적과 필요성	1
2. 조사연구의 내용	1
3. 조사연구의 방법	2

제2장 한국의 재정착 제도

1. 재정착난민제도의 개요	4
2. 재정착난민 수용과 시범사업 경과	5

제3장 국내외 선행 연구

1.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재정착 시범사업 점검조사 (UNHCR, 2017)	10
2. 이민정책 연구원: ‘국내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오정은, 2014)’	10
3. IOM 이민정책연구원 :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조영희, 2017)’	11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용역 보고서: ‘2018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이호택 외, 2018)’	12
5. ‘재정착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자립과 통합 이론의 조화를 중심으로 (정금심, 2020)’	12

제4장 실태조사 결과

1. 상주국 경험	14
2. 출국 전 사전교육	19
3. 취업 및 재정	24
4. 교육 훈련	45

5. 아동 교육	52
6. 건강	62
7. 주거	81
8. 동족사회 결속	85
9. 언어와 문화	105
10. 안전 및 차별	122
11. 참여	143
12. 기타 Others	159
1) 영주권 및 시민권	159
2) 은행 계좌 및 핸드폰 개설	165
3)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	168
4) 생활멘토	175
5) 가족결합	18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183
2.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10
-------------------	-----

설문지	212
------------------	-----

제1장 서론

1. 목적과 필요성

- 난민의 재정착(Resettlement)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에서 난민의 영구적 해결책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한국은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고 난민법 제24조에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36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음.
- 전 세계 강제실향민이 1억 명을 넘어섰고, 비호국에서는 현지 통합이 어렵고 본국으로 귀환할 수 없는 난민에 대한 재정착의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 국제사회의 책임분담(burden-sharing)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2015년 도입된 한국의 ‘재정착시범사업’은 재정착난민의 성공적인 자립 및 지역사회 통합과 사업의 정규화를 목표로 현재까지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은 성공적인 재정착난민 수용 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수용된 재정착난민들의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의 정규화 등 향후 한국 재정착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2. 조사연구의 내용

- 본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한국에 수용된 성인 재정착난민 중 107명의 재정착난민을 대상으로 11가지 영역(상주국 경험, 출국 전 사전교육, 취업 및 재정, 교육 훈련, 아동 교육, 건강, 주거, 동족사회 결속, 언어와 문화, 안전 및 차별, 참여) 및 기타 영역(영주권 및 시민권, 은행 계좌 및 핸드폰 개설,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 생활멘토, 가족결합)에서의 정착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음. 단, 모든 질의 항목에 107명의 대상자 모두가 응답한 것은 아니며, 대상자 중 일부는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기도 하였음.

- 2018년도에 사단법인 피난처(대표 이호택)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연구용역 수행의 하나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에 수용된 86명의 재정착난민에 대한 ‘재정착난민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11가지 영역(취업 및 재정, 교육 및 훈련, 아동교육, 건강, 주거, 동족 사회 결속, 정착지 사회 연결, 언어와 문화, 안전, 참여, 지원)에서 정착 지표를 개발하였는데¹⁾, 본 조사연구는 위 정착 지표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개발한 정착 지표를 활용하여 2022년까지 한국에 수용된 재정착난민의 정착 실태를 분석하되 특별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수용된 1기부터 3기까지의 재정착난민에 대하여는 2018년 조사 이후 5년간 정착 지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2018년 이후 수용된 4기부터 8기까지의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와 비교하였음.
- 이민정책연구원(2014년, 2017년), 유엔난민기구(2017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용역연구(2018년) 등의 선행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과 권고사항을 통하여 본 재정착난민 실태조사 연구의 방향성과 제도개선 방안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재정착 제도의 향후 방향과 현지 통합의 발전을 위해 연구진들의 결론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음.

3. 조사연구의 방법

- 인천시, 김포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1기~8기 성인 재정착난민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정착난민의 현황 등의 기초자료는 법무부 및 유관 시민단체 등에서 수집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추가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과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재정착난민 지원기관 등의 관계자(통역, 교육 강사, 직원)들의 면담과 설문조사 당일 조사에 참여한 난민 당사자들 중 추가 면담에 동의한 재정착난민들의 인터뷰를 실시함.
-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위하여 유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정착난민 1기~9기에 해당하는 성인 141명에게 설문조사 관련 안내를 함. 그중 조사 당시 영

1) 이호택, 2018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8.11. (이하 "이호택, 2018")

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거주하고 있던 9기(성인 16명)와 미응답자를 제외한 10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전체 응답자 107명 가운데 문항 별로 답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답변한 사람만을 분모로 분석하였으며, 복수응답이 허용된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숫자가 아닌 응답 수를 분모로 분석하였음.

- 온라인으로 입력된 설문지를 107명의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유하여 참가자들이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자원활동가)을 팀으로 편성하여 유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천시, 김포시, 시흥시를 각각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간 진행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한국어, 영어, 버마어, 카렌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여 진행하였음.
-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착 지표인 RISE(Refugee Integration Survey and Evaluation)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주국 경험을 추가하여 상주국²⁾에서의 경험 등이 정착과정에 미치는 영향들도 같이 파악하고자 함. 이 같은 표준화된 정착 지표는 재정착난민의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의 경과, 수준, 영향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집단 간 비교, 시계열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향후 관련 정책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주요 정착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부평구 카렌 난민, 김포시 말레이시아 도시난민, 시흥시 말레이시아 도시난민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김포시의 경우 7기의 인천 서구에 정착한 1가족 중 성인 2명의 연구 참여자를 포함하고 있음.

2)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 성인들과 자녀들의 경우 무국적자들이지만 출신국의 국적을 가진 이들도 다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난민법 2조 1항, 동법 22조에서 무국적자들을 염두해 두고 사용되었던 '상주국'이라는 법적 용어와는 별개로 사용함.

제2장. 한국의 재정착 제도

1. 재정착난민제도 개요

- 난민의 재정착(Resettlement)이란 난민의 영구적인 해결방안들인 비호국의 지역사회 통합 및 본국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할 경우 난민의 제3국으로의 영구이주, 즉 비호국에 있는 난민을 영주권을 부여할 의지가 있는 제3국으로 선발하여 이주하는 과정임.
- 난민보호제도는 자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온 난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난민 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는 수동적 난민 수용 방식이지만 난민 재정착은 국가가 해외에 체류하는 난민을 받아들여 자국의 난민으로 보호하는 적극적 난민 수용 방식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며, 난민 쪽에서도 모범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나라에 감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경향이 있음.
- 2023년 전 세계 재정착난민의 수요가 2,003,982명으로 증가하여, 2022년의 1,473,156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2024년 재정착 수요는 2,420,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착난민 수용을 통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필요성³⁾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난민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GCR)는 난민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균등한 방식으로 난민 보호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굳건한 결의를 나타내며 재정착 국가 수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3개년 전략을 내놓기도 하였음⁴⁾.

3) UNHCR, PROJECTED GLOBAL RESETTLEMENT NEEDS 2024 : <https://reporting.unhcr.org/unhcr-projected-global-resettlement-needs-2024>

4) UNHCR,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 <https://globalcompactrefugees.org/>

2. 재정착난민 수용과 시범사업 경과

가. 수용근거와 절차

- 2013.7.1. 시행된 난민법 제24조⁵⁾와 난민법 시행령 12조⁶⁾에서 재정착희망난민 수용의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자, 정부는 2015.4.3.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가족 단위 미얀마 난민을 매년 30명 이내로 수용하는 재정착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는 2010년 재정착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정규화에 들어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시작된 재정착시범사업임.
- 재정착난민수용의 구체적 추진 절차는 1) 계획의 수립·심의를 위한 ① 재정착실무협의체 사전 협의 ②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확정, 2) 심사·선발 과정으로서의 ① UNHCR 추천 ② 대상자 선발 ③ 건강검진 ④ 출국 전 사전교육, 3) 출국수속·입국을 위한 ①여행증명서 등 발급 ②항공권 구입 ③ 입국, 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 후 ①초기 정착지원 ② 한국어, 한국 사회 적응, 취업 교육, 5) 센터 퇴소 후의 정착지 자립 지원의 과정임.

나. 수용현황

[표0-1] 국내 재정착난민 입국 및 지역정착 현황⁷⁾

사업	입국시기	기수	인원 (가구)	출신/거주	정착년월	정착지역
1차	2015.12	1	22(4)	미얀마 / 태국캠프	2016.09	부평
	2016.11	2	34(7)	미얀마 / 태국캠프	2017.06	부평
	2017.07, 08	3	30(5)	미얀마 / 태국캠프	2018.02	부평

- 5) 난민법 제24조(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 6) 제12조(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재정착희망난민이 제1항에 따른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정착 허가 전에 건강검진 및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절차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7) 2021.5.12. 재정착난민실무협의체 회의자료 등 법무부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

2차	2018.11	4-1	13(5)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19.05	김포
	2018.12	4-2	13(3)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19.05	김포
	2019.09	5	12(6)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 말레이시아	2020.03	김포
	2019.09	5	2(1)	이란 / 말레이시아	2020.03	부천
	2019.09	5	3(1)	이란 / 말레이시아	2020.06	부천
	2019.12	6	20(7)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0.09	김포
	2020.11	7	13(4)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1.07	김포
	2020.11	7	4(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1.07	인천
3차	2022.05	8-1	1(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2.09	김포
	2022.05		15(5)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2.11	시흥
	2022.05		4(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2.12	시흥
	2022.07	8-2	3(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2.11	시흥
	2022.07		3(3)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2.12	시흥
	2022.07		1(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2.12	시흥
	2022.07		5(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3.01	시흥
	2022.08	8-3	8(2)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2.12	시흥
	2022.08		3(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3.01	시흥
	2022.12	9	26(9)	미얀마, 무국적(3명) / 말레이시아	2023.06	시흥
	2022.12		1(1)	미얀마 / 말레이시아	2023.06	김포
	합계			236(69)		

-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수용된 총 69가구 236명 중 1~3기(2015~2017년) 16가구 총 86명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카렌족으로, 한국 입국 전 태국 국경의 ‘맬라(Mae La) 난민촌’과 ‘움삐얌마이(Umphiem Mai) 난민촌’에서 거주하였고, 현재 부평 지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음. 4~7기(2018~2021년) 28가구 총 82(1명 사망)명은 이전과 달리 카렌족 뿐만 아니라 친족, 카친족, 아프가니스탄인, 이란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입국 전 말레이시아의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인천(2명), 부천(5명), 김포(77명)에 정착함. 2022년도에 5월, 7월, 8월에 입국한 8기 14가구 42명(1명 김포)은 시흥시에 정착하였고, 2022년 12월에 입국한 9기는 미얀마(9가구 24명) 및 무국적(3명)자들이 입국하여 2023년 6월 시흥시(김포 1명 가족 결합)에 정착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1차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재정착난민은 총 16가구 86명임. 제1기 재정착난민은 태국 내 미얀마 카렌족 난민캠프에서 선발된 4가구 22명으로 2015년 12월 23일 한국에 입국하여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리셉션 센터)에서 9개월간의 사회 적응 교육을 마친 후 2016년 9월 29일에 정착지인 인천 부평지역에 배치됨. 2기 역시 태국 내 미얀마 카렌족 난민 캠프에서 선발된 7가구 34명이 2016년 11월 2일에 입국하여 7개월간 정착교육 후 2017년 6월 9일에 부평지역에 정착함. 3기는 로힝야 1가구를 포함한 5가구 30명으로 2017년 7월 25일에 입국하여 7개월간 정착교육을 받은 후 2018년 2월 27일에 부평지역에 정착함(이호택,2018). 이후 2022년 부평에 정착했던 1가구가 김포로 이주하여 정착한 상태임.
- 제1차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정규사업 전환과 시범사업 연장을 검토한 결과,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한 후 정규사업 전환을 다시 검토하기로 함. 제2차 시범사업은 캠프난민 대신 말레이시아 내 도시 거주 미얀마 난민 중 30명 단위로 2차에 걸쳐 한해 60명까지 수용하기로 함. 그리하여 2018년 11월 9일에 4-1기 5가구 13명(미얀마), 2018년 12월21일에 4-2기 5가구 13명(미얀마) 총 10가구 26명이 입국하여 정착교육을 받고 2019년 5월 15일에 김포시에 정착하였으며, 2019년 9월 26일에 5기 8가구 17명(미얀마 5가구 11명, 이란 2가구 5명, 아프가니스탄 1명)이 입국하여 2020년 3월 27일에 김포시(6가구)와 부천시(이란 2가구)에 정착하였고, 2019년 12월 11일에 6기 7가구 20명(미얀마)이 입국하여 정착교육을 받은 후 2020년 9월 15일에 김포시에 정착함(정금심,2020).
- 2차 시범사업 난민들은 미얀마 카렌족 캠프 출신의 1차 시범사업 난민들과 달리, 카렌족 뿐만 아니라 버마족을 포함한 8대 민족에 더하여 ‘친’주의 ‘조미’, ‘팔람’, ‘하카’, ‘카친’주의 ‘리슈’, ‘자이와’ 등 13개 이상의 다양한 소수 민족과 아프가니스탄인, 이란인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입국 전 말레이시아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던 난민으로서 이전의 캠프출신의 난민들과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연도별 시범사업으로 매년 60명까지 1회 30명 단위로 연 2회 수용을 목표하였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9년에 수용 결정된 말레이시아 내 도시거주 미얀마 난민 5가구 17명(남 8, 여 9)이 제7기로 2020년 11월 19일 입국하였으며, 정착교육 후 2021년 7월 21일에 김포시(4가

구)와 인천시(1가구)에 정착함. 김포시에 정착했던 5기 아프가니스탄인 1명과 5기 1인 가정으로 정착했던 미얀마인은 코로나 시기에 각각 고양시와 부평으로 이주했고 4기 미얀마 가정의 자녀 1명은 결혼 후 2023년 인천으로 이주함.

- 2021년에도 2020년과 같은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하되 2020년 사업종료 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2021년에는 추가적인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22년에는 먼저 8기가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2022년 5월, 7월, 8월에 나뉘어 입국하여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냈으며, 이후 11월 23일 6가구 18명, 12월 14일에 7가구 16명, 2023년 1월에 2가구 8명이 차례로 시흥시 정왕동에 정착하였고(총 15가구 42명), 1명(1가구)은 지인이 있는 김포시에 정착함. 이후 12월 입국한 9기(10가구 27명) 중 1명(김포 가족 결합)을 제외한 9가구 26명이 시흥시에 정착, 8기와 9기를 합한 총 68명이 시흥시에 정착하였음. 2022년 말 기준 재정착난민 총 수용인원은 236명임. 2023년 8기 미얀마 1가구가 시흥시에서 김포시로 이주함.

다. 정착지역

- 1기~3기 재정착난민들이 정착한 부평지역은 1990년대부터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본부를 중심으로 미얀마 난민과 이주민들의 거점이 되었고 이민자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시, 부평구, 적십자, 지역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최초의 재정착난민 정착사업이 부평에서 진행됨. 부평지역 선정에는 취업 용이성, 주거시설 경제성, 교통 편의성, 아동 교육기관의 접근성,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성, 커뮤니티 활용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를 수렴, 인천 남동공단과 인접하여 있고, 미얀마인들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되었음(채보근,2021).
- 김포지역은 1990년대부터 양곡, 대곶, 마송, 검단 등 배후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이주민들이 모여들었고,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 ‘치타공 힐 트랙’에서 온 소수민족 난민인 180여 명의 줌머난민들이 재한줌머인연대를 형성, 김포시의 국민주민지원센터 등 난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원 경험이 있는 이주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부평에 이은 재정착난민의 정착

지가 됨. 김포시의회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난민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반대와 난민업무가 중앙사무라는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제의 요청에 따라 폐기됨.

○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소재지인 시흥은 2022년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의장 지자체로서, 지자체가 재정착난민의 수용의지를 보여 8기와 9기의 재정착난민 수용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 사례임. 부평이나 김포에 비해 적은 총 68명이 정착하였음.

- 시화국가산업단지 소재지인 시흥은 2022년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의장 지자체로서, 지자체가 재정착난민의 수용의지를 보여 8기와 9기의 재정착난민 수용이 이루어진 사례임. 부평이나 김포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적은 총 68명이 정착하였으나, 이후 2023년 8기의 미얀마 라카인 민족 1가구가 김포시 양촌읍으로 이주함. 친족 네트워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 이주민 집단의 지역정착은 상호 부조가 필연적이며 특히 초기정착 과정에서 돌봄의 품앗이, 일자리 정보 공유와 이직을 통한 적합한 일자리 탐색, 상호간 사적인 금융거래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동일 지역 정착 인구 규모도 정착 과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그 외 5기 재정착난민 가운데 이란 출신의 난민들이 부천지역으로 정착하였고, 처음에 김포에 정착하였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1명이 일산으로 이주하였음. 이들은 실태조사에도 참여를 거부하는 등 재정착제도에 대해 영주권 문제, 단순노무 취업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임. 또한 7기 재정착난민 중 미얀마 출신 난민 한 가정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학교 문제로 불가피하게 인천 서구로 이주하여, 주류 집단이 거주하는 부평, 김포, 시흥에서 떨어져 있어, 정착 지원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인 고립과 교류의 어려움 등을 보이고 있으며 정착과 관련된 과제로 남음.

제3장 국내외 선행 연구

1.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재정착 시범사업 점검조사 (UNHCR, 2017)⁸⁾

- 정부 주도의 재정착 실무그룹(Resettlement Working Group)을 더욱 활성화하여 정부 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유관 시민단체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야 함. 특히 이러한 실무그룹이 지역사회 통합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주체를 모으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정착부터 지역사회 통합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착난민이 정착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가능한 일찍 논의에 참여하여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양한 영역의 역량 있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재정착난민의 정착이 비단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이민정책 연구원: ‘국내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오정은, 2014)’

- 재정착난민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 확립(국내 상황에 적합한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을 확정하여, 이 기준에 따라 제한된 규모의 인원을 수용하는 방식).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한국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 출신
 - 학습능력과 자립능력을 갖춘 고학력자
 - 국내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국가 출신
 - 성인 혹은 보호자가 있는 미성년자

8) UNHCR: 'Review of the pilot resettlement programme in the Republic of Korea'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착난민의 국내 정착 지원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해야함.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난민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직영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음.
- 재정착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재정착난민 가운데에는 고학력자를 비롯하여 과거 전문직 경력자도 다수 있는데, 이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훈련이 필요함.

3. IOM 이민정책연구원 :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조영희, 2017)’

- 재정착 난민수용의 원칙, 방향성, 장기 전략 마련
 -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제적 책임분담, 정착 가능성 간 균형적 고려
- 인권보호에 기반한 인간개발 개념의 적용
 - 그들이 ‘평범한 삶’을 회복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개발’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
- 재정착 난민 정착 지원에 관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편성되게 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회통합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정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재정착 난민 사례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환류
 - 정부는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난민 정책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함
- 교육 단계별 연계성 강화
 - 일방적 ‘지원’보다 재정착 난민 스스로 정착 의지를 갖도록 ‘지지’
 - 재정착 난민의 자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난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함

- 난민업무에 관한 지자체 역할 부여
 - 지방행정 업무임을 명시하는 관련법제 마련을 통해 중앙 지자체 협업을 실현하고 재정적 지원 및 제반 제도적 기반 마련.
- 재정착실무협의체의 실질적 기능 강화
 - 재정착 난민 제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되려면 본연의 고유 업무 영역 내에서 외국인 및 이민자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타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함.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용역 보고서: ‘2018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이호택 외, 2018)’

- 국민들이 재정착난민의 수용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재정착난민의 정착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조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착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계되어 지원하되 민간참여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과도 연계되어야 함.
- 난민은 자신의 삶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사회에 공헌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난민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난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하고 주류사회에 기여하도록, 참여와 리더십을 인정하여야 하며, 재정착 제도 또한 책임의식과 사명감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함.

5. ‘재정착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자립과 통합 이론의 조화를 중심으로 (정금심, 2020)’

- 정책으로 첫째 경제적 자립 강화를 위한 인턴십 제도 도입과 다양한 창업교육 및 PPR 활용한 창업지원, 둘째 신체적 자립 강화를 위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활동 장려 및 의료기록의 연계·활용, 셋째 심리적 자립 강화를 위한 트

라우마 관리센터 운영, 넷째 사회적 자립 강화를 위한 국민과 난민간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어서 통합 기반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지역사회 연계 및 동족사회 결속 프로그램운영, 둘째 멘토링 활성화, 셋째 지역사회 참여 확대, 넷째 영주권 취득 및 귀화로의 접근성 확대, 마지막으로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자 자립과 통합을 촉진하는 또 다른 원리로서 교육문제를 논함.

제4장 실태조사 결과

1. 상주국 경험

1-1) 본국을 제외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 거주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표 1-1] 상주국 현황

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이란	기타
107	54	53	0	0	0
100%	50%	50%	0%	0%	0%

- 한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했던 나라들에 대한 답변은 최종 상주국에 근거해서 답한 것으로 보임. 태국 메솟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1기~3기의 경우 모두 태국을 선택했고, 4기~8기의 경우 모두 말레이시아를 선택함. 설문조사과정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던 이들 중 미얀마 친주 출신 난민들의 경우 말레이시아 입국전 인도 미조람 등지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에서는 드러나지 않음.
- 1기~3기의 경우 캠프난민들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했음. 대부분이 카렌(PWO카렌, SGAW카렌) 민족으로서 동일한 민족 정체성 기반 위에 두 개의 언어 정체성 즉 포(PWO)카렌어와 스고(SGAW)카렌어가 공존하고 있지만, 메솟의 난민캠프에서 ‘스고(SGAW) 카렌어’가 교과서와 수업에서 사용하는 표준어 구실을 한 점(이상국, 2016), 타 기수에 비해 민족 동질성이 높고 동시에 오랜 기간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알고 있던 사이라는 점 등이 말레이시아를 상주국으로 선택했던 도시난민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메솟의 9개의 난민캠프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이상국, 2016) 난민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긴 세월 형성되어왔음. 상대적으로 다수의 카렌민족이 캠프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서로 삶을 공유했던 반면, 말레이시아 도시난민(4기~8기)의 경우 미얀마 내 대표적인 7대 소수민족들인 샨, 카렌, 카친, 몬, 라카인, 친, 카야를 포함하여 동일 민족 자치구 내 다양한 민족 출신들로 이루어졌으며 상당수는 상호간 교류가 없었거나 많지 않았음. 캠프난민들과

는 달리 말레이시아에서 도시 중심으로 민족별 커뮤니티 및 민족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류하며 살다가 재정착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비로소 형성된 커뮤니티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김포시와 시흥시에 정착한 도시난민들은 각 가정들마다 소통되는 언어와 종교가 다양한 다민족, 다문화, 다정체성 난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이들 중 4기~7기는 부천에 정착한 5기의 이란인과 인천 서구에 정착한 7기의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가 김포시에 정착하였고 8기는 김포에 정착한 1명 외에는 시흥시에 정착함. 이에 김포 및 시흥시에 정착한 이들의 경우 부평에 정착한 카렌민족 중심의 동질성이 높은 난민들과 달리 13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민족으로 이루어짐. 나아가 부평의 카렌민족이 대부분 족내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인 반면 4기부터 8기까지 난민가정들은 일부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족외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족 내 언어 및 문화 다양성 특성도 있음.

1-2) 상주국에는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표 1-2] 상주국 체류 기간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3년 미만	3	0	0	0	0	0	1	0	2
	3%	0%	0%	0%	0%	0%	11%	0%	12%
2) 3년-5년	6	0	0	1	1	2	1	0	1
	6%	0%	0%	6%	6%	67%	11%	0%	6%
3) 5년-10년	34	4	6	1	7	1	4	4	7
	32%	33%	24%	6%	44%	33%	44%	44%	41%
4) 10년 이상	64	8	19	14	8	0	3	5	7
	60%	67%	76%	88%	50%	0%	33%	56%	41%

- 상주국 체류기간은 10년 이상이 64명(60%)으로 가장 많고 이들을 포함하여 98명(92%)이 5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태국 메솿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카렌족(1~3기)의 경우 상주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이들이 1기 8명(67%), 2기 19명(76%), 3기 14명(88%)으로 41명임. 부모들은 대부분 10년 혹은 20~30년 이상의 장기체류자들(정금심, 2020)이었으며, 전체 입국자 86명의 48%에 달하며 4기~8기 보다 상주국에 더 오래 거주한 것으로 나타

남. 반면 말레이시아를 상주국으로 선택한 이들(4기~8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거주 비율이 1기~3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4기~8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이 23명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들 역시 23명으로 10년 이상 체류자와 동일한 비율임. 5년 미만인 이들도 8명으로 1, 2, 3기의 메솿 거주자들과 비교해 상주국 거주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빨리 정착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음.

1-3) 상주국에서는 어떤 생계활동을 하셨습니까?

[표 1-3] 상주국 경제활동 영역

내용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제조업 (공장)	14	2	1	2	2	1	2	2	2
	13%	17%	4%	13%	13%	33%	22%	22%	12%
2) 식당	30	0	2	3	7	2	5	2	9
	28%	0%	8%	19%	44%	67%	56%	22%	53%
3) 농업	19	5	9	4	0	0	0	0	1
	18%	42%	38%	25%	0%	0%	0%	0%	6%
4) 일용직	7	2	0	0	3	0	1	0	1
	7%	17%	0%	0%	19%	0%	11%	0%	6%
5) 사무직	3	1	0	0	1	0	0	0	1
	3%	8%	0%	0%	6%	0%	0%	0%	6%
6) 서비스업	4	0	2	1	0	0	0	0	1
	4%	0%	8%	6%	0%	0%	0%	0%	6%
7) 기타	14	0	5	4	2	0	1	1	1
	13%	0%	21%	25%	13%	0%	11%	11%	6%
8) 무직	15	2	5	2	1	0	0	4	1
	14%	17%	21%	13%	6%	0%	0%	44%	6%

- 상주국 경제활동 경험에 있어 요식업에 종사한 비율이 28%로 가장 높게 드러남. 이는 말레이시아 거주자(4기~8기)들의 영향으로 요식업 종사자 전체 30명중 말레이시아 거주자들이 25명으로 83%에 이룸. 특히 말레이시아 경유자 전체 54명중 25명으로 46%에 이룸. 다음으로 농업 종사 경험이 18%로 높은데 이는 메솿 난민캠프 거주자들의 영향으로 전체 19명 중 메솿 거주자들이 18명으로 95%에 이룸. 다음으로 제조업과 기타 직업으로 많았고 제조업은 기수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기타 직업의 경우 7명이 학생이었으며 그 외

베이비시터, 에어컨 기사, 교사 등임. 무직의 경우 14%이며 7기의 경우 44%(4명)로 가장 높은 비율임. 7기를 제외하면 말레이시아 경유자들의 경우 무직자들이 2명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남. 메솟 거주자들의 경우 53명중 9명(16%)이 경제활동 경험이 없음. 7기가 상주국에서 무직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자녀들의 출생연도별 통계(2011년생~2016년생)로 볼 때 말레이시아 체류기간 동안 자녀들 보육기와 겹쳐 돌봄 제도에서 배제된 난민으로서 남성중심의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으로 추정됨.

- 상주국에 따라 경제활동 경험 역시 차이가 엇보임. 메솟 경유자들의 경우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말레이시아 거주자들의 경우 요식업 종사 비율이 높음. 이는 도시난민과 캠프난민의 차이로 추정됨. 태국내에서도 메솟 난민캠프 거주자들과 방콕 거주 난민들의 경제활동의 잠재적인 용이성과 통제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그러나 난민캠프를 중심으로 하는 메솟 거주자들도 농업에 비해 적지만 농업 외에도 제조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드러남. 태국정부의 통제가 본격화된 이후 일정한 비용 지출을 통해 노동권을 얻을 수 있지만 통제 이전의 노동 경험 혹은 노동허가를 얻기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합법 취업 등의 경험까지 포함된 결과로 보임. 반면 말레이시아 거주자들은 도시 거주 비율이 높은 까닭에 요식업보다는 낮지만 제조업, 사무직, 일용직 등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1-4) 상주국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표 1-4] 상주국에서의 어려움

내용	계 (105)	1기 (11)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생계	15	0	8	3	0	0	2	1	1
	14%	0%	32%	20%	0%	0%	22%	11%	6%
2) 건강	9	0	1	3	4	0	0	1	0
	9%	0%	4%	20%	25%	0%	0%	11%	0%
3) 교육	8	0	4	1	0	1	2	0	0
	8%	0%	16%	7%	0%	33%	22%	0%	0%
4) 체류자격	25	4	5	3	8	0	2	1	2
	24%	36%	20%	20%	50%	0%	22%	11%	12%
5) 언어	5	1	2	0	1	0	0	0	1
	5%	9%	8%	0%	6%	0%	0%	0%	6%

6) 문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자녀양육	8	1	3	2	0	0	0	1	1
	8%	9%	12%	13%	0%	0%	0%	11%	6%
8) 자녀교육	9	3	0	2	1	2	1	0	1
	9%	28%	0%	13%	6%	67%	11%	0%	6%
9) 정부의 단속	18	0	2	0	2	0	1	5	8
	17%	0%	8%	0%	13%	0%	11%	56%	47%
10) 주거	7	2	0	1	0	0	1	0	3
	7%	18%	0%	7%	0%	0%	11%	0%	18%

- 상주국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체류자격, 정부의 단속, 생계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단속은 난민캠프인 메솿보다는 말레이시아 거주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남. 이민청과 경찰의 단속은 UNHCR에 난민신청을 통한 인지와 보호 이전 밀입국 혹은 체류기간을 넘김으로 인한 미등록체류상태를 반영하며 나아가 심사 후 인지와 보호에도 불구하고 단속 및 노동권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을 드러냄. 결국 한국에 정착하기 전 난민들이 상주국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험했던 비합법 취업 및 비합법 체류와 관련됨. 물론 말레이시아 보다는 난민캠프에서 거주하던 1기~3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류관련 단속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 역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난민 캠프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합법 취업, 불안정한 삶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설문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직간접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했던 길거리, 엘리베이터, 집 문 앞, 집 안에서의 강도살인 등에 관한 기억과 공포감이 단속 못지 않게 강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한국에서의 삶이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조차 어두운 거리, 홀로 있는 공간 등 한국의 유사한 경관에서 심리적으로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정착국에서의 삶에 트라우마로써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리셉션 센터에서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상주국에서 난민들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배제된 건강권,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경제활동, 나아가 교육, 주거, 돌봄, 안전 등 모든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된 비시민들로 드러나며 상주국에서 배제된 삶의 불안정함과 곤궁함으로 인한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냄. 나아가 상기의 상주국의 삶과 경험이 정착국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소 결

- 상주국에서의 삶과 경험이 중요한 것은 비시민으로 장기간 살았던 사회에서의 교육경험, 경제활동, 트라우마, 관계 등이 정착국에서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재정착난민 1기부터 8기까지의 정착과정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주국은 태국 메솿(53명)과 말레이시아(54명)로 메솿 난민캠프 출신 1기~3기 난민들이 도시난민들인 말레이시아 출신 난민들(4기~8기)보다 상주국 장기체류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메솿 캠프난민들은 농업중심의 경제생활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출신 난민들은 요식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다수로 드러남. 1기~3기의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했으며 대부분이 카렌민족으로 민족 동질성이 높고 동시에 오랜 기간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알고 있던 사이라는 점 등이 민족 다양성을 가진 말레이시아를 상주국으로 선택했던 도시난민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출신 도시난민들 중 4기~7기는 주로 김포시에 정착하였고 8기는 시흥시에 정착함. 두 상주국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체류자격, 정부의 단속, 생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난민들은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배제된 건강권,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경제활동, 나아가 교육, 주거, 돌봄, 강도로 인한 재산과 생명의 위협과 같은 안전권으로부터 배제 등 모든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된 비시민들로 드러나며 상주국에서 배제된 삶의 불안정함과 곤궁함으로 인한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2. 출국 전 사전교육

- 출국 전 사전교육은 재정착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나라마다 사전교육의 내용 및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제이주기구(IOM)의 재정착 관련 설명 문건에 따르면 사전교육은 수용국에서의 빠른 적응을 돕고 막연한 기대감과 현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됨. 따라서 재정착난민 수용국은 직접 혹은 IOM과 협력하여 출국 전 사전교육을 실시함.
- 한국은 IOM과 협력하여 최종 선발된 난민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사전교육을 실시함. 교육 내용은 기수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 내용

에는 1) 새로운 여정을 위한 준비(짐 꾸리기, 출발, 비행기 이용 시 유의사항, 비행기 내의 음식, 입국 절차 등), 2) 한국 정보 일반(국가 개황, 한국의 주요 도시들, 계절과 날씨, 역사, 주요 명절과 공휴일, 생활방식과 문화 등), 3) 한국에서 정착하기(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관련 정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 등), 4) 한국의 집(주거형태, 집을 구하는 방법 등), 5) 한국 경제 및 돈 관리(한국 경제의 특징, 취업의 중요성, 일자리 유지하기, 은행 이용하기, 생필품 구매하기 등), 6) 교통수단(한국 내 교통수단, 운전면허 취득 등), 7) 의사소통 수단과 미디어(미디어의 역할, 휴대폰과 인터넷 이용 등), 8) 한국의 의료(건강보험, 병원의 종류 등), 9) 교육(아이들의 교육, 어른들을 위한 교육 등), 10) 기초 법질서 및 권리와 의무(대한민국의 법, 경찰의 역할, 생활 질서 등), 11) 유용한 번호들(경찰긴급신고 112, 경찰민원콜센터 182, 소방서 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31, 우체국 1588-1300,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산콜센터 120 등) 등임.

2-1) 사전교육의 내용이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1] 사전교육 내용 도움 정도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도움됨	29	3	9	4	2	0	4	1	6
	27%	25%	36%	25%	12%	0%	44%	11%	35%
2) 도움됨	62	9	14	9	11	0	5	6	8
	58%	75%	56%	56%	69%	0%	56%	67%	47%
3) 도움되지 않음	14	0	2	2	3	3	0	2	2
	13%	0%	8%	13%	19%	100%	0%	22%	12%
4) 매우 도움되지 않음	2	0	0	1	0	0	0	0	1
	2%	0%	0%	6%	0%	0%	0%	0%	6%

2-2) 사전교육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표 2-2] 사전교육 내용 선호영역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출국 준비	51	10	15	10	2	3	3	1	7
	47%	83%	60%	62%	12%	100%	34%	11%	41%
2) 한국 생활정보	19	2	3	3	3	0	1	3	2
	18%	17%	12%	19%	19%	0%	11%	34%	12%

3) 한국 문화정보	12	0	4	3	4	0	1	0	2
	11%	0%	16%	19%	25%	0%	11%	0%	12%
4) 기초 한국어	14	0	0	0	6	0	1	3	4
	13%	0%	0%	0%	38%	0%	11%	34%	23%
5) 긴급 전화번호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1%	0%	0%
6) 한국 의료정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한국의 기초 법 질서 및 권리와 의무	4	0	0	0	0	0	2	0	2
	4%	0%	0%	0%	0%	0%	22%	0%	12%
8) 기타	6	0	3	0	1	0	0	2	0
	6%	0%	12%	0%	6%	0%	0%	21%	0%

-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85%)가 출국 전 사전교육이 한국에서의 정착 및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함. 출국 전 사전교육이 재정착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출국 전 사전교육은 정착국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 사전 교육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기수에서 ‘출국 준비’에 대한 정보가 가장 유용했다고 답변함. 이는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재정착난민들이 출국 절차와 비행기에서의 행동 요령에 대해 익숙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반면 ‘한국의 기초 법질서 및 권리와 의무’나 ‘한국 의료 정보’에 대해서는 덜 유용하다고 답변함. 실제로 출국 전 사전교육은 수용국 사회통합의 첫 단계로 인식되고 이 기간 동안의 활동이 이후 정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난민들이 출발 전에 가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과다한 정보는 잘 수용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이호택, 2018). 따라서 지나치게 과잉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적정 시간 동안 언어, 취업, 교육 등 당장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난민들의 기대와 염려 또는 궁금한 점을 논의할 수 있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일본의 재정착 시스템의 경우 RHQ Support Center의 사례(신지원 외, 2013)를 참조할 수 있는데, 사전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각 재정착난민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기타' 응답자의 답변으로는 안전,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음, 난민 체류 자격과 영주권의 차이점 설명이 유용했음.

2-3) 사전교육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3] 상주국 경제활동 영역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한국어	39	9	13	6	2	0	0	1	8
	36%	75%	52%	38%	13%	0%	0%	11%	47%
2) 한국정보, 문화 등	8	2	3	0	0	1	0	0	2
	7%	16%	12%	0%	0%	33%	0%	0%	12%
3) 생활/취업/치안/ 주거 /교통 정보	7	0	0	1	1	0	1	1	3
	6%	0%	0%	6%	6%	0%	11%	11%	18%
4) 아동교육 관련 정보	2	0	0	0	0	1	1	0	0
	2%	0%	0%	0%	0%	33%	11%	0%	0%
5) 영주권/귀화 정보 /재정착난민 비자관련 정보	4	0	0	0	1	0	1	2	0
	4%	0%	0%	0%	6%	0%	11%	22%	0%
6) 없음	25	2	7	9	1	1	2	2	1
	23%	17%	28%	56%	6%	33%	22%	22%	6%
7) 필요하나 구체적 답변 없음	22	0	2	0	10	0	4	3	3
	21%	0%	8%	0%	63%	0%	44%	33%	18%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고 36%, 한국정보 및 문화 7%, 생활/취업/치안/주거/교통 정보 6%, 영주권, 귀화정보, 재정착난민 비자 관련 정보 4%, 아동 교육 관련 정보 2% 등을 답변하였음.
- 많은 설문 참여자들이(39명) 본 문항에 '한국어 교육'을 기재했음을 미뤄보아 한국 정착과 사회통합에 있어 언어가 난민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어 교육은 정착 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난민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강화되어 이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소 결

- 난민들의 비현실적 기대는 난민들과 수용국 쌍방에 스트레스를 주고 사회통합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용국은 직접 혹은 IOM과 협력하여 출발 전 사전교육을 통하여 재정착 및 여행과정, 수용국의 기후, 지리, 주거, 교육, 정착프로그램, 취업, 공적 사회부조 등 국가에 관한 기본지식, 기초회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화행동 등에 대하여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한국은 IOM과 협력하여 최종 선발된 난민들을 대상으로 15시간 이내의 출발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함.
- 교육내용은 1) 새로운 여정을 위한 준비(짐 꾸리기, 출발, 비행기 이용 시 유의사항, 비행기 내의 음식, 입국, 도착), 2) 한국 정보 일반(국가 개황, 한국의 주요 도시들, 계절과 날씨, 역사, 주요 명절과 공휴일, 생활방식과 문화), 3) 정착하기(지원센터, 지원센터의 교육내용), 4) 한국의 집(주거형태, 집을 구하는 방법), 5) 한국 경제 및 돈 관리(한국 경제의 특징, 취업의 중요성, 일자리 유지하기, 은행 이용하기, 생필품 구매하기), 6) 교통수단(한국 내 교통수단, 운전면허), 7) 의사소통 수단과 미디어(미디어의 역할, 휴대폰과 인터넷), 8) 한국의 의료(건강보험, 병원의 종류), 9) 교육(어린이들의 교육, 어른들을 위한 교육), 10) 기초 법질서 및 권리와 의무(대한민국의 법, 경찰의 역할, 생활 질서), 11) 유용한 번호들(경찰긴급신고 112, 경찰민원콜센터 182, 소방서 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우체국 1588-1300,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다산콜센터 120, 콜렉트 콜 1541), 12) 문화충격(문화충격, 문화충격의 감정과 대처 방법) 등.
- 출국 전 사전교육은 수용국 사회통합의 첫 단계로 인식되고 이 기간 동안의 활동이 이후 정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설문조사 결과 난민들이 출발 전에 가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와 다른 현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문제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착과정에서 차차 배워갈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기대와 현실에 관련된 질의 응답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함.

3. 취업 및 재정

<취업상태>

3-1)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표 3-1-1] 현재 취업 상태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65	7	11	8	12	3	7	4	13
	61%	58%	44%	50%	75%	100%	78%	44%	76%
아니오	42	5	14	8	4	0	2	5	4
	39%	42%	56%	50%	25%	0%	22%	56%	24%

- 재정착난민들의 취업 상태를 파악한 결과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07명 중 65명으로 취업률이 61%로 나타남. 반면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2명으로 실업률은 39%임.

[표 3-1-2] 취업자의 성비

	계 (65)	1기 (7)	2기 (11)	3기 (8)	4기 (12)	5기 (3)	6기 (7)	7기 (4)	8기 (13)
남성	35	5	8	7	6	0	2	3	4
	54%	71%	73%	88%	50%	0%	29%	75%	31%
여성	30	2	3	1	6	3	5	1	9
	46%	29%	27%	12%	50%	100%	71%	25%	69%

- 2018년 재정착난민 사례조사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1기~3기의 취업률 60.7%와 실업률 39.5%와 비슷한 수준임(이호택, 2018). 이중 여성답변자(총 60명 답변)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 중 50%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답변하여, 2018년 조사 당시 36.8%에 비해 13.2% 상승하였음.

[표 3-1-3] 미취업자의 성비

	계 (42)	1기 (5)	2기 (14)	3기 (8)	4기 (4)	5기 (0)	6기 (2)	7기 (5)	8기 (4)
남성	12	0	6	3	1	0	1	1	0
	29%	0%	43%	38%	25%	0%	50%	20%	0%
여성	30	5	8	5	3	0	1	4	4
	71%	100%	57%	62%	75%	0%	50%	80%	100%

- 전체 취업자 중 남성은 54%, 여성은 46% 비율이며, 미취업자의 경우 여성이 71%로 압도적으로 많음. 여성 미취업자의 경우 표[3-9]에 의하면 대다수 미성년자녀들을 돌봄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1-3기의 경우 정착기간이 오래되었어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미취업자의 31%가 자녀돌봄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2018년 조사에 참여했던 태국 메솿 지역 캠프출신의 1-3기의 취업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으며 (취업률 49% : 26/58), 말레이시아에서 온 도시난민인 4-8기의 취업률은 1-3기에 비해 더 높음 (취업률 72% : 39/54). 1-3기의 취업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4-8기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수가 조금 적고,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조사에 참여했으나 일자리를 갖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음. 4-8기 중, 5기의 경우 참여자가 모두 한부모 여성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전원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 그 외 기수별로 가족이 없이 들어온 1인가구 비율이 높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4-8기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8기의 경우 조사 설문 당시, 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연결해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난민들이 많아 대다수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4-7기의 정착을 돕고 있는 김포지역의 난민지원기관에서는 도시난민으로 이전 체류국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취업활동 및 개발에 적극적이며 해당 지역 자체가 제조업체가 2021년 조사기준 13,582개 업체로 많은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용이한 점이 해당 기수의 난민들의 활발한 취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7기의 경우 건강상의 사유로 실업상태인 인천에 정착한 성인 2명을 제외할 경우 취업률은 57%로 높아지게 되며 김포거주자들(4기-7기)만의 취업률은 74%(26/35)로 높은 상태임. 또한 정착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젊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맞벌이를 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김포지역 거주 4-7기 재정착난민들의 특징임.
- 고용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난민 중 3기의 1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함.

3-2) 주당 근무시간

[표 3-2] 주당근무시간

내용	계 (44)	1기 (7)	2기 (11)	3기 (8)	4기 (10)	5기 (3)	6기 (3)	7기 (2)	8기 (0)
1) 20시간 이하	7	4	1	2	0	0	0	0	0
	16%	57%	9%	25%	0%	0%	0%	0%	0%
2)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6	0	4	2	0	0	0	0	0
	14%	0%	36%	25%	0%	0%	0%	0%	0%
3) 40 시간 이상	31	3	6	4	10	3	3	2	0
	70%	43%	55%	50%	100%	100%	100%	100%	0%

-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65명의 재정착난민 중 주당 근무시간에 답변한 이는 68%(44명)이며, 32%(21명)는 답변하지 않았음.
-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로 답변한 응답자는 16%(7명),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14%(6명)로, 법정근로기준 시간(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근무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음. ‘40시간 이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31명으로, 대다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
- 1기-3기까지의 재정착난민들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답변자 수가 1기 7명 취업자중 3명, 2기 11명 취업자중 6명, 3기 8명 취업자 중 4명임. 이들 중 다수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재정착난민들을 위한 취업연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로 진행되고 있음.)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하고 있는 1-3기 난민들의 비율은 46% 정도임. 4-7기의 근무시간은 모두 100% 40시간 이상이며, 김포 및 인천 서구 등, 산업체 몇 군데로 나뉘어져서 일하고 있음.

3-3)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또는 받을 예정인가요?)

[표 3-3] 퇴직금

	계 (94)	1기 (9)	2기 (24)	3기 (14)	4기 (11)	5기 (3)	6기 (9)	7기 (9)	8기 (15)
예	29	3	7	3	4	0	4	2	6
	31%	33%	29%	21%	36%	0%	44%	22%	40%
아니오	65	6	17	11	7	3	5	7	9
	69%	67%	71%	79%	64%	100%	56%	78%	60%

- 퇴직금에 관련된 답변은 총 94명이 답변, 퇴직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답변자는 29명(31%),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답변자는 65명으로 69%임.
- 퇴직금의 기준인 1년 만근 시 지급이 된다는 원칙상,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한 회사에 다니는 재정착난민이 많거나, 1년 미만의 근무자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해 볼 수 있음. 실제적으로 초기 재정착난민 그룹인 1-3기에서 퇴직금 경험이 적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임.
- 8기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을 받을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40%(6명), 취업 중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7%(7명),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13%(2명)임.

3-4) 작년에 일한 파트타임 직장의 수

[표3-4] 작년에 일한 파트타임 직장의 수

내용	계 (101)	1기 (10)	2기 (23)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1) 없다	58	6	11	9	11	3	3	2	13
	57%	60%	48%	60%	68%	100%	33%	22%	81%
2) 1군데	27	4	7	5	2	0	1	6	2
	27%	40%	30%	33%	13%	0%	11%	67%	13%
3) 2~3군데	11	0	5	1	1	0	3	1	0
	11%	0%	22%	7%	6%	0%	33%	11%	0%
4) 4군데 이상	5	0	0	0	2	0	2	0	1
	5%	0%	0%	0%	13%	0%	22%	0%	6%

- 작년(2022)에 파트타임 직장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43%이며, 57%는 파트타임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3-5) 작년에 한국에서 일한 직장의 수

[표 3-5] 작년에 한국에서 일한 직장의 수

내용	계 (100)	1기 (11)	2기 (24)	3기 (15)	4기 (13)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1) 없다	38	5	6	6	8	1	2	1	9
	38%	45%	25%	40%	62%	33%	22%	11%	56%

2) 1군데	47	6	14	9	3	2	2	5	6
	47%	55%	58%	60%	23%	67%	22%	56%	38%
3) 2~3군데	10	0	4	0	0	0	3	3	0
	10%	0%	17%	0%	0%	0%	33%	33%	0%
4) 4군데 이상	5	0	0	0	2	0	2	0	1
	5%	0%	0%	0%	15%	0%	22%	0%	6%

[표 3-5-1] 작년 대비 현재 취업 지표

내용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현재 직장 있음	65	7	11	8	12	3	7	4	13
작년직장 있음	62	6	18	9	5	2	7	8	7
작년대비 올해 취업	+3	+1	-7	-1	+7	+1	0	-4	+6

- 작년(2022)에 풀타임 직장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62명(62%)임. 이는 현재 일하고 있다고 답한 61%와(표 3-1 참고) 비슷한 수치로 볼 수 있음. 이중 작년에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험이 있는 이들은 15%인 15명으로 2-3군데를 옮긴 이들은 2기에 4명, 6,7기에 각각 3명씩이 있음. 또한 4군데 이상의 직장을 옮긴 이는 이중 5명으로 4기 2명, 6기 2명, 8기 1명이 답변하였음.
- 해당 기수의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난민지원기관에서 언급한 바로는 4기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연계 받았던 산업체에서 임금체불의 문제가 생기면서 몇 번 직장을 옮기는 일이 있었으며, 도시난민출신의 4-6기 재정착난민들의 취업 및 이직이 상대적으로 앞의 1-3기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보고 되었음.

<직업과 교육수준의 관계>

3-6) 하고 있는 일이 교육수준보다 어떠한가요?

[표 3-6] 직업과 교육수준의 관계

내용	계 (72)	1기 (10)	2기 (15)	3기 (9)	4기 (11)	5기 (3)	6기 (7)	7기 (4)	8기 (13)
1) 내가 받은 교육수준보다 낮은 일이다	25	3	7	4	1	1	3	0	6
	35%	30%	47%	45%	9%	33%	43%	0%	46%
2) 비슷한 수준이다	40	5	6	3	9	2	4	4	7
	56%	50%	40%	33%	82%	67%	57%	100%	54%
3) 교육수준보다 높은 일이다	7	2	2	2	1	0	0	0	0
	10%	20%	13%	22%	9%	0%	0%	0%	0%

- 한국에서 가지게 된 직업이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일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5명(35%),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40명(56%), 더 높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명(10%)이었음.
- 1-3기 난민캠프출신의 재정착난민들은 난민캠프에서 무직이거나 일용직 농업노동자나 임업노동자, 건축, 난민캠프병원 보건상담원, 요양사, 난민캠프 학교수학교사, 지리교사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음. 2018년 조사 당시, 제조업에서 일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20%는 당시 하던 일이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높고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하였고, 8%가 교육수준보다 낮은 쉬운 일이라고 응답하였음(이호택, 2018).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23%가 교육수준보다 낮은 쉬운 일이라고 응답하고, 7%만이 교육수준보다 높은 어려운 일이라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1,2,3기 캠프 출신 난민들도 25%~28% 수준으로 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결과가 역전되었음. 도시간민 출신인 4기~8기 난민들의 경우 말레이시아 등 상주국 도시에서 이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교육수준보다 낮고 쉬운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

<직장을 갖는데 방해요소>

3-7) 직장을 갖는데 방해요소는 무엇입니까?

[표 3-7] 취업의 방해요소

내용	계 (103)	1기 (12)	2기 (24)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8)	8기 (16)
1) 직업훈련참가	4	0	2	0	0	0	1	0	1
	4%	0%	8%	0%	0%	0%	11%	0%	6%
2) 아이양육	17	3	3	2	4	0	0	2	3
	16%	25%	13%	13%	25%	0%	0%	25%	19%
3) 자원봉사활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일자리가 없음	6	3	1	1	0	0	0	0	1
	6%	25%	4%	7%	0%	0%	0%	0%	6%
5) 건강문제	13	0	3	3	2	1	1	3	0
	12%	0%	13%	20%	13%	33%	11%	38%	0%
6) 나이	2	0	1	0	0	0	0	0	1
	2%	0%	4%	0%	0%	0%	0%	0%	6%

7) 학교공부	4	0	1	0	1	0	1	0	1
	4%	0%	4%	0%	6%	0%	11%	0%	6%
8) 언어	50	6	10	6	9	2	5	3	9
	49%	50%	42%	40%	56%	66%	56%	38%	56%
9) 기타	7	0	3	3	0	0	1	0	0
	7%	0%	13%	20%	0%	0%	11%	0%	0%

-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답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언어(49%)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이양육과(16%), 건강문제(12%)임. 모든 기수가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 ‘언어’가 가장 큰 방해요소라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구직과정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 선호하는 업종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한 구직의 실패 경험, 나아가 일하게 될 업무 현장 또한 ‘언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1-3기 조사 결과에서는 직장이 없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체 76.5%였으며, 아이양육을 취업의 방해요소로 답변하였음 (당시 조사에는 ‘언어’ 항목이 없었음)(이호택, 2018). 아이양육으로 취업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16%의 재정착난민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24%, 30대 65%, 40대 11%임. 이전 조사(이호택 외, 2019)에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재정착난민들의 경우 아이양육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전체 자녀가 있는 여성(총 40명)의 25% 만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건강문제가 취업의 방해요소라고 답변한 12%의 재정착난민들중 현재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은 85%로(11/13), 호흡기 질환, 두통, 흉통 등이 (표 6-7, 6-8 참고) 있음. 처음 국내 정착이 시작 된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병이나 심리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 그리고 초기 정착민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된 건강의 어려움 등을 통해 취업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음.(6. 건강 참고)
- 일자리가 없음에 대해 김포시 거주자들중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의견은 없으며 부평거주자들과 시흥거주자들에게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드러났으며 부평의 경우 1기 3명, 2기 1명, 3기 1명으로 그 빈도가 적지 않은데 그 의미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인지, 재정착난민들이 할만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함. 재정착난민의 정착지역선정시 일자리

의 질과 양, 특성 등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취업의 지연이나 실업의 지속 나아가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기타 답변으로는 임신, 면허조건, 이미 취업활동 중이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기 어려움 등이 있음.

<나의 소득과 가계소득>

3-8) 나와 가족의 월간 순 소득은 어느정도입니까?

(1) 나의 월 소득

[표 3-8-1] 개인의 월 소득

내용	계 (78)	1기 (7)	2기 (15)	3기 (10)	4기 (15)	5기 (3)	6기 (8)	7기 (7)	8기 (13)
1) 100만원 미만	15	0	4	4	3	0	1	2	1
	19%	0%	27%	40%	20%	0%	13%	29%	8%
2) 100만원 - 200만원	41	5	7	2	8	3	3	3	10
	53%	71%	47%	20%	53%	100%	37%	43%	77%
3) 200만원 - 300만원	21	1	4	4	4	0	4	2	2
	27%	14%	27%	40%	27%	0%	50%	29%	15%
4) 300만원 이상	1	1	0	0	0	0	0	0	0
	1%	14%	0%	0%	0%	0%	0%	0%	0%

- 재정착난민의 1인 월소득에 대한 설문에는 총 107명중 78명이 답변하였으며, 29명은 답변하지 않았음. (총 29명의 미응답자 중 28명은 현재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음(소득없음), 1명은 취업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
-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총 19%(15명)으로 3기가 40%(4명)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월 소득 100만원-200만원은 총 53%(41명)으로 5기 100%, 8기 77%, 1기 7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월 소득 200만원-300만원은 총 27%(21명)으로 6기 50%, 3기 40%, 7기 2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3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은 총 1%로 1기에 1명임.
- 2018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없는 34.2%를 포함하여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는 36.8%, 100만원-189만원이 44.7%, 190만원 이상이 18.4%임(이호택, 2018). 이번 조사에는 지난번 조사에 참여했던 1-3기 답변자의 개인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 (8/32)은 25%였으며, 100만원-200만원은(14/32) 44%, 200만원

-300만원(9/32) 28%, 300만원 이상은(1/32) 3%임. 가장 많은 수가 답변한 100-200만원 소득자는 2018년 44.7%, 2023년 44%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전체 기수로 비교해보았을 시에는 100-200만원 소득자는 53%로 지난번 조사에 비교했을 때 8.3% 상승함.

(2) 가족의 월 소득

[표 3-8-2] 가족의 월소득

내용	계 (102)	1기 (12)	2기 (25)	3기 (14)	4기 (16)	5기 (3)	6기 (8)	7기 (9)	8기 (15)
1) 100만원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만원 - 200만원	30	2	4	4	3	3	1	4	9
	29%	17%	16%	29%	19%	100%	13%	44%	60%
3) 200만원 - 300만원	40	3	6	6	10	0	4	5	6
	39%	25%	24%	43%	63%	0%	50%	56%	40%
4) 300만원 이상	32	7	15	4	3	0	3	0	0
	31%	58%	60%	29%	19%	0%	38%	0%	0%

- 재정착난민의 가족 월 소득에 대한 설문에는 총 107명중 102명이 답변하였으며, 5명은 답변하지 않았음.
- 가족소득 합산하여 100만원-2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이며, 200만원-300만원으로 답한 응답자는 39%, 300만원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는 31%, 100만원 미만으로 답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음. 300만원 이상으로 답한 수는 1,2기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족구성원 중 많은 수가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기존 경력이 더해지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100만원-200만원으로 답한 이들은 아직 한국 정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7-8기와, 외별이를 하고 있는 5기의 여성 난민들에게서 나타남.

3-9)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 만족합니까?

[표 3-9-1] 직장에 대한 만족도(전체 기수)

분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월급	5	23	32	3	5	20
근무시간	4	21	28	5	1	22

휴가 및 복지제도	3	24	27	4	2	24
동료와의 관계	9	21	28	2	1	35
상사와의 관계	10	16	33	1	1	33
회사까지 거리	4	11	36	8	1	9
본인의 능력	6	26	27	2	0	36
본인의 적성	7	23	27	4	0	33

(산출기준 : 빈도수 *분류 가중치(매우만족2, 만족 1, 보통 0,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5))

-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답변한 65명의 응답자 중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 표의 8가지 영역에서 대부분 ‘만족’ 또는 ‘보통’으로 답변했으며, ‘불만족’으로 답변한 영역 중 두드러지는 것은 ‘회사까지의 거리’로 나타남. ‘매우 불만족’ 답변을 한 영역은 ‘월급’과 ‘본인의 능력’ 영역으로 나타남.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각각 2,1,0,-1,-2의 가중치를 주어 빈도수와 곱한 합계로 만족도를 계산해 본다면, ‘본인의 능력 (36) > 동료와의 관계(35) > 상사와의 관계(33) = 본인의 적성(33) > 휴가 및 복지제도 (24) > 근무시간(22) > 월급(20) > 회사까지 거리(9)’의 순서로서, 본인의 능력이 가장 만족스럽고, 회사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임.
- 2018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이호택, 2018), 1-3기 재정착난민의 직장만족도는 ‘상사와의 관계 > 본인의 적성 > 근무시간 > 동료들과의 관계 > 휴가 및 복지제도 > 본인의 능력 > 월급 > 회사까지의 거리’ 순이었으며, 2023년 조사에서의 1-3기 재정착난민의 직장만족도는 ‘동료와의 관계 > 본인의 능력, 월급 > 근무시간 > 본인의 적성 > 상사와의 관계 > 휴가 및 복지제도 > 회사까지의 거리 순’으로 나타남.

[표 3-9-2] 직장에 대한 만족도(1-3기)

분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월급	3	14	8	1	0	19
근무시간	3	13	8	2	0	17
휴가 및 복지제도	2	12	8	2	2	10
동료와의 관계	5	13	7	1	0	22
상사와의 관계	5	7	12	1	1	14
회사까지 거리	2	7	11	5	0	6
본인의 능력	3	13	10	0	0	19
본인의 적성	3	10	12	1	0	15

- 이전에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영역인 ‘월급, 본인의 능력, 동료들과의 관계’ 등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점을 볼 때,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일하는 숙련도가 올라가 업무현장에서도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2018년 조사 시 만족도가 높았던 상사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답한 답변자가 2명으로, 실제로 대다수가 상사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됨. 1-3기의 정착을 돕고 있는 난민지원기관에서는 이전에 취업연계했던 업체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다니는 재정착난민들이 다수 있다고 언급하여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9-3] 직장에 대한 만족도(4-8기)

분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월급	2	9	24	2	5	1
근무시간	1	8	20	3	1	5
휴가 및 복지제도	1	12	19	2	0	12
동료와의 관계	4	8	21	1	1	13
상사와의 관계	5	9	21	0	0	19
회사까지 거리	2	4	25	3	1	3
본인의 능력	3	13	17	2	0	17
본인의 적성	4	13	15	3	0	18

- 이후로 입국한 기수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의 적성 > 본인의 능력 > 동료와의 관계 > 휴가 및 복지제도 > 근무시간 > 회사까지의 거리 > 월급 순으로 나타남. 4기부터는 말레이시아에서 상주하던 도시난민 출신으로 태국에서 온 캠프난민(1-3기)에 비해 다양한 사회경험 및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사실을 비추어볼 때, 월급 및 근무시간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이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환경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줌.
- 1-3기의 경우 취업률이 낮은 반면 가족 단위 소득수준이 높고 (표3-8 참고), 4-8기는 취업률은 높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것도 주어진 근무환경에서 월급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3기는 가구당 취업가능 인원이 많고, 4-8기는 1-3기와 비교했을 때 가구당 취업인원이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정착시작 후 1-3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급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난민이 1-3기에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볼 때 집단적인 월급에 대한 불만족이기 보다 개별적으로 자신이 노동한 것에 비해 월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음)

3-10) 현재 일하고 있지 않거나,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3-10]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복수응답)

분류	계 (48)	1기 (5)	2기 (12)	3기 (8)	4기 (5)	5기 (0)	6기 (2)	7기 (10)	8기 (6)
1) 월급 문제	1	0	0	1	0	0	0	0	0
	2%	0%	0%	13%	0%	0%	0%	0%	0%
2) 아이양육 문제	12	2	2	2	1	0	0	1	3
	25%	40%	17%	25%	20%	0%	0%	10%	50%
3) 거리 문제	2	0	0	0	1	0	0	1	0
	4%	0%	0%	0%	0%	0%	0%	10%	0%
4) 근로 시간 문제	2	0	0	0	0	0	0	1	1
	4%	0%	0%	0%	0%	0%	0%	10%	17%
5) 건강문제	17	1	6	3	1	0	1	5	0
	35%	20%	50%	38%	20%	0%	50%	50%	0%
6) 적성 문제	2	0	0	1	0	0	0	1	0
	4%	0%	0%	13%	0%	0%	0%	10%	0%
7) 능력 문제	1	0	0	0	0	0	0	1	0
	2%	0%	0%	0%	0%	0%	0%	10%	0%
8)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상사와의 관계 문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구직 중임	4	1	0	0	1	0	0	0	2
	8%	20%	0%	0%	20%	0%	0%	0%	33%
11) 학업 또는 취업 교육을 받고 있어서	4	1	2	0	0	0	1	0	0
	8%	20%	17%	0%	0%	0%	50%	0%	0%
12) 기타	3	0	2	0	1	0	0	0	0
	6%	0%	17%	0%	20%	0%	0%	0%	0%

- 미취업자 재정착난민들이 구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된다고 답변한 항목은 건강문제(35%)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이양육문제(25%)임. 기

타 답변으로는 임신 중, 쉬고 싶어서 등이 있음. 2018년도 조사 당시에는 아이양육문제가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나타났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난민 가정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건강문제를 구직의 어려움으로 답변한 난민들의 경우 2018년도 조사 당시에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의 건이 1가정 있었고(이호택, 2018), 현재는 호흡기 질병, 정형외과적 질병, 간염 보균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렵다고 답변한 난민들이 다수임.

-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관계’의 문제가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본인의 건강 또는 아이 양육 상황에 따라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11)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 3-11]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복수응답)

분류	계 (156)	1기 (14)	2기 (27)	3기 (18)	4기 (27)	5기 (9)	6기 (18)	7기 (18)	8기 (25)
1) 언어	68	9	11	10	11	3	7	6	13
	44%	64%	41%	56%	41%	33%	39%	33%	52%
2) 관계 어려움	29	1	5	2	9	2	3	4	3
	19%	7%	19%	11%	33%	22%	17%	22%	12%
3) 작업환경	17	1	5	5	1	1	2	1	1
	11%	7%	19%	28%	4%	11%	11%	6%	4%
4) 작업시간	11	0	2	0	2	2	2	2	2
	7%	0%	7%	0%	7%	22%	11%	11%	8%
5) 일 자체가 어려움	17	2	2	1	3	1	0	2	6
	11%	14%	7%	6%	11%	11%	0%	11%	24%
6) 기타	14	1	2	0	1	0	4	3	0
	9%	7%	7%	0%	4%	0%	22%	17%	0%

- 일하면서 갖는 어려움에서는 언어(44%), 관계의 어려움 (19%), 작업환경 및 일 자체의 어려움 (각 11%), 작업시간(7%) 순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답변한 ‘언어’는 2018년 1-3기 대상의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비율로 높았으며(이호택, 2018), 2023년 1-3기의 답변을 볼 때에도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언어의 비중이 다른 것에 비해 크게 나타남. 한국 생활이 5-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남. 2018년 조사 당시 1기는 가장

첫 재정착 사례였기에 선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들이 없었으나, 이후 들어온 기수들은 이전에 들어온 재정착난민들의 경험과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음. 이번 조사에서도 1기의 직장 내 애로사항으로 ‘언어에 대한 부담’(64%)은 여전히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위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두번째로 많은 답변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가 만족도에서 높았다고 답변한 [표 3-9-1]와 비교해 보면, 같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한국인 근로자’ 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대다수의 재정착난민들이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환경의 업무환경에 놓여있음을 감안할 때 소통이 불충분하거나, 업무 안에서 언어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 등, 충분히 파생될 수 있는 어려움이 직장내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4-8기가 정착하고 있는 난민지원기관에서는 현재 재정착난민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업무 강도가 무척 높으며, 실제로 언어의 사용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경험이 오래될 지라도 한국어가 빠른 속도로 늘지는 않는다고 언급함.
- 위 항목 외에도 일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문제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이 부담된다는 점, 외향적인 성향이 아닌데 회사에 적응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언급한 난민도 있었음.

3-12) 한국에서 일했던 회사는 어떤 직종의 회사입니까?

[표 3-12] 한국에서 일했던 이전 직종

분류	계 (96)	1기 (10)	2기 (21)	3기 (14)	4기 (14)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① 제조업(공장)	72	6	17	9	11	3	8	6	12
	75%	60%	81%	64%	79%	100%	88%	67%	75%
② 식당	2	0	1	0	1	0	0	0	0
	2%	0%	5%	0%	7%	0%	0%	0%	0%
③ 농업	1	1	0	0	0	0	0	0	0
	1%	10%	0%	0%	0%	0%	0%	0%	0%
④ 일용직	3	0	0	1	0	0	1	1	0
	3%	0%	0%	7%	0%	0%	12%	11%	0%
⑤ 사무직	2	2	0	0	0	0	0	0	0
	2%	20%	0%	0%	0%	0%	0%	0%	0%

⑥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⑦ 기타	3	0	2	0	1	0	0	0	0
	3%	0%	10%	0%	7%	0%	0%	0%	0%
⑧ 무직	13	1	1	4	1	0	0	2	4
	14%	10%	5%	29%	7%	0%	0%	22%	25%

- 전체(107명) 중 90%(96명)가 한국에서 일했던 직종에 답변함.
- 67%의 응답자가 제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식당(요식업) 종사 경험 2%, 농업 1%, 일용직 3%, 사무직 2%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기타 답변으로는 아파트 나무 관리 및 어린이집 조리사 경험이 있음.
-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재정착난민도 14%가 있음. 3기의 경우 29%, 8기의 경우 25%가 무직으로 답변하였음. 7기의 1명을 빼고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3-50대 였음. 빈도가 높은 3기의 경우 5가정 중 4가정의 아내들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음. 25%가 무직이라고 답한 8기의 경우 역시 2020년생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다니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음.
- 답변하지 않은 10%(11명) 중 2기(4명)의 경우 대다수 학생의 신분에서 졸업한지 얼마 안된 20대 초반임.
- 재정착난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 전 본국에서는 전체의 49%(52/106)가 농업에 종사했을 정도로 대부분 농촌 기반의 난민들이며, 상주국으로 이동 후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같은 농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25%(13/52)정도 임. 이중 38%가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20/52), 공장기반으로 일한 사람들도 17% 있었음. 그 외에 어릴 때부터 소일거리로 파트타임을 하거나, 상주국에서 직장을 아예 구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음.
- 상주국에서의 직업경험(표1-3) 등을 참고하여 볼 때 당시 새롭게 가능성을 찾아 식당, 사무직, 서비스직, 파트타임 등을 하거나 직업경험을 쌓았지만,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찾아 하긴 쉽지 않은 환경이고, 당시 상주국에서의 분위기 와도 많이 달라 같은 것을 하기 힘든 상황임, 이중 본국에서부터 계속 했던

농사를 짓고 싶다고 답변한 이들도 10% 정도 있어(표 3-15),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인 취업훈련 및 기회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됨.

3-13) 직장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구직방식)

[표 3-13] 구직방식(복수응답)

분류	계 (94)	1기 (11)	2기 (18)	3기 (12)	4기 (18)	5기 (3)	6기 (9)	7기 (9)	8기 (15)
1) 일자리센터 등 공공서비스 기관	34	3	9	3	3	3	3	0	10
	36%	27%	50%	17%	16%	100%	33%	0%	67%
2) 직업소개소	8	3	2	1	0	0	1	0	1
	8%	27%	11%	8%	0%	0%	11%	0%	7%
3) 지인	36	5	4	5	11	0	4	6	1
	38%	45%	22%	42%	61%	0%	45%	67%	7%
4) 신문	1	0	0	0	1	0	0	0	0
	1%	0%	0%	0%	6%	0%	0%	0%	0%
5) 인터넷	4	0	1	1	1	0	1	0	0
	4%	0%	6%	6%	6%	0%	11%	0%	0%
6) 시민단체 또는 종교기관	7	0	2	2	1	0	0	0	2
	7%	0%	11%	11%	6%	0%	0%	0%	13%
7) 기타	4	0	0	0	1	0	0	2	1
	4%	0%	0%	0%	6%	0%	0%	33%	7%

-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1위는 지인을 통해 구한다는 답변이 38%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센터 및 공공서비스 기관 (36%), 직업소개소 (8%), 시민-종교단체(7%),인터넷(4%) 순서로 답변했음. 기타 답변으로는 구직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가 3% 있음.
- 재정착난민의 경우 1차적으로는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연계해주는 일자리로 연결되나, 경험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구직을 하게 되는데, 같은 국가 출신에 언어가 통하는 지인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5기의 3명 모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소개로 취업된 첫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이처럼 일자리 센터 등 공공서비스 기관 중 4기, 5기, 8기의 경우는 대다수가 2023년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연결해주었던 일자리를 현재까지 다니고 있어, 67%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추정해볼 수 있음.

3-14) 본국에서는 어떤 직종에 종사했습니까?

[표 3-14] 본국에서의 직종

분류	계 (106)	1기 (11)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제조업 (공장)	9	1	2	2	2	0	0	0	2
	8%	9%	8%	13%	13%	0%	0%	0%	12%
2) 식당	3	0	0	0	2	0	1	0	0
	3%	0%	0%	0%	13%	0%	11%	0%	0%
3) 농업	52	5	8	6	9	3	5	6	10
	49%	45%	32%	38%	56%	100%	56%	67%	59%
4) 일용직	5	1	0	0	0	0	1	1	2
	5%	9%	0%	0%	0%	0%	11%	11%	12%
5) 사무직	3	0	3	0	0	0	0	0	0
	3%	0%	12%	0%	0%	0%	0%	0%	0%
6) 서비스업	3	0	1	2	0	0	0	0	0
	3%	0%	4%	13%	0%	0%	0%	0%	0%
7) 기타	17	3	4	4	2	0	2	1	1
	16%	27%	16%	25%	13%	0%	22%	11%	6%
8) 무직	10	1	7	2	1	0	0	1	2
	9%	9%	28%	13%	6%	0%	0%	11%	12%

- 본국에서 종사했던 직종으로 농업 49%, 제조업 8%, 일용직 5% 순으로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모든 기수가 농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음. 상주국과는 차이가 드러나는데 1기, 2기, 3기의 경우 각 42%, 38%, 25%로 상주국인 메솅에서 농업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4기-8기의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의 경우 상주국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이는 8기 1명외에 없었으며 대다수가 요식업이나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는 캄프난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여 노동시장의 진입 자격을 얻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점,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일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지만 도시에서 인력수요가 높고 다양한 일자리로 진입하여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중 기타 16%, 무직 9%인데, 1-4기의 경우(정착기준 2018년)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기타(학생), 무직으로 답변했음을 알 수 있고, 미성년이 아닌 경우 무직이라 답변한 이는 4명이었으며, 기타 답변으로 교사, 가사도우미, 오토바이 수리공, IT 비즈니스, 건설업 등의 답변이 있었음.

3-15) 아무 제약이 없다면 어느 직종의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표 3-15-1] 직업선호도 (기수별)

분류	계 (103)	1기 (11)	2기 (22)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제조업 (공장)	42	2	9	5	10	3	5	2	7
	41%	18%	41%	31%	63%	100%	56%	22%	41%
2) 식당	16	3	2	3	1	0	1	3	4
	16%	27%	9%	19%	6%	0%	11%	33%	24%
3) 농업	13	3	4	4	1	0	0	0	1
	13%	27%	18%	25%	6%	0%	0%	0%	6%
4) 일용직	2	1	1	0	0	0	0	0	0
	2%	9%	5%	0%	0%	0%	0%	0%	0%
5) 사무직	8	0	2	1	0	0	3	0	1
	8%	0%	9%	6%	0%	0%	33%	0%	6%
6) 서비스업	5	1	1	1	2	0	0	0	2
	5%	9%	5%	6%	13%	0%	0%	0%	12%
7) 기타	12	1	3	2	2	0	0	4	2
	12%	9%	14%	13%	13%	0%	0%	45%	12%

- 아무런 제약 (언어, 시간, 환경) 등의 제약이 없다면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싶은 지에 대해 제조업 39%, 식당 15%, 농업 12% 순으로 나타남. 본국과 상주국에서 농업종사 비율이 높았던 1기, 2기, 3기의 경우 상주국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농업에 대한 지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기-8기도 본국에서는 농업종사경험이 많았지만 한국에서 제약이 없는 기회가 된다면 농업지향을 드러낸 이들은 없었고 8기에서만 1명만이 상주국에서 1명이 농업에 종사했던 동일한 비율로 농업 지향을 드러냄. 이는 이미 제조업의 장점과 한국사회에서의 가장 적합한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추후 인구소멸지역과 재정착 난민제도의 연계를 고려하게 된다면 이러한 농업지향을 고려한 난민들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만함.
- 기타 직종으로는 봉사(1), 제빵사(1), 간호조무사(1), 통역(1), 자영업(2), 헤어디자이너(1), 건설업(1), 공인중개사(1), 특별히 하고싶은 것이 없다는 답변도(2) 있었음.

[표 3-15-2] 직업선호도 (연령대 별)

분류	계 (103)	20대 (32)	30대 (37)	40대 (24)	50대 이상 (10)
1) 제조업 (공장)	42	8	20	10	4
	41%	25%	54%	42%	40%
2) 식당	16	7	8	2	0
	16%	22%	22%	8%	0%
3) 농업	13	4	2	5	2
	13%	13%	5%	21%	20%
4) 일용직	2	0	0	0	2
	2%	0%	0%	0%	20%
5) 사무직	8	4	2	0	1
	8%	13%	5%	0%	10%
6) 서비스업	5	2	1	3	0
	5%	6%	3%	13%	0%
7) 기타	12	5	3	4	1
	12%	16%	8%	17%	10%

- 제조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룹은 30대 재정착난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연령 별로 제조업을 희망적군으로 답변한 것은 다음과 같음. 20대 25%, 30대 54%, 40대 42%, 5-60대 40%임.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된 이유에는 일한 시간과 비용예측이 가능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재정의 안정을 이루어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장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 한국인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고 말레이시아와 달리 사업주들의 통제 등 서비스업계의 사업주와 직원간 관계가 다소 권위적이며, 종업원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제한 혹은 팁문화의 부재 등이 서비스업 진출의 장애 요인들로 드러남. 또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서비스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에 대해 한국어 기반 비즈니스 문화, 자격증 요구 문화, 과도한 고객 중심 문화(요구도가 높은 소비자)로 설명하는 의견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한국인보다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실 등에 취업한 이들이 생겨나고 있음.

- 농업의 경우, 13%가 희망직종으로 답변하였는데, 특별히 1-3기의 캠프난민들의 선호도가 높음. [표 3-12] 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에서 농업에 종사해본 경험이 있는 재정착난민은 1기의 1명 밖에 없음. 본국에서의 직업경험[표 3-14]에서 농업 경력자는 49%이지만 현재 답변자의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눈 여겨 볼 부분임.
- 20대의 희망직종은 제조업(8/31), 식당 (7/31), 농업(4/31), 사무직(4/31), 서비스직(3/31), 제빵사, 통역, 공인중개사, 헤어 디자이너 등 훨씬 다양하게 나타났음. 이 중 20대 초반에 속하는 16인을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연령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31%가 제조업을 희망직군으로 뽑았으며(모두 2,3기), 레스토랑(25%), 농업(6%), 사무직(19%), 서비스업(6%), 기타(제빵, 간호조무사)로 나타났음.
- 미얀마 재정착난민들을 돕고 있는 한 활동가의 인터뷰에서 ‘카렌’ 재정착난민 20대가 공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음⁹⁾. 20대 중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성년으로 정착을 시작한 ‘자녀그룹’의 경우 그들의 ‘희망직종’과 달리 현실에서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고등교육’의 진입이 어렵고, 이들의 진로탐색과 함께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6년 조사 당시 재정착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자녀교육’이고, 소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자녀교육’이라고 하였음(이호택, 2018). 이를 비추어 볼 때 미성년일 때 한국에 들어와 교육을 받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와 동일하게 ‘제조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다양한 교육 기회와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고급교육 진입의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임. 지원기관에 따르면 김포시의 난민자녀들 역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제조업으로 진입하거나 대학진학에 성공하였지만 학업의 어려움과 생활비의 부족으로 제조업에 취업하는 이들이 있는 실정이라고 함. 이에 중도에 학업의 어려움이나 생활비의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언어교육의 강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한국 좋지만 한국서 살기 어렵네요” 재정착난민 1호 카렌족의 최대 장벽 (조선일보, 권아현 2023.10.29)

소 결

- 재정착난민의 취업 영역은 법적으로는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단순노무(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 짐. 난민의 출신국 또는 상주국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미비하며, ‘안정적인 정착’에 목적을 두고 생계활동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므로 이주자로서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제조업’에 인적자원이 집중되고 있음.
- 재정착난민들이 잘 정착했는지에 대한 요건 중 취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에 이들의 역량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정착,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재정착 초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거주 기간 동안 상주국(또는 본국)에서의 직업경험을 파악하고, 관련 직업 매칭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 이지 못했는데, 첫번째 이유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직접 취업연계 가능한 업체군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됨.(일본의 경우 6개월 관리, 6개월 진로탐색) - 실제 사례관리 및 취업교육을 담당했던 난민지원단체는 재정착난민들의 직업 선호도 파악과 함께 취업 멘토링을 시행했으나, 농업, 미용업(네일아트, 헤어 디자이너), 세무사, 그래픽 디자인, 호텔조리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희망 직종 연계는 1차 연계 당시 진행할 수 없었음.
- 1차 연계는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언급하였던 미국 덴버지역의 RISE 조사 지표를(이호택, 2018) 통해 드러난 것처럼, ‘First job Any job’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착 후 3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을 찾아가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음. 다만, 3년 후에도 한국의 외국인 고용환경의 열악한 상황 (한국어 중심의 언어소통, 자격인정, 전문인 인증)이 재정착난민들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에 높은 벽으로 인식될 수 있음. 미국 덴버지역의 경우 같은 단순노무직이라도 급여가 큰 편이며 다음 직업으로의 전환이 한국 보다 쉬울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난민들이 다른 직업군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첫 직장에서 기술을 배워 나중에 자신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 때문에 ‘First Job Eternal Job’이 되지 않도록 해외 재정착의 사례(최유, 2014)와 같이 센터 퇴소 후에도 ‘정착 후 지원 프로그램’ 및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취업 모니터링과, 고용촉진 사업 등을 진행하여 보다 나은 취업환경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취업현장에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재정착난민들의 경우 재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큰 부담으로 드러났던 ‘언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4. 교육 훈련

4-1) 직업과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표 4-1] 면허 및 자격증 취득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12	1	6	2	0	0	2	0	1
	11%	8%	24%	13%	0%	0%	22%	0%	6%
아니오	94	11	19	13	16	3	7	9	16
	89%	92%	76%	87%	100%	100%	78%	100%	94%

- 직업과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1%(12명),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은 89%(94명)임. 2기(6명)가 가장 많은 면허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자격증 소유 답변자들은 모두 20대였으며, 1-3기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일 때 입국하여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면허 및 자격증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4-2)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표 4-2] 교육 및 훈련 경험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21	3	6	2	4	0	4	0	2
	20%	25%	25%	12%	25%	0%	44%	0%	12%
아니오	85	9	18	14	12	3	5	9	15
	80%	75%	75%	88%	75%	100%	56%	100%	88%

-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20%가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아니오’라고 답변한 이들은 79%로 대다수가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이 없었음.
- 지난 2018년도 1-3기 재정착난민 실태조사 당시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도가 5.6%로 한 두 명 정도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호텔관리사, 운전면허 교육에 참여했으나, 이 역시 미국 덴버지역 RISE 지표의 27.3%에 비해 한참 못 미친 결과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정착 후 3년 기준), 2023년 조사 교육 및 훈련 경험에 지난번 조사대상 1-3기가 21%, 3기-8기가 19%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음.(이호택, 2018). 정착기간이 오래되면서 발견된 기회나, 자녀세대의 재정착난민의 경우 학교 안에서 교육되어지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기 이후의 기수부터는 편차가 보이는데, 5기와 7기는 교육 및 훈련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여, 각 정착 기수가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3) 한국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표 4-3] 한국어 수업 경험 유무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96	11	23	15	14	3	9	7	14
	90%	92%	92%	94%	88%	100%	100%	78%	82%
아니오	11	1	2	1	2	0	0	2	3
	10%	8%	8%	6%	12%	0%	0%	22%	18%

- 한국 적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어 수업의 경험여부에는 90%가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10%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비율로 보았을 때는 7기의 한국어 수업 경험율이 78%로 가장 낮았으며, 난민들의 참여율이 100%로 가장 높은 기수는 5, 6기였음. 재정착난민들은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한국어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과정임. 퇴소 후 지역에 흩어진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는, 73%가 건강상의 문제(질병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아이 양육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이도 있었음.

4-4) 기타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표 4-4] 한국어 수업 외 교육 훈련 경험 여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27	7	4	5	5	0	4	0	2
	25%	58%	16%	31%	31%	0%	44%	0%	12%
아니오	80	5	21	11	11	3	5	9	15
	75%	42%	84%	69%	69%	100%	56%	100%	88%

-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제외한 다른 교육훈련들의 경험여부로 전체 참여자의 25%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경험이 없다고 답변은 75%임.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많았던 기수는 1기 뿐이었으며, 5기와 7기의 경우는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음.
- 2018 조사 당시 기타 교육 및 훈련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었는데, 캐나다 랭글리 지역의 카렌 재정착난민 기타 교육 참여비율 43%를 참고로 하여 재정착난민들의 기타 교육지원에 대한 제언을 하였음(2018, 이호택). 전체 기수의 25%가 유경험자로 답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편차가 있어 재정착난민들이 정착 시기에 맞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활용 등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4-5) 학위과정에 등록한 것이 있습니까?

[표 4-5-1] 학위과정 경험 여부

내용	계 (105)	1기 (12)	2기 (24)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없음	86	10	15	12	15	3	7	7	17
	82%	83%	63%	80%	94%	100%	78%	78%	100%
2) 고등학교 과정	15	1	7	3	1	0	1	2	0
	14%	8%	29%	20%	6%	0%	11%	22%	0%
3) 전문대	2	1	1	0	0	0	0	0	0
	1%	8%	4%	0%	0%	0%	0%	0%	0%
4) 대학교	2	0	1	0	0	0	1	0	0
	1%	0%	4%	0%	0%	0%	11%	0%	0%
5) 대학원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학위과정에 대한 등록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86%, 고등학교 과정까지 진행했다는 응답자는 14%, 전문대1%, 대학교 1%임. 실제 전문대 및 대학교 과정을 이수한 이는 1기와 2기로 정착이 오래된 기수에서 소수로 드러났고, 대다수는 고등학교 진학과정까지 일부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 입국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정착난민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포기 혹은 대학 진학 중 학비나 학업의 어려움으로 휴학을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이에 난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함.

[표 4-5-2] 학위과정 경험 여부-연령별 분포

내용	계 (105)	20대 (32)	30대 (42)	40대 (25)	5-60대 (11)
1) 없음	86	17	34	25	10
	82%	53%	81%	100%	91%
2) 고등학교과정	15	12	3	0	0
	14%	38%	7%	0%	0%
3) 전문대	2	2	0	0	0
	1%	6%	0%	0%	0%
4) 대학교	2	1	0	0	1
	1%	3%	0%	0%	9%
5) 대학원 이상	0	0	0	0	0
	0%	0%	0%	0%	0%

- 고등과정 이수자의 경우 20대가 80%정도이며, 30대가 20%임. 전문대의 경우는 20대가 100%, 대학교(학사) 이수의 경우는 20대 50%, 5-60대 50%임. 위의 학위과정을 등록한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입국하여 성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음.

4-6) 교육훈련 분야 중 수강하고 싶은 수업은 무엇입니까?

[표 4-6] 교육훈련 관심분야 (복수응답)

항목	계 (225)	1기 (31)	2기 (51)	3기 (24)	4기 (43)	5기 (5)	6기 (14)	7기 (22)	8기 (35)
1) 한국어	64	5	16	8	10	2	3	6	14
	29%	16%	31%	33%	23%	40%	21%	27%	40%
2) 자동차 (운전, 정비 등)	48	6	9	5	13	0	3	2	10
	22%	19%	18%	21%	30%	0%	21%	9%	29%

3) 농업	5	1	1	2	1	0	0	0	0
	2%	3%	2%	8%	2%	0%	0%	0%	0%
4) 컴퓨터	21	5	5	2	1	1	4	1	2
	9%	16%	10%	8%	2%	20%	29%	5%	6%
5) 외국어	16	2	2	1	5	0	2	1	3
	7%	6%	4%	4%	12%	0%	14%	5%	9%
6) 한국사회 및 문화 이해	17	4	4	0	4	1	0	3	1
	8%	13%	8%	0%	9%	20%	0%	14%	3%
7) 취업 및 직장 윤리	13	2	5	1	2	0	1	1	1
	6%	6%	10%	4%	5%	0%	7%	5%	3%
8) 건강 및 위생	14	2	4	1	3	1	1	1	1
	6%	6%	8%	4%	7%	20%	7%	5%	3%
9) 한국의 아동 교육 시스템	15	3	3	1	3	0	0	4	3
	7%	10%	6%	4%	7%	0%	0%	18%	9%
10) 기타	10	1	2	3	1	0	0	3	0
	4%	3%	4%	13%	2%	0%	0%	14%	0%

- 교육 훈련 분야 중 수강하고 싶은 수업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한국어’로 29%가 응답하였으며, 자동차, 운전 정비 등을 교육받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22%임. 그 외에는 ‘컴퓨터’ 9%,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8%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도 구체적인 교육의 필요나 관심을 가진 답변으로 한국 요리, 에어컨 수리 기술, 비즈니스 및 부동산에 대한 지식, 아동양육 등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고 답변함. 운전면허나 컴퓨터의 경우 취업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실용성이 높아 재정착난민들의 언어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할지역에 구비해 놓는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소 결

- 전반적으로 재정착난민들의 교육 및 훈련 경험도는 높지 않음. 직업에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이 대다수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표 4-1]의 결과처럼 바로 생계를 위한 직업전선에 뛰어든 난민들보다는 난민 자녀들이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 수료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음. 또한 현재 재정착난민들의 대다수가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시간을

내어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정착이 질적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격증 취득 시험이나 교육이 다양한 언어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은 특별히 더욱 중요성이 재정착난민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그들이 시험을 보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하나로 응시를 하게 됨. 2018년 8월 이전까지는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로 응시가 가능했었으나, 이후로는 위 3개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의 시험이 폐지되었음. 재정착난민들이 원하는 직업들이 ‘운전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군도 많은 데다가, 실생활에서 직장에서의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이들의 의견([표 3-9-1] 직장에 대한 만족도 참고), 그리고 이들의 보다 더 질적으로 나아진 삶을 위해 운전면허 자격증에 대한 언어군의 확대는 다시 필요하다고 여겨짐.

- 자신이 익힌 기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자격, 그리고 첫 번째 직업이 아닌 미래 직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정보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예: 내일배움카드) 또한 대다수의 난민들이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훈련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지는 향후 정부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및 재정착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개발해야 하는 과제임.
- 학업이수에 관련하여서는, 재정착난민이 난민인정자로서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어 다른 난민들에 비하여 고등교육의 진입이 어렵지 않다고 하나, 실제 이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나, 본인이 이전에 하지 못한 공부를 한국에서 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음. 난민법으로 허용된 것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비용문제, 언어문제 등, 현실적인 삶의 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단순히 이들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넘어 이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지점까지 고려해보아야 함. 난민인정자들에게 ‘학자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전에 재정착난민 및 협약난민의 자녀들이 대학진학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2018년부터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 및 난민지원기관에서 외국인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법무부의 적극적인 모색에도 교육부 소관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재정착난민들의 자녀

들이 성장하고 있고 기존 난민인정자들 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 역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음. 학자금 대출 역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함. 2020년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경우도 (재정착난민과 준하는 처우) 비슷한 상황임.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학자금 대출 대상을 국민에서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난민들이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함.

- 재정착난민의 경우 ‘단기 수용’이 아닌 한국에서 삶을 수십년간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 때문에 이들이 입국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First Job, Any Job’으로 시작하지만, 역량이 개발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는 이들이 개발된 것을 가지고 다른 가능성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의 기회임. 난민지원기관들은 그동안 개별 난민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나 취업상담, 본인의 관심과 강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실제 취업 및 자기 개발로 연결되는 결과가 미비하였음. 다양한 교육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 난민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의 한 난민지원기관에서는 취업훈련을 원하는 탈북정착민들이 기업에서 실습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하였고, 이를 통해 정착민들이 인턴과 같이 취업현장에서 교육받고 실무에 잘 적응 및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음. 이와 같은 사례처럼, 재정착난민이 정착과 취업에 대한 교육이 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 및 예산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 다른 난민지원기관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24세 이하인 후기 청소년들이 지역의 청년재단, 청소년 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재정착난민의 실상은 언어문제로 인해 쉽지 않음. 성인의 경우는 첫 정착교육 단계에서 머무르게 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체와 인턴쉽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진로 사회시스템이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움. 대한민국 국민의 처우에 준하는 바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들이 국민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이나 관련한 지자체 프로그램 등 대다수가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언어적 접근이 어려워 실 사용이 어려움.

- 재정착난민의 정착을 생각했을 때, 개인의 임시 정착이 아닌 정주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따라서 재정착난민 그룹의 연령별 보호 및 정착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재정착난민들의 대다수는 협약 난민신청자와 달리 개인이 아닌 가족단위로 정착이 진행되고 있어 적응과 정착 및 자립이 훨씬 오래 걸림. 협약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주로 개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후에 가족결합을 통해 가족을 초청하고 함께 살지만, 재정착난민은 처음 입국부터 가족들과 함께 정착생활을 시작함. 이것은 이들이 가족들을 돌보며 실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울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자기계발에 대한 것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함. 재정착 2세대인 자녀그룹의 경우 부모와 달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기회가 있다면 부모세대와 달리 사회통합을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자녀그룹의 성장속도에 비해 사회의 개선 속도는 느린 편이어서, 교육과 같이 적시성이 요구되어지는 정책들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될 것임.

5. 아동 교육

5-1)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습니까?

[표 5-1] 미성년 자녀 양육경험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75	9	15	10	12	3	5	8	13
	70%	75%	60%	63%	75%	100%	56%	89%	76%
아니오	32	3	10	6	4	0	4	1	4
	30%	25%	40%	37%	25%	0%	44%	11%	24%

- 1-8기 재정착난민 중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전 경험이 있는 답변자는 총 75명으로 70%임. 이중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에는 처음 한국에 왔을 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성인이 된 답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5-2)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표 5-2] 자녀의 취학여부

	계 (71)	1기 (9)	2기 (15)	3기 (10)	4기 (11)	5기 (3)	6기 (5)	7기 (8)	8기 (10)
예	63	9	10	10	10	3	5	8	8
	89%	100%	67%	100%	91%	100%	100%	100%	80%
아니오	8	0	5	0	1	0	0	0	2
	11%	0%	33%	0%	9%	0%	0%	0%	20%

- 이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난민 아동의 양육자는 63명으로 전체의 75%임. 1기, 3기, 5기, 6기, 7기는 모두가 현재도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는 11%임.

5-3)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표 5-3] 자녀의 학습을 위한 교사 면담경험여부

	계 (51)	1기 (9)	2기 (10)	3기 (10)	4기 (7)	5기 (3)	6기 (2)	7기 (6)	8기 (4)
예	23	4	1	2	3	1	2	6	4
	45%	44%	10%	20%	43%	33%	100%	100%	100%
아니오	28	5	9	8	4	2	0	0	0
	55%	56%	90%	80%	57%	67%	0%	0%	0%

-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변한 총 63명 중 교사와 면담경험 여부에 답변한 이들은 총 51명이며, 12명은 답변하지 않음.
- 현재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재정착난민 51명 중 자녀의 학습에 대해 교사와 면담했다고 답한 사람은 45%인 23명이며, 6기부터 8기까지는 전원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1기는 절반 정도인 44%, 2기 10%, 3기 20%로 선생님과 면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수가 적었음.
- 2018년 재정착실태조사시, 미국의 경우 덴버지역 RISE 조사 결과에서 교사면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9.1%에서 82.8%까지 눈에 띄는 참여의 증가 추이가 관찰되었음(이호택, 2018). 한국의 1,2,3기 재정착난민의 경우 1기는 37.5%에서 44%로 증가하였으나, 2기는 30%에서 10%로, 3기는 40%에서 20%로 감소하여, 자녀교육참여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재정착난민들 중 교육 및 훈련부분에 관심이 높았던 7,8기와 6기의 교사면담 경험의 비율이 높는데,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에 6,7기는 자녀들의 대다수가 초등학교 이상, 8기는 미취학 아동도 많은 관계로 비교적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이 많은 앞 기수에 비해 선생님과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5-4)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 5-4] 학부모의 학교 봉사활동 참여 여부

	계 (51)	1기 (9)	2기 (10)	3기 (10)	4기 (7)	5기 (3)	6기 (2)	7기 (6)	8기 (4)
예	2	0	0	0	1	0	1	0	0
	4%	0%	0%	0%	14%	0%	50%	0%	0%
아니오	49	9	10	10	6	3	1	6	4
	96%	100%	100%	100%	86%	100%	50%	100%	100%

-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변한 총 63명 중 학내 학부모 봉사활동 여부에 답변한 이들은 총 51명이며, 12명은 답변하지 않음.
- 답변자 51명 중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부모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4%로, 4기 1명, 6기 1명으로 총 2명임. 96%는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5-5) 학교 안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표 5-5] 학교 내 행사참여 경험 여부

	계 (51)	1기 (9)	2기 (10)	3기 (10)	4기 (7)	5기 (3)	6기 (2)	7기 (6)	8기 (4)
예	6	1	0	0	0	0	1	4	0
	12%	11%	0%	0%	0%	0%	50%	67%	0%
아니오	45	8	10	10	7	3	1	2	4
	88%	89%	100%	100%	100%	100%	50%	33%	100%

-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변한 총 63명 중 학내 행사 참여 여부에 답변한 이들은 총 51명이며, 12명은 답변하지 않음.
- 자녀의 학교 내 행사 참여를 한 경우는 12%, 해본적이 없는 경우는 88%임. 6기의 경우 1명이 참여했고, 7기에서는 자녀의 학교내 행사를 참여해보았다고 답변한 이들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평의 카렌족과 김포시의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의 차이가 드러나며 김포시 거주 난민들의 참여율이 학교의 선생님 면담, 자원봉사, 행사참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5-6) 학교 밖의 행사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표 5-6] 학교 외 행사참여 경험 여부

	계 (51)	1기 (9)	2기 (10)	3기 (10)	4기 (7)	5기 (3)	6기 (2)	7기 (6)	8기 (4)
예	10	1	5	1	0	0	1	2	0
	20%	11%	50%	10%	0%	0%	50%	33%	0%
아니오	41	8	5	9	7	3	1	4	4
	80%	89%	50%	90%	100%	100%	50%	67%	100%

-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변한 총 63명 중 학교 밖 행사 참여 여부에 답변한 이들은 총 51명이며, 12명은 답변하지 않음.
- 자녀의 학교 밖 행사 참여 역시 20%로, 80%는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 학내봉사와 학내행사 및 학외행사에서 모두 정착기간이 오래된 1,2,3기가 4기 이하의 이후 기수보다 참여면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 어려움.
- 1,2,3기에 대한 2018년 조사 결과(2018, 이호택)와 비교할 때 봉사활동참여는 0%에서 0%로, 학내행사참여는 25%에서 4%(1/26)로, 학외행사는 57.1%에서 27%(7/26)로 모두 감소하였음.
- 위 결과로 볼 수 있는 점은, 부모가 참여하는 행사가 해당 가정들의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것, 그리고 자녀의 행사를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5-7) 아이가 학교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표 5-7] 자녀의 한국인 친구 여부

	계 (51)	1기 (9)	2기 (10)	3기 (10)	4기 (7)	5기 (3)	6기 (2)	7기 (6)	8기 (4)
예	48	8	10	9	7	3	1	6	4
	94%	89%	100%	90%	100%	100%	50%	100%	100%
아니오	3	1	0	1	0	0	1	0	0
	6%	11%	0%	10%	0%	0%	50%	0%	0%

-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답변한 총 63명 중 자녀의 한국인 친구 여부에 답변한 이들은 총 51명이며, 12명은 답변하지 않음.
- 자녀에게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이상 있다고 94% 답변함. 한국인 친구가 없다고 답변한 이는 1기에 1명, 3기에 1명, 6기에 1명으로 전체의 6%임. 대부분 자녀에게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2018년 조사 당시 1-3기의 모든 부모들은 100%가 자녀에게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호택, 2018), 6% 하락한 수치로 94%의 자녀가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답변함. 전체적으로는 자녀들이 한국생활에 무난하게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8) 자녀의 학교생활

[표 5-8] 자녀의 학교생활

질문	답변	계 (49)	1기 (8)	2기 (10)	3기 (10)	4기 (7)	5기 (3)	6기 (2)	7기 (6)	8기 (3)
1) 코로나19 외의 사유로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예	37	7	8	7	7	3	1	4	0
		76%	88%	80%	70%	100%	100%	50%	67%	0%
	아니오	12	1	2	3	0	0	1	2	3
		24%	12%	20%	30%	0%	0%	50%	33%	100%
2) 학교에서 선생님과 의 관계가 좋습니까?	예	41	8	6	8	7	3	2	4	3
		84%	100%	60%	80%	100%	100%	100%	67%	100%
	아니오	6	0	2	2	0	0	0	2	0
		12%	0%	40%	20%	0%	0%	0%	33%	0%
3) 학교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30	6	5	5	4	1	2	4	3
		61%	75%	50%	50%	57%	33%	100%	67%	100%
	아니오	19	2	5	5	3	2	0	2	0
		39%	25%	50%	50%	43%	67%	0%	33%	0%
4) 학교 입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22	4	6	6	1	0	1	2	2
		45%	50%	60%	60%	14%	0%	50%	33%	67%
	아니오	27	4	4	4	6	3	1	4	1
		55%	50%	40%	40%	86%	100%	50%	67%	33%
5) 아침에 지각을 하는 편입니까?	예	9	3	0	5	1	0	0	0	0
		18%	38%	0%	50%	14%	0%	0%	0%	0%
	아니오	40	5	10	5	6	3	2	6	3
		82%	62%	100%	50%	86%	100%	100%	100%	100%
6) 친구들과 다투거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던 적이 있습니까?	예	11	3	3	4	1	0	0	0	0
		22%	38%	30%	40%	14%	0%	0%	0%	0%
	아니오	38	5	7	6	6	3	2	6	3
		78%	62%	70%	60%	86%	100%	100%	100%	100%

7)아동이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참여하는 방과 후 활동이 있습니까?	예	36	7	6	8	6	1	1	4	3
		73%	88%	60%	80%	86%	33%	50%	67%	100%
	아니오	13	1	4	2	1	2	1	2	0
		27%	13%	40%	20%	14%	67%	50%	33%	0%
8)학교 급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41	8	7	8	6	1	2	6	3
		84%	100%	70%	80%	86%	33%	100%	100%	100%
	아니오	8	0	3	2	1	2	0	0	0
		16%	0%	30%	20%	14%	67%	0%	0%	0%
9)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까?	예	45	7	7	10	7	3	2	6	3
		92%	88%	70%	100%	100%	100%	100%	100%	100%
	아니오	4	1	3	0	0	0	0	0	0
		8%	12%	30%	0%	0%	0%	0%	0%	0%
10)건강검진을 매년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44	8	7	9	6	3	2	6	3
		90%	100%	70%	90%	86%	100%	100%	100%	100%
	아니오	5	0	3	1	1	0	0	0	0
		10%	0%	30%	10%	14%	0%	0%	0%	0%
11)아동이 수준에 맞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38	7	8	7	4	1	2	6	3
		78%	88%	80%	70%	57%	33%	100%	100%	100%
	아니오	11	1	2	3	3	2	0	0	0
		22%	12%	20%	30%	43%	67%	0%	0%	0%
12)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문제없이 진학할 수 있습니까?	예	32	6	4	7	6	2	2	2	3
		65%	75%	40%	70%	86%	67%	100%	33%	100%
	아니오	17	2	6	3	1	1	0	4	0
		35%	25%	60%	30%	14%	33%	0%	67%	0%
13)현재 아동이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25	4	6	6	5	1	1	2	0
		51%	50%	60%	60%	71%	33%	50%	33%	0%
	아니오	22	4	4	4	2	2	1	4	3
		45%	50%	40%	40%	29%	67%	50%	67%	100%

- 재정착난민 자녀그룹의 코로나19시기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수업 결석여부는 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84%가 좋은 편이라고 답변하였음. 기수마다 차이가 있으며 2, 3, 7기의 경우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 각각 40%, 20%, 33%로 답변했음. 아침에 지각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2%가 지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자녀들이 친구들과 다투거나 학교 적응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2%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 78%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였음

- 수업이해도에 대한 부분은 61%만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2-4기는 50%대의 수치로 절반만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5기와 8기의 경우는 100%가 이해한다고 답변하였음. 학교 입학과정에 대하여서는 45%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하였고, 55%는 어렵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연관된 질문으로 자녀가 수준에 맞게 교육한다고 답변한 이는 78%로, 6,7,8기는 100% 수준에 맞게 교육한다고 답변하였고, 4기와 5기는 각각 57%, 33%로 낮은 비율을 보였음.
- 정착을 시작한지 오래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어린 영유아기에 입국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진학을 한 경우 국내 학교 교육 적응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중도 입학한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난민의 경우에는 잘 기획된 이주가 불가능하고 국내실향민(IDP), 인접국이나 역외국으로의 예기치 못한 급박한 피난 등을 거쳐 상주국에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출신국에서나 해외에서 공교육경험이 충분하지 않기에 한국내 학교교육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임. 학습 경험 뿐 아니라 한국어능력 역시 가장 큰 변수인데 위 표에서 자녀가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여부에는 51%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4기가 71%로 다른 기수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5%이며, 가장 최근에 들어온 8기가 100%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음.
- 자녀가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난민은 73%, 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27%였으며,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은 만족한다가 84%로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자녀가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가정은 73%, 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27%였으며,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은 만족한다가 84%로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정착 지역사회의 돌봄과 교육지원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김포시나 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거버넌스의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시흥시는 수업이 끝나면 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군서미래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이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실행되고 있음. 김포시 역시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김포이웃살이, 지역아동센터, NGO단체들을 통해 돌봄과 급식, 캠핑, 문화체험, 댄스교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평구 역시 ‘어울림 이끌림’과 ‘경인글로벌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진로탐색,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재정착난민들의 정착지역 선정 시 난민가정의 자녀와 성인들을 위한 교육, 돌봄, 사회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여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친구들과의 관계도 92%가 잘 어울리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1기 12%, 2기 30%가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자녀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답변자는 90%였으며 10%인 2기(3명), 3기(1명), 4기(1명)은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자녀가 고등교육을 위한 진학을 원할 경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65%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35%가 답변하였음. 특별히 2기 60%, 7기가 67%로 진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음.

5-9) 자녀 학교생활에 관한 학교와의 소통

[표 5-9] 자녀 학교생활에 관한 학교와의 소통

질문	답변	계 (46)	1기 (7)	2기 (10)	3기 (8)	4기 (7)	5기 (3)	6기 (2)	7기 (6)	8기 (3)
1) 자녀의 학교-관계자와 자주 소통하는 편입니까?(소통 방법: 문자, 어플, 전화, 등)	예	32	6	4	5	6	0	2	6	3
		70%	86%	40%	63%	86%	0%	100%	100%	100%
	아니오	14	1	6	3	1	3	0	0	0
		30%	14%	60%	37%	14%	100%	0%	0%	0%
2) 학교 및 학교선생님과 소통할 때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22	2	7	4	4	0	0	2	3
		48%	29%	70%	50%	57%	0%	0%	33%	100%
	아니오	24	5	3	4	3	3	2	4	0
		52%	71%	30%	50%	43%	100%	100%	67%	0%
3) 학교 선생님의 말씀,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이해합니까?	예	17	2	3	1	4	1	1	2	3
		37%	29%	30%	13%	57%	33%	50%	33%	100%
	아니오	29	5	7	7	3	2	1	4	0
		63%	71%	70%	87%	43%	67%	50%	67%	0%

4) 학교 선생님의 말씀,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움 받을 곳이 있습니까?	예	37	7	9	7	0	3	2	6	3
		80%	100%	90%	88%	0%	100%	100%	100%	100%
	아니오	9	0	1	1	7	0	0	0	0
		20%	0%	10%	12%	100%	0%	0%	0%	0%
5) 다른 아동들의 학부모님들과 교류가 있습니까?	예	22	3	5	2	4	0	2	4	2
		48%	43%	50%	25%	57%	0%	100%	67%	67%
	아니오	24	4	5	6	3	3	0	2	1
		52%	57%	50%	75%	43%	100%	0%	33%	33%
6) 아동과 학교생활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	32	6	7	4	5	2	1	4	3
		70%	86%	70%	50%	71%	67%	50%	67%	100%
	아니오	14	1	3	4	2	1	1	2	0
		30%	14%	30%	50%	29%	33%	50%	33%	0%
7) 코로나 등 질병,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안내를 충분히 받았습니까? (1-3기 설문참여하지 않음)	예	18				6	1	2	6	3
		86%				86%	33%	100%	100%	100%
	아니오	3				1	2	0	0	0
		14%				14%	67%	0%	0%	0%

- 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학교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음.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소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총 50명의 취학자녀 부모인 설문자들 중 46명이 답변에 응했음. 학교 관계자(교사)와의 소통 여부에 대한 답변에 ‘자주 소통한다’는 70%,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30%로 6-8기는 전원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5기는 전원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음. 5기의 경우 한부모 가정인 이유로 엄마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해 따로 자녀의 교사들과 소통할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학교와 소통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48%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52%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아직 한국에 입국한지 오래되지 않은 8기의 경우는 소통에 관련하여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다고 모두가 답변하였음.
-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나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의 이해도는 ‘이해한다’는 답변이 37%,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63%로, 부평구에 정착한 기수들 역시 정착이 오래 되었어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음. 학교의 공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으로 80%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4기의 경우 김포 관내에 정착한 5-7기의 경우 100%가 도움 받을 기관이 있다고 답한 것과 달리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음. 이는 충분하지 않지만 상근자 미얀마어 통역 등 도움을 구할

센터가 김포 관내에 있지만 멘토 중심의 라포가 먼저 강하게 형성되었던 영향으로 지원기관의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생활멘토 교육 시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의 유무, 활용법,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이용 권장 등을 통해 멘토링 의존이 아닌 자립적으로 지역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지도록 연계지원을 잘 활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됨.

- 다른 아동들의 학부모와 교류 여부는 48%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52%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7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30%는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코로나 등 질병 재난 상황에서 학교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6%가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14%는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6-9기는 모두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5기는 67%가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소 결

- 재정착난민 자녀들은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무는 동안 학교 연계 및 입학 문제 처리 등의 도움을 받고, 퇴소 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됨.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퇴소 후 각 지역에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등에 수용되고 있으나 대기 기간이 길고 경쟁발생 정도에 따라 수 년이 걸리기도 함.
- 자녀들이 태국 캠프나 말레이시아의 상황에서 정규 학교 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에 한국에서의 정착 시 학교와 수업에 대한 지원 및 과도한 노동으로 잔업이 끝나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돌봄과 급식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도움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한국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과는 달리 초기 정착기의 외국인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기에, 지역아동센터 역시 모든 프로그램을 이원화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 함. 김포시의 경우 지역의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여 재정착난민 가정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용이해졌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지역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능하게 만들었음. 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국인선주민 아이들과 돌봄 경쟁이 발생, 지역

아동센터의 인적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임. 일반 학교만으로는 정착을 시작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책임지는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함께 책임지는 것이 필요함.

- 4기에서 제기되었듯 학교의 공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공지 문자나 문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소수언어의 경우 영어 번역이라도 제공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통역 기관 적극적 연계 등에 있어서 교육 당국의 정책적 제고가 필요함. 또한 난민들이 지역정착 초기 위축되는 멘토들을 통해 통역이나 상담 등, 유관 서비스 기관들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착난민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관한 소통 및 근황에 대해 대다수의 부모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자녀들이 한국사회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 외에도 ‘이주민’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차이와 차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기회의 문제, 이중언어 및 문화를 경험하며 생기는 정체성의 문제 등은 여전히 겪고 있고, 또 격게 될 문제이기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 및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상담가 또는 멘토 등이 필요하며, 보다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또한 부모가 바쁜 생업 중에서도 자녀의 상황에 대해 안정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학교 간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6. 건강

6-1)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표 6-1] 건강보험 여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93	12	21	14	15	3	8	8	12
	87%	100%	84%	88%	94%	100%	89%	89%	71%
아니오	14	0	4	2	1	0	1	1	5
	13%	0%	16%	13%	6%	0%	11%	11%	29%

- 전체 재정착난민의 87%만이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가장 최근에 한국에 정착하게 된 8기의 경우 단지 71%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음.
- 한국의 재정착난민은 난민인정자로서 100% 의무적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입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됨. 본 설문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아니오’ 응답이 13%가 나오는 것은 다음 경우의 수들로 예측 가능함.

첫째.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둘째.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이 점을 몰라서 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 보장에서 탈락된 경우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이 경우 자활 노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넷째. 본 질문에서 제시한 ‘보험’이라는 단어를 국민건강보험 대신 민간의료보험으로 오해했을 경우

다섯째. 외국인은 성인이 되면 건강보험의 독립 가입자로 자동 변경되며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됨. 성인 연령에 진입한 재정착난민이 취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가족의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난민 본인이 독립 가입자가 된 여부를 모를 수도 있음.

위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재정착난민에게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실과 보험 적용의 조건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 건강보험 정책 개정 이후로 이주민의 건강보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변경됨(소득 및 재산 기준에서 평균 보험료 이상 금액으로). 이에 따라 이주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남¹⁰⁾. 또한 고령의 난민인정자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성년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배우자 사망 여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그러나 그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망 증명서를 본국에서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 증빙 자체가 어려우므

10) 마음속 혐오를 끄집어내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 월간복지동향

로 지역가입자로 보험을 유지하는 상황이 있음.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국민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이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으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으며¹¹⁾ 도리어 한국인선주민들의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이주민의 병원이용 시 언어장벽의 해소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함.

6-2) 지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표 6-2] 2년 내 건강검진 여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87	11	22	10	12	3	8	9	12
	81%	92%	88%	63%	75%	100%	89%	100%	71%
아니오	20	1	3	6	4	0	1	0	5
	19%	8%	12%	38%	25%	0%	11%	0%	29%

-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됨. 전체의 81%가 지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음.
- 6-1 항목에서 본인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답변 비율과 비슷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건강보험에 대해 아는 재정착난민은 그 제도가 보장하는 의료보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8년 조사 당시 정기 건강검진율 52.8%에 비교하여 정기 건강검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이호택, 2018). 이는 재정착난민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회사 재직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 후 재직자 건강검진 독려에 따라서 검진율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함. 또한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함.

1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차별의 건강보험제도 - “국가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23년 9월26일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차별문제에 대한 결정(2019헌마1165)을 선고함으로 외국인가입자가 보험료 1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하여 차별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2025년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보험료 하한 조항(외국인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내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비해 최대 9배나 높은 경우도 발생함)과 세대구성 조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차별취급이라고 판단함.)

- 재정착난민들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격려하는 경우 검진율이 높음. 반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 문제와 더불어 근무시간 대신 건강검진 때문에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결근으로 말미암은 수입 감소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함. 이를 볼 때 재정착난민의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개입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호택, 2018). 또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검진에 참여할 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6-3) 병원에 가기 위하여 예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표 6-3] 병원 예약법 인지여부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27	2	10	1	6	0	3	4	1
	25%	17%	40%	7%	38%	0%	33%	44%	6%
아니오	79	10	15	14	10	3	6	5	16
	75%	83%	60%	93%	63%	100%	67%	56%	94%

- 107명 중 27명의 참여자만이 병원 예약 방법을 안다고 대답하였음. 기수별로도 답변에 큰 차이가 있었음. 1-3기와 같이 비교적 한국에서 오래 산 재정착난민 기수에서도 높은 비율로(1기 83%, 2기 60%, 3기 93%) 병원 예약 방법을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참여자 전원이 방법을 모른다고 대답한 기수(5기)도 있었음.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온 8기의 경우 6%의 참여자만이 방법을 안다고 답변했음. 모든 병원이 이용 시에 예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차 병원과 같이 규모가 있는 병원은 예약 없이는 이용이 어려움. 병원 예약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한국 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 예약 방법을 안다고 답변한 비율이 25%로서 예약 문화가 보편적인 미국의 덴버지역 RISE조사 결과 정착 3년차 63.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온 8기의 경우 6%의 참여자만이 방법을 안다고 답변한 것과 2018년 조사 결과 5.6%와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음(이호택, 2018). 이러한 결과는 재정착 후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원을 예약하는 문화에 적응하여 그 값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래에 이어지는 조사 결과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언어 문제임을 고려해 볼 때, 예약 또한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추정됨.

6-4)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표 6-4] 의료기관 정보의 접근 어려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81	7	16	11	14	2	6	8	17
	76%	58%	64%	69%	88%	67%	67%	89%	100%
아니오	26	5	9	5	2	1	3	1	0
	24%	42%	36%	31%	13%	33%	33%	11%	0%

- 107명 중 81명, 76%의 참여자가 의료기관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특히 가장 최근 기수인 8기는 전원이 그렇다고 답변하여, 이들이 한국 생활에서 의료기관 정보가 필요할 때 크게 막막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이로 볼 때 재정착난민의 전 기수의 절반 이상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8기 100%에서 1기 58%에 이르기까지 각 기수별로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의료기관 정보취득의 어려움이 개선되어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진료과목 등 의학용어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음.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고, 관절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가는 식으로 본인의 증상에 적합한 진료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음. 실제 난민 사례 중 한국에서 처음 갔던 병원에, 이후 증상과 상관없이 찾아갔다는 사례가 있기도 함.

6-5) 의료진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표 6-5] 의료진 소통의 애로사항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89	10	19	14	14	1	7	8	16
	83%	83%	76%	88%	88%	33%	78%	89%	94%
아니오	18	2	6	2	2	2	2	1	1
	17%	17%	24%	13%	13%	67%	22%	11%	6%

- 답변자의 83%가 의료진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낌. 한국에 거주한지 시간이 많이 지난 1기도 12명 중 10명이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함. 이러한 높은 비율은 2,3,4기에서도 마찬가지임. 물론 타국에서 낯선 언어로 소통하는 것에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생각해야 함. 그러나 거주기간이 긴 초기 재정착난민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소통 능력의 증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난민지원기관의 사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었으나, 병원에 따라 3차 전화 통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자주 있음. 통역 오류로 인한 의료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 추정함.

6-6) 지난 2년 이내에 치아 검진을 위하여 치과에 간 일이 있습니까?

[표 6-6] 2년 이내 치아 검진을 위한 치과 방문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5	5	15	11	8	2	3	6	5
	51%	42%	60%	69%	50%	67%	33%	67%	29%
아니오	52	7	10	5	8	1	6	3	12
	49%	58%	40%	31%	50%	33%	67%	33%	71%

- 평균적으로 51%의 재정착난민들이 2년 이내 치아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2018년 조사에서 치과검진율은 25%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상승을 보임 (이호택, 2018).
- 그러나 51%의 응답률은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는 2)질문의 응답 비율(81%)에 훨씬 못 미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당해 치아검진의 대상자라는 점에서, 재정착난민 집단에서 국가 기본 건강검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함.
- 또한 본 질문은 국가건강검진 내 치과 검진을 특정하여서 한 질문이 아니므로, 일반 치과 검진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적절한 주기로 치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고 보임.

6-7) 평소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표 6-7] 평소 아픈 곳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6	3	10	9	12	3	4	6	9
	52%	25%	40%	56%	75%	100%	44%	67%	53%
아니오	51	9	15	7	4	0	5	3	8
	48%	75%	60%	44%	25%	0%	56%	33%	47%

- ‘평소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2018년 조사에서는 25%가 나온 ‘예’ 답변이 2023년에는 52%로 큰 상승이 있었고(이호택, 2018) 특히 4기와 5기는 각 75%, 100%로 높음. 100%로 답한 5기의 경우 취업에 따른 직장노동과 가사노동, 자녀 돌봄 등, 홀로 가정경제와 가사노동 및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나 친족네트워크도 없어 쉴 수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되는 생존투쟁의 상황을 드러냄. 이를 통해 국내 재정착난민이 일상적으로 지병을 가지고 한국 생활을 하는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그 이유로는 정착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노령화로 인한 지병 증가, 국내 취업으로 인해 노동 중에 아픈 곳이 생겼을 가능성, 상주국에서 병원을 못 가다가 한국 정착 후 병원 접근이 개선됨에 따라 아픈 곳 확인이 늘어남 등을 추론할 수 있음.
- 아픈 곳이 있는 난민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 필요성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론됨. 또한 한국에 재정착한 난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화됨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난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6-8) 6-7번 질문에서 ‘예’라고 답하였다면, 아픈 곳은 어디입니까?

[표 6-8] 질병 여부

내용	계 (56)	1기 (3)	2기 (10)	3기 (9)	4기 (12)	5기 (3)	6기 (4)	7기 (6)	8기 (9)
1)호흡기	8	0	0	1	2	1	2	0	2
	14%	0%	0%	11%	17%	33%	50%	0%	22%
2)당뇨	1	0	0	1	0	0	0	0	0
	2%	0%	0%	11%	0%	0%	0%	0%	0%
3)치아	8	0	1	0	4	1	0	1	1
	14%	0%	10%	0%	33%	33%	0%	17%	11%

4)고혈압	2	0	0	0	2	0	0	0	0
	4%	0%	0%	0%	17%	0%	0%	0%	0%
5)두통	10	1	1	1	3	1	0	2	1
	18%	33%	10%	11%	25%	33%	0%	33%	11%
6)위염	5	1	0	1	0	0	0	1	2
	9%	33%	0%	11%	0%	0%	0%	17%	22%
7)기타	22	1	8	5	1	0	2	2	3
	39%	33%	80%	56%	8%	0%	50%	33%	33%

- 평소에 아픈 곳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은 가장 많이 아픈 부위로 답변한 것은 기타 항목 중에서 나옴. 기타를 체크한 22명 중 11명이 허리/다리/어깨/팔/손목/손 등의 통증 혹은 디스크를 보고함. 각종 정형외과 질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동으로 인한 증상 호소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두 번째로 높은 답변은 ‘두통’이었으며(18%) 다음은 치아와 호흡기 문제임(각 14%). 두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정착난민이 경험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어 보임.
- 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허리/다리/어깨/팔/손목/손 등의 통증 혹은 디스크(11명), B형간염(2명), 자궁(2명), 신장(1명), 역류성 식도염(1명), C형간염(1명), 가슴(1명), 눈 가려움(1명), 어지럼증(1명), 통풍(1명).
- 의료기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진과 소통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았던 상위 응답을 고려할 때 평소 아픈 곳이 있다고 대답한 다수의 응답자가 생활 속 건강 문제로 겪는 고충이 많을 것으로 보임.

6-9)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수응답)

[표 6-9] 의료기관 이용의 애로사항

항목	계 (150)	1기 (16)	2기 (41)	3기 (20)	4기 (23)	5기 (5)	6기 (8)	7기 (12)	8기 (25)
1) 치료비가 없어서	25	1	10	4	3	1	2	1	3
	17%	6%	24%	20%	13%	20%	25%	8%	12%
2) 치료를 위해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17	0	4	3	4	1	1	1	3
	11%	0%	10%	15%	17%	20%	13%	8%	12%
3)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서	3	0	2	0	0	0	0	0	1
	2%	0%	5%	0%	0%	0%	0%	0%	4%

4)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6	2	3	0	0	0	0	0	1
	4%	13%	7%	0%	0%	0%	0%	0%	4%
5) 식구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2	1	0	0	0	0	0	1	0
	1%	6%	0%	0%	0%	0%	0%	8%	0%
6)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6	0	4	0	0	0	0	1	1
	4%	0%	10%	0%	0%	0%	0%	8%	4%
7)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서	1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8%	0%
8) 의료기관의 정보(진료과목, 병원위치 등)가 부족해서	5	0	2	0	0	0	0	0	3
	3%	0%	5%	0%	0%	0%	0%	0%	12%
9) 언어 소통이 안돼서	67	8	14	11	10	3	4	6	11
	45%	50%	34%	55%	43%	60%	50%	50%	44%
10) 휴가 내기가 어려워서	17	4	2	2	6	0	0	1	2
	11%	25%	5%	10%	26%	0%	0%	8%	8%
11) 기타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3%	0%	0%

-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의 사유는 ‘언어소통이 안돼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45%). 이는 재정착 초기 기수부터 최근 기수에까지 동일하게 가장 많은 사유로 꼽혔음. 이는 상위 문항에서 의료진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과 일맥상통함. ‘치료를 위해 일을 쉬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답변 (11%)은 아래 10)의 응답 휴가 내기가 어려워서(11%)와 동일한 맥락의 답변으로 보이며 두 응답을 합하면 22%로 두 번째로 높은 사유로 볼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연차사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고 있지 않는 요인으로 보임. 병가나 연차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와 달리, 이주민의 경우 이런 연차 사용 제도를 사측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생산라인의 특성상 결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차별이 재정착난민에게도 관성적으로 적용되고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노동시장의 차별은 이주민의 건강권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이주민 뿐 아니라 모든 약자들에 대한 시민권의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좀 더 면밀한 감시와 개선이 시급함. 이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17%)이 컸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주요한 이유로 언어소통과 치료비 문제를 선택한 것은 2018년 조사 결과와도 동일함(이호택, 2018). 이를 볼 때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음.

6-10) 건강상태

[표 6-10 건강상태]

질문	답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자주 운동을 하는 편입니까? (적정 운동시간: 하루30분 이상 주3~4회)	예	32	0	6	6	7	0	6	2	5
		30%	0%	24%	38%	44%	0%	67%	22%	29%
	아니오	75	12	19	10	9	3	3	7	12
		70%	100%	76%	63%	56%	100%	33%	78%	71%
2) 식사는 하루 세 끼로 규칙적인 편입니까?	예	74	5	18	10	13	1	8	5	14
		69%	42%	72%	63%	81%	33%	89%	56%	82%
	아니오	33	7	7	6	3	2	1	4	3
		31%	58%	28%	38%	19%	67%	11%	44%	18%
3) 술이나 담배를 자주 마시거나 피는 편입니까?	예	26	3	9	6	5	0	1	1	1
		24%	25%	36%	38%	31%	0%	11%	11%	6%
	아니오	81	9	16	10	11	3	8	8	16
		76%	75%	64%	63%	69%	100%	89%	89%	94%
4)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편입니까? (적정수면시간: 하루 7~9시간)	예	62	3	18	10	9	1	7	4	10
		58%	25%	72%	63%	56%	33%	78%	44%	59%
	아니오	45	9	7	6	7	2	2	5	7
		42%	75%	28%	38%	44%	67%	22%	56%	41%

- 현재 한국의 재정착난민들은 비교적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해로운 기호식품(술, 담배)을 멀리하는 편임 (규칙적인 식사 69%,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비율 76%). 2018년 조사 당시 ‘불규칙한 식사’가 33.3%, ‘자주 하는 술 담배’가 13.9%였다는 점에서 과거 수치와 비슷함(이호택,2018).
- 다만 ‘불규칙한 수면’을 하는 비율이 42%로 나왔으며 이 부분은 6-12. 정신건강 파트에서 17%가 불면을 보고한 것 과도 연관된 결과로 보임. 2018년 조사 시 ‘불규칙한 수면’이 36.1%로서 이번 조사 결과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옴 (이호택, 2018).
- 또한 운동 습관에 있어서는 적절한 빈도와 양의 운동(하루 30분 이상 주3-4회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70%로 훨씬 더 높음. 2018년 조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77.8%로 현재 다소 감소함(이호택, 2018). 적정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 설문에서 조사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연구진은 과도한 노동(야근 특근)으로 인해 적절한 운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도 그 요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측함.

6-11) 위생 상태

1)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표 6-11-1 양치 횟수]

구분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회	9	1	7	0	0	0	0	1	0
	8%	8%	28%	0%	0%	0%	0%	11%	0%
2회	64	10	12	8	9	2	6	7	10
	60%	83%	48%	50%	56%	67%	67%	78%	59%
3회	32	1	6	8	7	1	3	0	6
	30%	8%	24%	50%	44%	33%	33%	0%	35%
4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회	1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6%
7회	1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11%	0%
14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일일 양치 빈도수는 2회(60%) > 3회(30%) > 1회(8%) 순서임(상위 3개의 답변). 하루에 2-3회 양치를 하는 비율이 전체 90%로 대부분에 해당함. 이는 2018년도 조사에서 ‘하루에 세수 및 양치를 몇 번 하는가’의 2회(66.7%) > 3회(27.8%) > 1회(5.6%) 답변과 비슷한 수치임(이호택, 2018)

2) 일주일에 샤워를 몇 번하고 있습니까?

[표 6-11-2 샤워 횟수]

구분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회	3	0	1	0	0	0	1	0	1
	3%	0%	4%	0%	0%	0%	11%	0%	6%
2회	11	0	2	3	3	0	1	1	1
	10%	0%	8%	19%	19%	0%	11%	11%	6%
3회	6	1	1	1	1	0	0	1	1
	6%	8%	4%	6%	6%	0%	0%	11%	6%
4회	11	1	2	1	3	0	0	2	2
	10%	8%	8%	6%	19%	0%	0%	22%	12%

5회	29	1	2	2	7	0	4	3	10
	27%	8%	8%	13%	44%	0%	44%	33%	59%
7회	36	9	10	7	2	2	2	2	2
	34%	75%	42%	44%	13%	67%	22%	22%	12%
14회	10	0	6	2	0	1	1	0	0
	9%	0%	25%	13%	0%	33%	11%	0%	0%

- 일주일 내 샤워 빈도수는 7회(34%) > 5회(27%) > 4회, 2회(각10%) 순서임(상위 3개의 답변). 이를 볼 때 일주일에 5-7회 샤워를 하는 비율이 전체 61%에 해당함. 2018년도 조사의 결과는 7회(69.4%) > 14회(30.6%)로, 당시보다는 샤워 빈도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이호택, 2018)

3) 일주일에 청소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표 6-11-3 청소 횟수]

구분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회	18	1	8	2	2	2	0	2	1
	17%	8%	32%	13%	13%	67%	0%	22%	6%
2회	13	1	4	1	0	0	3	2	2
	12%	8%	16%	7%	0%	0%	33%	22%	12%
3회	23	4	3	4	6	0	2	1	3
	22%	33%	12%	27%	38%	0%	22%	11%	18%
4회	11	0	2	0	4	0	0	0	5
	10%	0%	8%	0%	25%	0%	0%	0%	29%
5회	16	1	1	1	3	0	2	3	5
	15%	8%	4%	7%	19%	0%	22%	33%	29%
7회	19	5	3	7	1	0	1	1	1
	18%	42%	12%	47%	6%	0%	11%	11%	6%
14회	6	0	4	0	0	1	1	0	0
	6%	0%	16%	0%	0%	33%	11%	0%	0%

- 일주일 내 청소 빈도수는 3회(22%)> 7회(18%) > 1회(17%) 순서임 (상위 3개의 답변). 이를 볼 때, 일주일에 청소를 하는 횟수는 평균을 잡기가 어려우며 각 가구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보여짐. 또한 주 7회 청소로 대부분 답변했던 2018년 조사와는 상이한 수치임 (2018년 조사 결과 7회(63.9%) > 0회(13.9%) > 1회, 3회(각 8.3%)) (이호택, 2018).

4) 일주일에 빨래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표 6-11-4 빨래 횟수]

구분	계 (104)	1기 (11)	2기 (24)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회	21	4	9	4	3	0	0	0	1
	20%	36%	38%	27%	19%	0%	0%	0%	6%
2회	16	0	7	2	1	1	1	2	2
	15%	0%	29%	13%	6%	33%	11%	22%	12%
3회	29	2	3	2	7	1	2	5	7
	28%	18%	13%	13%	44%	33%	22%	56%	41%
4회	11	3	1	0	2	0	2	0	3
	11%	27%	4%	0%	13%	0%	22%	0%	18%
5회	14	0	3	4	2	0	2	1	2
	13%	0%	13%	27%	13%	0%	22%	11%	12%
7회	10	2	0	3	1	0	1	1	2
	10%	18%	0%	20%	6%	0%	11%	11%	12%
14회	3	0	1	0	0	1	1	0	0
	3%	0%	4%	0%	0%	33%	11%	0%	0%

- 일주일 내 빨래 빈도수는 3회(28%) > 1회(20%) > 2회(15%) 순서임 (상위 3개의 답변). 일주일에 청소를 하는 횟수는 각 기수별로 답변이 상이함. 2018년 조사 결과로는 7회(27.8%) > 0회, 3회(각 22.2%) > 5회(13.9%)으로 이전보다 빨래 빈도수가 낮아짐 (이호택, 2018).

5) 자녀는 샤워를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표 6-11-5 자녀 샤워 횟수]

구분	계 (75)	1기 (9)	2기 (15)	3기 (10)	4기 (12)	5기 (3)	6기 (5)	7기 (8)	8기 (13)
1회	2	0	2	0	0	0	0	0	0
	3%	0%	13%	0%	0%	0%	0%	0%	0%
2회	4	0	0	2	2	0	0	0	0
	5%	0%	0%	20%	17%	0%	0%	0%	0%
3회	7	0	0	1	1	0	0	2	3
	9%	0%	0%	10%	8%	0%	0%	25%	23%
4회	9	0	0	0	3	0	0	2	4
	12%	0%	0%	0%	25%	0%	0%	25%	31%
5회	20	2	2	2	5	0	3	2	4
	27%	22%	13%	20%	42%	0%	60%	25%	31%

7회	23	6	6	3	1	2	1	2	2
	31%	67%	40%	30%	8%	67%	20%	25%	15%
14회	4	0	0	2	0	1	1	0	0
	5%	0%	0%	20%	0%	33%	20%	0%	0%
모르겠음	6	1	5	0	0	0	0	0	0
	8%	11%	33%	0%	0%	0%	0%	0%	0%

- 일주일 내 자녀를 씻기는 빈도수는 7회(31%) > 5회(27%) > 4회(12%) 순서임 (상위 3개의 답변). 2018년도 조사 결과는 7회(72.7%) > 14회(12.1%) > 0회(9.1%)로 이전과는 다른 수치를 보여줌(이호택, 2018).
- 재정착난민 수용 초기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들이 샤워를 잘 하지 않거나 자녀를 씻겨주지 않는 습관이 있어 문제가 된 일이 있음. 이는 기존 상주국 난민캠프의 열악한 환경에서 형성된 위생 습관으로 보임. 본 6-11 ‘위생상태’ 항목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 조사되었던 내용이며, 2023년에도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하였음. 재정착난민 수용 초기에 비하여 8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위생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은 없음.

6-12) 정신건강

6-12-1) 최근 당신이 경험중인 것에 표시해주세요 (복수응답)

[표 6-12-1 최근 정신건강 경험]

내용	계 (166)	1기 (23)	2기 (38)	3기 (24)	4기 (23)	5기 (11)	6기 (13)	7기 (10)	8기 (24)
1) 우울감	13	2	5	0	1	2	1	1	1
	8%	9%	13%	0%	4%	18%	8%	10%	4%
2) 심한 스트레스	31	5	7	8	1	2	2	1	5
	19%	22%	18%	33%	4%	18%	15%	10%	21%
3) 불안	37	4	3	5	8	2	4	3	8
	22%	17%	8%	21%	35%	18%	31%	30%	33%
4) 불면	25	4	7	4	5	2	0	2	1
	15%	17%	18%	17%	22%	18%	0%	20%	4%
5) 알콜 의존	1	0	1	0	0	0	0	0	0
	1%	0%	3%	0%	0%	0%	0%	0%	0%
6) 낮은 자아존중감	11	1	4	1	2	0	1	0	2
	7%	4%	11%	4%	9%	0%	8%	0%	8%

7) 인터넷/게임 중독	6	0	2	3	1	0	0	0	0
	4%	0%	5%	13%	4%	0%	0%	0%	0%
8) 도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무력감	8	0	0	1	1	2	2	1	1
	5%	0%	0%	4%	4%	18%	15%	10%	4%
10) 조현병(환청, 망상 등)	1	0	1	0	0	0	0	0	0
	1%	0%	3%	0%	0%	0%	0%	0%	0%
11) 자살충동	1	1	0	0	0	0	0	0	0
	1%	4%	0%	0%	0%	0%	0%	0%	0%
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2	0	0	0	1	1	0	0	0
	1%	0%	0%	0%	4%	9%	0%	0%	0%
13) 증상 없음	30	6	8	2	3	0	3	2	6
	18%	26%	21%	8%	13%	0%	23%	20%	25%

- 재정착난민이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은 불안(22%) > 심한 스트레스(19%) > 불면(15%) > 우울감(8%) > 낮은 자아존중감(7%) > 무력감(5%) 순으로 나타남.
- 난민의 정의에 따르면 재정착난민은 필연적으로 박해의 경험이 있는 존재임. 출신국에서의 박해 사유만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외상(PTSD)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이들은 상주국에서 비시민(non-citizen)으로서 단속, 치안이 불안정했던 상주국에서의 강도 상해 등을 겪을 경우 그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허가 없는 노동에 대한 불안정감을 가지고 정처 없는 삶을 살기도 함. 그 상황에서 본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인해 이미 취약해진 심리 상태에 어려움을 더하게 됨. 새로운 나라의 사회체계와 규범, 언어,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습득하며 한 번에 수많은 과제를 부여 받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많은 경우 재정착난민은 협약 난민신청자에 비해 난민 인정 과정이 수월하고 국가 지원도 많다고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재정착난민 역시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 모르는 언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 한국 직장생활의 어려움, 주거 지원(한시적 월세 보증금 지원) 만료 기간이 가까울 수록 찾아오는 불안감,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느끼는 막막함과 무력감, 본인

이 재정착난민으로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미국 등 선진국에 정착한 지인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낯선 한국에서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더 심할 것으로 추측됨.

- 정착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받아도 기존의 심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음. 난민 인정 이후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에 대한 보장을 받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입국 전 국가들에서 난민 인정 이전 박해 경험으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모든 박해 경험자가 트라우마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경험자에 비해 트라우마를 겪을 위험성이 높음. 현재의 안정된 상황 중에서도 과거의 박해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자극(트리거)이 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취약성이 있음. 또한 오랫동안 불안정한 체류 문제를 안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경험으로 인해 정착 후에도 항상 불안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상적 특성에 비추어 난민에게는 심리적인 지원(전문 상담, 지속적인 체크업)이 필요함. 심리적 회복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그 시간과 비용은 커질 수 있음. 그러나 회복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함. 그러나 지역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체적으로 이중언어 상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이용 시간이므로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인 난민은 심리적 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정착난민의 입국 시 리셉션 센터(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부터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인간의 심리적 회복에는 주변의 인적자원(지지체계, 좋은 이웃)이 필요하며 이는 난민에게도 마찬가지임. 많은 경우 재정착난민이 같은 지역에 함께 정착한 이들 위주로 만나는 삶을 살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난민의 수 자체가 적어서 정착 초기에는 사회적 연결망이 작을 수밖에 없음. 종교활동을 통해 확대할 수 있지만 동일한 재정착난민들 중심의 미얀마어 종교활동이 이어지는 경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멘토 제도, 정착 지역의 지원기관들을 통한 지역사회 내 이웃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요청됨.

6-13)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표 6-13] 스트레스 영역(복수응답)

항목	계 (217)	1기 (23)	2기 (43)	3기 (31)	4기 (39)	5기 (8)	6기 (19)	7기 (18)	8기 (36)
1) 건강	35	4	6	5	6	2	4	3	5
	16%	17%	14%	16%	15%	25%	21%	17%	14%
2) 경제, 돈 문제	30	2	7	5	5	0	4	3	4
	14%	9%	16%	16%	13%	0%	21%	17%	11%
3) 언어	58	8	9	7	11	2	4	5	12
	27%	35%	21%	23%	28%	25%	21%	28%	33%
4) 직장	11	2	2	3	0	0	2	0	2
	5%	9%	5%	10%	0%	0%	11%	0%	6%
5) 육아, 자녀교육	28	3	4	5	9	1	1	3	2
	13%	13%	9%	16%	23%	13%	5%	17%	6%
6) 집안 살림	6	1	2	1	0	0	1	1	0
	3%	4%	5%	3%	0%	0%	5%	6%	0%
7) 가족내 갈등	8	0	4	2	1	0	0	0	1
	4%	0%	9%	6%	3%	0%	0%	0%	3%
8) 한국인과의 교류	17	0	3	1	5	1	0	1	6
	8%	0%	7%	3%	13%	13%	0%	6%	17%
9) 인간관계	7	0	1	2	2	1	0	0	1
	3%	0%	2%	6%	5%	13%	0%	0%	3%
1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없다	17	3	5	0	0	1	3	2	3
	8%	13%	12%	0%	0%	13%	16%	11%	8%

- 응답자들은 언어(27%) > 건강(16%) > 경제, 돈 문제(14%) > 육아, 자녀교육(13%) 순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답함. 과거 박해 경험이 없고, 체류의 위기를 겪어본 적 없이 계속 한국에 살던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도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교육, 육아 등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됨. 재정착난민의 경우 이미 박해와 한국 재정착이 확정되기 전 체류의 불안정 상황을 겪었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과업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됨.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교육, 육아 등은 일반의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와는 그 무게감이 다름. 또한 한부모 가정일 경우 양육의 책임을 혼자서 지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더 과중해지며 정착이 힘들.
- 또한 언어 문제는 단순히 언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과 삶 전반, 자녀 양육, 인간관계, 구직 및 이직, 직장 생활, 학습, 영주권 취득 등 거의 모든 한국 생활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소 결

-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고 의료보장제도가 모범적인 국가에 속함. 이러한 한국에 정착하게 된 난민은 사회적인 의료보장을 얼마나 누리 고 있을지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음.
- 우선 전체 재정착난민의 13%는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볼 때, 개별적인 사유로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본 제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치과 검진 등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임. 그렇다면 난민들이 한국에 ‘건강한 재정착’을 하는 일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짐. 이러한 현황에 따라 재정착난민에게 낫설 수 있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정보 제공 시에는 국민건강보험이 문화적으로 낫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유형(직장 가입, 지역 가입), 가입 유형 전환 시점, 기초생활 수급 시의 추가 변동사항,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국가건강 검진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에게 차별적이라고 알려져 있음. 문제는 난민인정자, 즉 재정착난민에게도 그 기준이 까다로움.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는 국민에 준하는 보장을 받기로 된 대상이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또한 국민과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함.
- 재정착난민은 병원 예약 및 의료기관 정보 접근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규모가 큰 3차 병원의 경우 내국인에게도 예약 과정이 복잡함. 이러한 지점에서 재정착난민을 위한 병원 예약 및 이용의 안내가 필요함. 예약 없이 바로 방문 및 진료가 가능한 1차 병원 이외에도 큰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러한 정보 습득은 건강한 자립의 기초가 될 것임. 또한 본인의 증상에 알맞은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의학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또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료진과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기수(거주 연도)와 상관없이 높다는 점에

서 지원이 절실함. 자신의 증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난민 개인의 언어 발전도 필요하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대형 병원의 경우 병원 내 통역 지원 및 지자체의 공적인 통역 인프라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본인의 증상이나 아픈 부위에 대해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임. 그러므로 재정착난민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에게 언어적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언어지원은 통역 제공, 건강 및 질병 관련 쉬운 한국어 표현 책자 제공, 증상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자료 제공, 난민 대상 한국어 심화 교육 제공, 의료기관 대상 외국인 환자 응대 교육 및 외국어 서식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 또한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재정착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더불어, 난민으로서 필연적인 박해 요소를 가지고 불안정 상황을 거처온 이들의 정신건강 측면과 현재 겪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음. 재정착난민의 91%가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으며 주로 보고하는 증상은 불안, 심한 스트레스, 불면, 우울감 등임. 난민의 특성상 박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재정착난민의 정신건강 지표를 보았을 때, 이들이 한국에서 건강하게 정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으려면 주거나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성인 재정착난민의 정신건강은 그들이 양육하는 난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난민 가정 전체를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함. 난민이 겪은 박해를 그 인생에 닥친 ‘재난’과 가깝다고 생각할 때, 국가에서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회복 서비스가 이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행정안전부에서 기획 및 추진 중인 ‘재난심리 회복지원’을 난민인정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임. 이 제도는 자연 재난 및 인적 재난이 발생한 지역 거주자에게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전문 상담, 병원진료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병리 현상을 축소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¹²⁾ 난민인정자는 재난에 비견할 수 있는 박해를 겪음으로 한

12) 국민재난 안전포털 심리회복지원소개 (safekorea.go.kr)

국 사회로 이주하여 국민에 준하는 사회보장을 받기로 결정된 대상임. 이러한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단순히 시혜적인 일이 아닌 한국 사회의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음.

- 재정착난민 사회적 연결망 확대와 심리상담 제공 사례로 김포시 사례를 들 수 있음.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초기부터 난민에 대한 이해와 교육 경험이 풍부한 한국어 강사를 멘토로 위촉하여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멘토 활동을 결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희망 가정들에 한 해 1주일에 1회 찾아가는 가족 놀이 프로그램으로 전문 상담사들의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함. 이어서 미얀마 재정착난민 가정 및 다양한 이주민 가정 자녀들에게도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마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7. 주거

7-1) 당신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표 7-1] 주거형태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노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노숙자 쉼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친구나 친척집	2	0	1	1	0	0	0	0	0
	2%	0%	4%	6%	0%	0%	0%	0%	0%
4) 월세	84	12	24	15	10	3	6	6	8
	79%	100%	96%	94%	63%	100%	67%	67%	47%
5) 전세	18	0	0	0	3	0	3	3	9
	17%	0%	0%	0%	19%	0%	33%	33%	53%
6) 자기 소유 집	3	0	0	0	3	0	0	0	0
	3%	0%	0%	0%	19%	0%	0%	0%	0%
7)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79%의 재정착난민이 월세 형태로 현재 한국 거주 중임. 이 중 가장 최근에 입국한 8기 전체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한시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시기임. 또한 김포시에 거주하는 4기의 경우 한 가정(3명)이 자가를 구입한 상태임.

7-2) 현재 주거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표 7-2] 주거비 정부지원 여부

	계 (105)	1기 (10)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37	4	3	11	0	0	0	2	17
	35%	40%	12%	69%	0%	0%	0%	22%	100%
아니오	68	6	22	5	16	3	9	7	0
	65%	60%	88%	31%	100%	100%	100%	78%	0%

- 1기~7기는 대부분 지역 정착기간이 2년이 지나 주거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대부분임. 가장 최근에 들어온 8기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100%임. 기본적으로 정부는 재정착난민들에게 가족 규모에 따라서 주거지원(2년 내 반환하는 조건의 보증금과 1년 동안의 월 임대료)을 하고 있음. 출입국 제공자료에 따르면 주거지원 금액으로 보증금은 1,000만원 이며 월세는 80만원 상한선임.
- 2년이 지난 1기~3기 가운데 주거비 정부 지원 응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지원으로서, 캠프난민 출신인 1기~3기 17가구 가운데 약 6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음.

7-3) 주거 환경

[표 7-3] 주거 환경

질문	답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11	0	2	2	6	0	0	0	1
		10%	0%	8%	13%	38%	0%	0%	0%	6%
	아니오	96	12	23	14	10	3	9	9	16
		90%	100%	92%	88%	63%	100%	100%	100%	94%

2) 집 주변 이웃과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17	2	3	2	6	0	0	4	0
		16%	17%	12%	13%	38%	0%	0%	44%	0%
	아니오	90	10	22	14	10	3	9	5	17
		84%	83%	88%	88%	63%	100%	100%	56%	100%
3) 시장 또는 슈퍼마켓이 근처에 있는 편입니까?	예	88	11	17	13	13	3	9	8	14
		82%	92%	68%	81%	81%	100%	100%	89%	82%
	아니오	19	1	8	3	3	0	0	1	3
		18%	8%	32%	19%	19%	0%	0%	11%	18%
4)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의 접근이 쉬운 편입니까?	예	86	12	23	12	12	3	9	6	9
		80%	100%	92%	75%	75%	100%	100%	67%	53%
	아니오	21	0	2	4	4	0	0	3	8
		20%	0%	8%	25%	25%	0%	0%	33%	47%
5) 우체국,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근처에 있습니까?	예	90	12	21	11	15	2	9	8	12
		86%	100%	88%	73%	94%	67%	100%	89%	71%
	아니오	15	0	3	4	1	1	0	1	5
		14%	0%	13%	27%	6%	33%	0%	11%	29%

- 이들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보임. 집주인과의 마찰이 없었다는 응답이 90%, 이웃과의 마찰이 없었다는 응답이 84%였음. 시장 또는 슈퍼마켓, 대중교통, 공공기관 등이 집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응답 또한 80%가 넘음.
-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수 별 대표적 거주지역으로 비교하면 1~3기가 사는 부평은 89%, 4기~7기가 사는 김포는 81%, 8기가 사는 시흥은 53%임. 이로써 시흥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평가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이웃 간의 거리는 만남의 확대 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지점임. 현재 부평은 이웃 간 반경이 약 500m 정도이며 김포는 일부 가정이 멀리 떨어져 살며 대부분 가까우며, 시흥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멀지 않음.

7-4) 현재 직장이 있다면,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표 7-4] 직장과의 거리

내용	계 (64)	1기 (7)	2기 (11)	3기 (8)	4기 (11)	5기 (3)	6기 (7)	7기 (4)	8기 (13)
1) 30분 이내	30	0	4	2	10	3	5	4	2
	47%	0%	36%	25%	91%	100%	71%	100%	15%
2) 30분 이상~1시간 이내	26	7	3	5	1	0	2	0	8
	41%	100%	27%	63%	9%	0%	28%	0%	62%
3)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7	0	3	1	0	0	0	0	3
	10%	0%	27%	13%	0%	0%	0%	0%	23%
4) 2시간 이상	1	0	1	0	0	0	0	0	0
	2%	0%	10%	0%	0%	0%	0%	0%	0%

-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는 30분 이내(47%) > 1시간 이내(41%) > 2시간 이내(10%) > 2시간 이상(2%) 순이었음. 대부분(88%) 1시간 이내 거리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소 결

- 주거 정책 대상이 재정착난민을 포함한 협약난민까지로 확대가 필요함. 모든 난민인정자도 공공 임대 주택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함. 2022년 인천과 김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경우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였음. 이는 추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착을 시도하는 난민 가정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건강, 주거비 절약 등을 고려하면 장점이 많음. 친족 네트워크가 없는 정착국에서 돌봄 노동의 빈곤과 수입의 한계가 있는 초기 재정착난민,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건강권, 안전권, 경제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이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자립과 사회적 비용 발생 최소화에 도움이 됨.
- 주거는 곧 정신적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자녀 양육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파악하고 자본을 축적하기까지 공공 임대 주택은 재정착난민에게 큰 도움이 됨. 사회적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착난민이 투자 가치가 적은 주택이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예: 입지 및 미래가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을 자산으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조건 충족 시, 공공 임대 주택은 낮은 월세를 내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여서 다세대 주택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음.

8. 동족사회 결속

8-1)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표 8-1] 동족들과 시간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80	12	18	11	12	3	8	6	10
	75%	100%	72%	69%	75%	100%	89%	67%	59%
아니오	27	0	7	5	4	0	1	3	7
	25%	0%	28%	31%	25%	0%	11%	33%	41%

- 함께 정착한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기, 5기의 경우 100%, 6기의 경우 89%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3기, 7기, 8기의 경우 70% 미만으로 나타남. 특히 8기의 경우 긍정이 59%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유아들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돌봄노동 몰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8기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22년 12월 말 현재 10명으로 가장 많음. 이에 비해 다른 기수는 3명 이하임.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아동의 인원 역시 14명으로 8명 미만인 다른 기수와 차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8기는 정착 초기라는 점에서 지역정착과 함께 이어지는 직장 적응, 많은 자녀들의 학교 입학,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돌봄 등에 몰입하고 있다는 점도 아직은 동족들과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보임.
- 특히 8기는 2022년 5월, 7월, 8월에 입국하여 11월, 12월, 1월에 걸쳐 지역정착을 시작했기에 타기수와 같이 안정적인 6개월의 교육 및 정착훈련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따라 4개월 혹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교육과 훈련 뒤 급하게 정착을 시작함. 이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이수를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각기 입국시기와 정

착시기가 달라 리셉션센터에서 생활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난민들 상호간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친밀감 형성 등에 있어 다른 기수들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이들은 8기뿐 아니라 2기, 3기, 4기, 7기 역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동일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지만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이들이 약 20~30%로 나타남. 2기와 3기는 민족 동질성이 가장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동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일정 비율이 나타남. 이는 개인적 특성, 일자리의 차이, 자녀양육 등 돌봄노동의 수요, 종교, 민족의 차이, 장애를 가진 자녀 혹은 가족구성원의 돌봄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추정됨. 또한 동족에 대한 이해의 차이 역시 응답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즉 카렌민족의 정착지인 부평을 제외한 김포와 시흥 거주민들의 경우 13개 민족에 기반하고 있기에 동족에 대한 이해에 있어 국적, 민족자치구역, 자치구역 내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분화된 이해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8-2) 동족의 문화나 언어 혹은 종교 등 동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표 8-2] 동족에 관한 정보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75	9	19	12	11	1	6	6	11
	70%	75%	76%	75%	69%	33%	67%	67%	65%
아니오	32	3	6	4	5	2	3	3	6
	30%	25%	24%	25%	31%	67%	33%	33%	35%

- 동족의 문화나 언어 혹은 종교와 관련된 정보를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비율이 1기(75%), 2기(76%), 3기(75%)로 높음. 그러나 동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8-1)에 대해서는 10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정보획득에 대해서는 25%가 부정적임. 이는 정착지인 한국에서 동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동족의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하는 것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 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3기(부평)는 김포(4기~7기)나 시흥(8기) 거주자들에 비해 긍정의 비율이 높음. 이는 메솟 난민캠프에서부터 10년 이상 이어진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한 깊이 있는 교류와 친분 관계를 정착국에서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카렌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기간을 보냈다는 점, 부평의 카렌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 1988년 미얀마의 8888운동 전후 대규모 난민화로 인한 이주, 2007년 샤프론 혁명 등의 시기를 지나 최근까지 4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성된 난민촌을 배경으로 거주했던 이들이라는 점, 타 소수민족에 비해 큰 규모의 민족공동체가 존재하며 초국적인 민족주의 연대가 메솟을 거점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들이 동족과의 교류, 동족에 대한 정보 획득 등에 있어 동기부여 등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됨.
- 5기의 경우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응답이 100%였지만 동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은 67%(2명)를 나타내고 있음. 동족과 다양한 이유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문화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활동은 여가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띠지만 정신적 여력과 필요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동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문화적 정보 취득과 달리 외로움, 향수의 완화나 종교공동체활동, 돌봄노동의 부족에 따른 상호부조나 생존투쟁에의 연대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행위일 수 있음. 그런 점에서 한부모가정이 많은 5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즉 돌봄과 경제활동에 몰입된 정착의 삶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5기를 제외한 김포(4기, 6기, 7기), 시흥(8기) 거주자들 역시 부평보다는 낮지만 65%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 역시 모든 기수마다 25%이상임.

8-3) 한국에 온 후 동족 기념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표 8-3] 동족 기념문화행사 참여여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62	12	20	12	9	1	2	3	3
	58%	100%	80%	75%	56%	33%	22%	33%	18%
아니오	45	0	5	4	7	2	7	6	14
	42%	0%	20%	25%	44%	67%	78%	67%	82%

- 1기는 8-1과 동일하게 동족 기념문화행사 참여도는 100%로 높게 나타남. 동족들의 문화행사 혹은 기념행사나 종교행사에 참여한 경험 역시 8-1, 8-2와

동일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단순한 동족 간 교류나 정보획득과 달리 행사 참여는 시간과 신체적 에너지, 비용 등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캠프난민인 1기~3기는 동족문화행사의 참여율이 높지만 말레이시아 도시난민인 김포(4기~7기) 및 시흥(8기)의 경우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음. 타 지역과 달리 부평(1기~3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경이 좁은 동네에 밀집되어 살고 있다는 점과 실업 상태인 성인 여성들이 다수라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김포 거주 난민들(4기~7기)의 낮은 참여율의 요인으로는 1)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점, 2)한 부모 가정이 많다는 점, 3) 비교적 가까이 살지만 부평보다는 세 지역(두 지역은 인근 지역임)에 나뉘어 거주하고 있다는 점, 4) 부평보다는 뒤늦게 정착을 시작했다는 점 등으로 볼 수 있음.
- 부평의 경우 정착 초기인 2015년부터 카렌 공동체 리더의 도움을 받아왔음.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내 카렌공동체가 형성되었고, 활동 중이었던 리더가 통역사로 1-3기의 정착을 도움. 카렌 공동체는 2018년에 좀 더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2020년 임원단을 중심으로 자립적인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는 특성이 있음. 그러나 김포의 경우 2023년 2월에 공동체가 시작되었으며 민족 동질성이 매우 낮음 등의 특성이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이유로 보임.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시흥(8기)의 경우 역시 미취학아동을 비롯해 유아들이 많다는 점, 가장 늦은 2022년 11월과 12월에 첫 정착을 시작했다는 점, 민족 동질성의 문제, 여가 시간의 여유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4)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한국 정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8-4] 동족 커뮤니티가 한국정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내용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도움됨	39	5	12	6	4	0	4	3	5
	37%	42%	48%	40%	25%	0%	44%	33%	29%
2) 전반적으로 도움됨	46	4	7	6	5	3	4	5	12
	43%	33%	28%	40%	31%	100%	44%	56%	71%
3) 도움되지 않음	17	3	5	3	6	0	0	0	0
	16%	25%	20%	20%	38%	0%	0%	0%	0%
4) 매우 도움 되지 않음	4	0	1	0	1	0	1	1	0
	4%	0%	4%	0%	6%	0%	11%	11%	0%

-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응답이 80%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기(3명), 2기(5명), 3기(3명), 4기(6명)에서 높게 나타나며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기, 4기, 6기, 7기에서 각 1명씩 나타남. 부정적인 응답은 4기에서 44%(7명)로 가장 높게 나옴. 앞선 동족의 문화나 언어 혹은 종교 등 동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있는 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1기~ 4기의 부정적인 응답률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그러나 5기, 6기, 7기, 8기에서는 동족커뮤니티와의 교류가 정착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5기나 8기의 경우 앞의 8-1~8-3 문항에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동족과의 교류가 한국사회 정착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여기서 동족이라는 단어는 부평의 카렌 민족과는 달리 김포나 시흥의 다양한 민족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범주로 해석되느냐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18%(19명)에 해당하는 1기~4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과 대비됨.
- 약 5년 이상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1기~4기(4기는 2018년 12월 입국)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는데 이는 시계열적인 정착 환경과 그간의 정착경험의 축적 등 삶의 정황 변화 혹은 관점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이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과는 달리 앞선 8-1~8-3의 문항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이는 태도는 상호간 상충되는 것처럼 보임. 이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는 별개로 종교 등 상이한 만족도나 동기부여 나아가 동족에 대한 연대의식, 책임감과 의무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동족공동체 활동이나 참여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몰입 지향이나 한국사회 동화지향 혹은 동족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한 결과 등 다양한 요인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시점에서 볼 때 김포의 경우 2023년 2월 공동체가 결성되어 김포 미얀마난민 17가정, 인천 1가정, 시흥 1가정 정도가 매월 3만원의 회비를 내며 참여중이지만 몇 개월 안된 시점이었다는 점, 시흥시 역시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지 않았고 일부 시흥 거주자들이 김포 난민 공동체에 가입한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공식적인 조직과 자원동원과 지원 등의 활동이 이미 오래된 부평과는 차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부평(1기~3기)의 경우 김포 및 시흥과 차이가 있는데 2015년부터 정착을 시작함과 동시에 카렌어 통역사 K씨를 통해 언어장벽에 직면한 이들의 통역을

통한 다양한 지원 등, 직간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고, 2018년 경에 좀 더 형식을 갖추었으며, 2020년부터 회장단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조직적인 공동체가 지속적인 형성과정을 통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민족과 언어문화적 동질성이 높다는 점은 독보적인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보임. 매월 회비를 내며 이를 통해 메솿 난민촌의 난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 대응 및 어려운 가정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 연구시점에도 16가정 정도가 자발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고 회비를 내는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는 응답자의 관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족공동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이기
에 재정착난민 정착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형성과 활동을 장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평의 예와 같이 초기부터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통역사나 기 정착자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동시에 난민 공동체의 목소리는 각각의 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됨과 동시에 난민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동체 내의 다양한 수요 혹은 난민화 된 현지 민족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초국적 정치와 자원동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됨. 앞서 부평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착국에서 발생하는 제도 밖 금융수요를 포함하여, 언어장벽의 문제, 향수를 달랠, 공동체 내의 돌봄노동 수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녀들과 성인 교육 수요, 정착국 정부에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한 요청, 정착 실태와 문제점 알리기, 정착사회와 교류하기를 통한 알리기 등 다양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8-5) 동족 사회 교류

1) 한국에 온 후, 동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편인가요?

[표 8-5-1] 동족에 대한 소속감

내용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38	7	15	8	2	0	4	1	1
	36%	64%	60%	50%	13%	0%	44%	11%	6%
보통	60	1	9	8	13	3	5	7	14
	57%	9%	36%	50%	81%	100%	56%	78%	82%
아니오	8	3	1	0	1	0	0	1	2
	8%	27%	4%	0%	6%	0%	0%	11%	12%

- 동족 사회 소속감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예, 보통)이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라고 답한 강한 긍정은 36%로 나타남. 동족사회 소속감에 대한 강한 긍정은 1기~3기에서 50%이상으로 4기~8기 보다 높게 나타남. “예” 혹은 “보통”으로 답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기존 조사 문항과 달리 1기가 73%(부정 2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로 소속감을 나타냄. 그러나 빈도수로 보면 동족사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않는다고 답한 빈도(3명)와 동일하게 나타나 기존 응답과 일관성에 있어 큰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음.
- 앞선 질문 8-4의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정착에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긍정(80%) 응답 보다 동족 사회 소속감에 대한 긍정이 13%가 높음. 동족 사회 소속감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빈도 역시 8명(8%)으로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21명(20%)에 비해 매우 낮음. 그러나 1기의 경우 8-4의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빈도 3으로 동족 사회 소속감 여부에 부정적으로 답한 빈도 3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8기의 경우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고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동족 사회 소속감 여부에 대해서는 2명(12%)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함. 이는 동족사회 소속감과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의 이익이나 도움이 별개로 구분되어 작동된다는 뜻으로 읽힘.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도움은 되기에 참여하지만 그렇다고 동족 사회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2) 동족들과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인가요?

[표 8-5-2] 동족과의 시간

	계 (106)	1기 (11)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40	8	9	8	6	0	5	2	1
	38%	73%	36%	50%	38%	0%	56%	22%	6%
보통	41	3	11	6	5	2	2	3	9
	39%	27%	44%	38%	31%	67%	22%	33%	53%
아니오	25	0	4	2	5	1	2	4	7
	24%	0%	16%	13%	31%	33%	22%	44%	41%

-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는 편인지의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 (‘예’, ‘보통’)은 77%(81명)로 8-1의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에 대한 응답(75%, 80명)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아니오’란 응답은 25명(24%)으로 나타남. 특히 부평거주 난민(1기, 2기, 3기)들의 경우 ‘예’라고 답한 비율이 타 기수들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남. 김포와 시흥 거주자들의 경우 4기(38%)와 6기(56%)에서 ‘자주 만난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답하고 있음. 특히 7기와 8기의 경우 부정 응답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 양육과 상대적으로 아직 정착 초기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8-1에 대한 응답과 비교하면 1기~3기까지는 ‘아니오’라는 선택지보다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선택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8-1의 12명에서 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4기~8기는 부정적인 응답에 있어 8-1의 답변 15명에서 19명으로 빈도가 증가함. 이는 김포와 시흥 거주자들인 4기~8기의 경우 8-1에서는 동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지만 자주 만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보임. 즉 ‘자주’나 ‘보통’이라고 답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빈도로 만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도리어 ‘아니오’를 선택한 이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부평의 카렌민족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는 뜻임.
- 상기의 결과는 부평 거주자들보다 공동체 형성을 통한 조직적인 활동의 부재로 모임 기회가 부족하거나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김포나 시흥 거주자들의 여가 시간의 빈곤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8-1의 응답과 함께 묶어서 분석하면 이러한 지역적 만남과 교류의 빈도 차이의 요인으로는 각 지역의 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차이, 해당 지역의 노동시간과 강도 차이, 종교를 비롯한 민족 공동체의 활성화, 민족의 동질성,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다양성,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차이, 가족구성의 차이 (한 부모 가정의 비율 등), 민족 가게 등의 활성화로 인한 사랑방의 존재 유무, 주거지의 밀집도, NGO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차이 등을 들 수 있음.

3) 본국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편인가요?

[표 8-5-3] 본국정보공유

	계 (105)	1기 (11)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47	9	13	10	7	0	3	2	3
	45%	82%	54%	63%	44%	0%	33%	22%	18%
보통	32	2	6	3	3	1	4	4	9
	30%	18%	25%	19%	19%	33%	44%	44%	53%
아니오	26	0	5	3	6	2	2	3	5
	25%	0%	21%	19%	38%	67%	22%	33%	29%

- 본국에 대한 정보의 상호 공유에 대해 긍정하는 답이 ‘예’와 ‘아니오’를 합하여 75%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25%로 나타남. 1기의 경우 ‘예’라고 답한 비율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기가 63%로 높게 나타남. 1기~3기에서 82%, 54%, 63%로 예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으나 4기, 6기, 7기, 8기, 5기 순으로 낮게 나옴. 부평 거주자들보다 김포와 시흥 거주자들이 낮은 비율로 ‘예’로 답하였음. 긍정적인 답변(예, 보통)의 경우 1기는 100%, 3기는 81%, 2기는 79%로 부평 거주자들이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6기 78%, 8기 71%, 7기 67%, 4기 62%, 5기 33%로 나타남. 이는 ‘메숏’이나 ‘카렌자치지구’라고 하는 동일 상주국이나 출신국 혹은 민족자치구 출신들의 정보공유 빈도나 강도가 다민족 출신들로 파편화된 김포나 시흥거주 난민들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8-2 동족의 문화, 언어,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얻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과 비교했을 때 본국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편인가에 대해 긍정하는 답이 5%(4명) 증가하였고 부정하는 답은 감소하였음. 이를 통해 고국에 대한 동족 간 대면 정보교환은 미디어 등을 통한 종교, 언어 등 문화정보 등에 대한 접근보다는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그러나 유의미하게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고 동시에 1기~3기와 4기~8기의 차이는 여기서도 8-2 등과 동일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4) 한국에 온 후 동족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표 8-5-4] 동족문화행사 참여

	계 (105)	1기 (11)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7	11	19	14	5	0	4	4	0
	54%	100%	76%	93%	31%	0%	44%	44%	0%
보통	20	0	6	0	3	1	2	1	7
	19%	0%	24%	0%	19%	33%	22%	11%	41%
아니오	28	0	0	1	8	2	3	4	10
	27%	0%	0%	7%	50%	67%	33%	44%	59%

- 동족 문화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이 73%(77명)로 높게 나타남. 1기, 2기의 경우 100%로 나타났고 3기의 경우 93%로 나타남. 다음으로 6기 66%, 7기 55%, 4기 50%, 8기 41%, 5기 33% 순으로 나타남. 문화 행사 참여 역시 1기~3기에서 93%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4기~8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 2기는 동족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는 예가 84%였지만 동족 문화행사 참석은 100%로 다른 기수와 차이를 드러냄. 2기의 경우 8-3의 동족 기념문화행사 참여도는 80% 였지만 동족 문화행사 참여도는 100%로 차이가 있음. 동족 문화행사 참석에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음. 3기 역시 기념문화행사 참여도는 75%지만 동족 문화행사 참여도는 93%로 18%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매우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음. 4기~8기의 경우 1기~3기에 비해 동족 문화행사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족 기념문화행사보다는 높은 참여도를 나타냄. 모든 기수에서 동족 기념문화행사보다는 동족 문화행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김포나 시흥의 경우 종교활동 이외에 부평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다양한 사찰, 민족 식당이나 소수민족교회의 부재나 희소성, 범민족적 공동체 활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행사 참여 기회와 접근성 자체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5)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종종 하는 편입니까?

[표 8-5-5] 본국에 있는 가족(지인)과 연락

	계 (106)	1기 (11)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2	8	17	14	7	0	2	2	2
	49%	73%	68%	88%	44%	0%	22%	22%	12%

보통	37	2	8	2	4	1	5	4	11
	35%	18%	32%	13%	25%	33%	56%	44%	65%
아니오	17	1	0	0	5	2	2	3	4
	16%	9%	0%	0%	31%	67%	22%	33%	24%

-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자주 하는 비율은 예라고 답한 49%이며 다음으로 보통이라 답한 35%로 나타나고 있음.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 역시 17명(16%)으로 결코 낮지 않음. 1기, 2기, 3기는 높은 비율로 가족이나 지인들과 연락을 하고 있으나 4기~8기는 1기~3기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가족에게 연락을 안한다고 답한 비율 역시 1기 1명, 2기 0명, 3기 0명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4기 5명(31%), 5기 2명(67%) , 6기 2명(22%), 7기 3명(33%), 8기 4명(24%)으로 높게 나타남.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연락에 있어서도 1기~3기와 4기~8기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상주국으로 거주했던 4기~8기의 경우, ‘메솿’을 경유하여 온 카렌민족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대적으로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의 단절, 가족 구성원의 상실, 타국으로의 이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8-5에서 본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비율이 4기~8기가 1기~3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8-2의 동족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획득에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높다는 점에서도 역시 동일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6) 자녀에게 본국의 문화나 언어 수업을 합니까?

[표 8-5-6] 자녀의 본국문화(언어)수업

	계 (102)	1기 (11)	2기 (21)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7	5	12	11	12	0	3	7	7
	56%	45%	57%	69%	75%	0%	33%	78%	41%
보통	26	5	4	2	2	2	3	2	6
	25%	45%	19%	13%	13%	67%	33%	22%	35%
아니오	19	1	5	3	2	1	3	0	1
	19%	9%	24%	19%	13%	33%	33%	0%	6%

- 차세대에 대한 문화 및 언어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81%로 나타났고 적극적인 참여(예)가 56%로 나타남. 기수별로 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1기 90%, 2기 76%, 3기 82%, 4기 88%, 5기 67%, 6기 66%, 7기 100%, 8기 76%가

문화 및 언어정체성 전달을 위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매우 높은 언어문화 전달 노력으로 나타남. 물론 수업의 형태는 가정에서의 문화 및 언어정체성의 전달을 위한 노력들, 공동체의 프로그램 제공, NGO의 이중언어 교실 등을 포괄하는 응답으로 추정됨.

- 문화전달을 위한 수업들의 경우 부평의 재정착난민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 운영, 교회의 절기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 및 문화공연 준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언어정체성의 전달을 위한 수업은 김포(4기~7기)의 경우 미얀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민족의 모어가 아닌 국어수업의 일환으로 주말 미얀마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들 중 일부가 참여하고 있음. 그 외 지역에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부평의 오래된 옹호단체에 문의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없다고 함. 카렌족의 경우 모어교육은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 아닌 언어정체성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정착국에서 태어난 자녀나 유아기에 동반 입국한 자녀들에게 있어 더욱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기, 2기, 3기의 경우 절대 다수가 카렌민족으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문화 및 언어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이고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기에 모어교육은 공동체와 가정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됨. 언어정체성의 경우 동족 간 소통이 카렌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에서도 역시 카렌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유지된다면 전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됨.
- 물론 부평의 카렌민족 역시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포(PWO)카렌민족과 스고(SGAW)카렌민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언어정체성이 동질적이지는 않음. 메솟의 난민 캠프에서 다수자 언어라 할 수 있는 스고카렌어를 중심으로 교과서 및 교실 교육이 이루어졌고 긴 공존의 세월속에서 서로의 언어를 익히고 소통하는 이들이 많다고 함.
- 나아가 뿌리가 같은 민족정체성에 기반해 이미 상호간 언어정체성의 교류 뿐 아니라 높은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 부평에서 포카렌어 사용가정이 소수이며 다수가 스고카렌어를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포나 시흥과 같이 언어, 문화, 민족 정체성의 다양성을 가진 커뮤니티와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언어와 문화정체성의 다양성을 가진 이주민 사회는 한국 사회의 들봄 및 교육제도 안에서 모어를 존중하는 문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김포에 거주하는 협약난민들인 줌머난민들의 모어정체성 전달 역시 부모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실패에 직면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최영일, 2019), 이는 한국어 만을 사용하라는 들봄 및 교육기관들의 개입 등 사회적 압력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보육기관 출석을 시작으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용했던 모어 사용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한국어 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생김. 결국 영어와 같은 비즈니스 언어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수민족의 언어사용 가정일수록 한국어 중심 일 언어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에 각 가정 별 모어정체성 전달 전략과 원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회적 압력으로 미얀마 재정착난민 자녀들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주장과 동시에 모어 사용을 거부 혹은 부모를 향한 모어 사용 금지를 요청하기도 함.
- 4기~8기의 경우 부평과는 달리 말레이시아를 상주국으로 거주했던 이들로 현재 정착지인 김포나 시흥 역시 소수의 다양한 민족을 가지고 정착하고 있기에 언어 및 문화전달 환경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김포와 같이 종교기관이나 NGO의 개입과 지원에 기반한 정체성 전달을 피하거나 개별 가정의 원칙과 노력, 나아가 교육과 보육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와 모어 존중의 가치가 자리잡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김포 미얀마 난민 커뮤니티와 같이 10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정체성을 가진 이주민사회에서 모어전달을 위한 외부 단체의 프로그램 지원의 한계는 불가피해 보이며 대안으로 가정별 모어교육 원칙의 수립을 비롯해 부모들의 출신국 국어 전달을 통한 친족 네트워크와의 교류 및 정체성 탐색의 기반을 제공하는 전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본국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려고 하는 편인가요?

[표 8-5-7] 본국 문화의 고유성

	계 (105)	1기 (11)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4	7	18	14	6	0	4	4	1
	51%	64%	75%	88%	38%	0%	44%	44%	6%
보통	26	4	4	2	2	1	2	1	10
	25%	36%	17%	13%	13%	33%	22%	11%	59%
아니오	25	0	2	0	8	2	3	4	6
	24%	0%	8%	0%	50%	67%	33%	44%	35%

-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에 대한 의지는 적극적인 응답이 51%, 보통이 25%로 전체 76%로 높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1기 100%, 3기 100%, 2기 92%로 1기~3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6기 66%, 8기 65%, 7기 55%, 4기 51%, 5기 33% 순으로 4기~8기는 66% 이하로 낮게 나타남.
- 상기와 같이 카렌공동체인 부평 거주자들에게서 고유한 문화보존의 의지가 높게 나타남. 카렌민족은 미얀마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민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메솓을 중심으로 40 여 년 동안 카렌 및 미얀마인들의 거주 지역을 형성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대 혹은 3대에 걸쳐 자연스럽게 문화적 정체성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풍요롭지는 않지만 메솓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생산, 전파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과는 차이가 있음. 이러한 정체성 전달의 관성이 새로운 정착지인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카렌민족의 문화정체성은 정착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세시풍속, 종교 등 소규모의 절기 행사를 통한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외 미얀마 내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김포와 시흥시 거주 미얀마인들의 경우 차이가 드러남.

8) 본국의 전통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인가요?

[표 8-5-8] 본국 전통 음식 경험

	계 (104)	1기 (11)	2기 (24)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73	10	19	14	12	1	3	7	7
	70%	91%	79%	93%	75%	33%	33%	78%	41%
보통	24	1	5	1	3	2	4	2	6
	23%	9%	21%	7%	19%	67%	44%	22%	35%
아니오	7	0	0	0	1	0	2	0	4
	7%	0%	0%	0%	6%	0%	22%	0%	24%

- 대부분 전통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1기, 2기, 3기, 4기, 7기의 경우 자주 먹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5기, 6기, 8기는 1기~3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주 먹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1기~3기와 5기의 경우 전통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4기, 6기, 8기의 경우 자주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도 나타남.

- 보통 혹은 ‘아니오’라고 답한 이들의 경우 종종 전통음식이 아닌 한국 음식이나 그 외 다양한 음식을 먹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함. 음식정체성이 세시풍속, 복식 및 언어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민족정체성 중에서 이주민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되는 특성이 있는 정체성임. 그럼에도 난민화 과정에서 요리법을 전승 받을 기회가 없었거나 이주의 과정에서 정착국 혹은 상주국이나 상주국의 음식, 혹은 간편식에 적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함. 인터뷰에서 일이 바쁠 때는 김포거주자들의 경우 간편식을 많이 먹는다고 함. 나아가 이미 동화된 자녀들의 요구, 전통 음식의 조리 경험, 레시피의 부재, 구하기 힘든 음식 재료의 유통 문제, 시간적 여유의 문제, 냄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 등의 사유로 전통음식을 재현할 여유가 없는 환경을 반영하기도 함.

8-6) 한국에서 모국의 문화를 1주일에 어느 정도나 접하고 있습니까?

1) 모국관련 신문, 책, 잡지

[표 8-6-1] 모국관련 신문,책 잡지

	계 (99)	1기 (10)	2기 (23)	3기 (15)	4기 (15)	5기 (0)	6기 (9)	7기 (8)	8기 (16)
매일(7)	15	2	1	6	2	0	1	2	1
	15%	20%	4%	40%	13%	0%	11%	25%	6%
5-6회	6	0	1	1	1	0	2	0	1
	6%	0%	4%	7%	7%	0%	22%	0%	6%
3-4회	9	1	4	0	1	0	0	0	3
	9%	10%	17%	0%	7%	0%	0%	0%	19%
1-2회	22	2	5	2	4	0	3	2	4
	22%	20%	22%	13%	27%	0%	33%	22%	24%
없음	47	5	12	6	7	3	3	4	7
	47%	50%	52%	40%	47%	100%	33%	50%	44%

- 모국관련 신문, 책, 잡지의 경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용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용하는 이들의 비율이 53%로 적지 않은 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주당 1~2회 이용자들이 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일 이용자들 또한 15%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매일 접하는 비율은 3기가 40%로 가장 높으며 7기(25%), 1기(20%) 순으로 이용률이 높음. 부정적인 응답으로는 5기로 이용하지 않음이 100%로 다른 지표들에 대한 응답과 일관되게 고단하고 여유 없는 생존투쟁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긍정적인 지표와는 별개로 부정적인 지표 역시 모든 기수에서 높게 나

타나고 있음. 이러한 부정적인 지표는 가장 역동적으로 국내 미얀마인들이 들고 나는 지역이며 장기간 미얀마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부평지역도 예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이 문항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지역 특성, 민족 특성, 기수 특성과 상관없이 유사한 정도로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또한 한국 사회 이주민 밀집지역이 여전히 이주민 문화 콘텐츠의 유통이나 다양성 확보에 있어 제한적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또한 이주민들의 정체성의 다양성에 걸맞는 상호문화사회의 관점에 기반한 다양성의 권장, 다양성에 대해 다양한 정체성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도서관의 활성화 등을 통한 더욱 활발한 이주민 문화 콘텐츠의 제도적 공급과 유통이 필요함. 나아가 소수민족의 경우 본국이나 민족단위에서 문화 콘텐츠 생산이나 수요에 있어 다수자 민족과 달리 질이나 양에 있어서 풍부하지 않기에 정착지에서 자신들의 문화 혹은 정체성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환경 조성과 프로젝트 활성화 또한 요청됨. 이를 통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정착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혼종적으로 누리며 건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정착 사회에 혼종적 문화의 생산과 전파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모국관련 영화, 드라마, 음악

[표 8-6-2] 모국관련 영화, 드라마, 음악

	계 (101)	1기 (10)	2기 (24)	3기 (16)	4기 (15)	5기 (3)	6기 (9)	7기 (8)	8기 (16)
매일(7)	15	1	5	6	0	0	1	1	1
	15%	10%	21%	38%	0%	0%	11%	13%	6%
5-6회	8	2	2	1	2	0	0	0	1
	8%	20%	8%	6%	40%	0%	0%	0%	6%
3-4회	19	2	5	2	4	0	0	1	5
	19%	20%	21%	13%	27%	0%	0%	13%	31%
1-2회	34	3	7	7	4	0	4	3	6
	34%	30%	29%	44%	27%	0%	44%	38%	38%
없음(0)	25	2	5	0	5	3	4	3	3
	25%	20%	21%	0%	33%	100%	44%	38%	19%

- 영화, 드라마, 음악의 이용도는 일주일에 1~2회 이용률이 34%(34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15%(15명)이며 그 중에서 기수별로 보면 3기가 가장 높은 38%(6명)이며 전체적으로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도 25%(25명)지만 3기의 경우 100%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3기의 높은 이용률은 앞서 응답한 잡지, 신문, 책 이용도에서도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40%(6명)로 가장 높았으며 빈도수는 6명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의 매일 이용 빈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3) 모국과의 전화

[표 8-6-3] 모국과의 전화

	계 (98)	1기 (10)	2기 (24)	3기 (13)	4기 (15)	5기 (3)	6기 (9)	7기 (8)	8기 (16)
매일(7)	15	1	7	4	3	0	0	0	0
	15%	10%	29%	31%	20%	0%	0%	0%	0%
5-6회	3	0	0	0	1	0	0	0	2
	3%	0%	0%	0%	7%	0%	0%	0%	13%
3-4회	19	2	4	1	3	0	2	3	4
	19%	20%	17%	8%	20%	0%	22%	38%	25%
1-2회	43	6	12	7	4	1	3	3	7
	44%	60%	50%	54%	27%	33%	33%	38%	44%
없음(0)	18	1	1	1	4	2	4	2	3
	18%	10%	4%	8%	27%	67%	44%	25%	19%

- 모국과의 전화 이용은 주당 1~2회 이용이 44%(43명)로 가장 높았으며 주당 3~4회(19%), 매일 15%(15명)로 나타났는데 매일 전화하는 이들은 1기, 2기, 3기, 4기 중에서만 나타남. 비교적 초기 정착자들 중에서만 매일 전화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계열적인 차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5기~8기는 상대적으로 전화 빈도가 낮았는데 그 중에서는 8기가 주 5~6회 전화하는 사람이 2명으로 높음. 5기의 경우 전화를 주 1~2회 하는 사람 1명 외에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메솟을 중심으로 한 카렌난민의 상주국 환경과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의 가족이나 친족이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소수민족 자치 지구와의 인터넷 환경, 정치사회적 환경 등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모국과의 전화를 하지 않는 수치와 비례하여 가족이나 친족 등의 상실 혹은 관계의 단절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동시에 고단한 일상을 반영하기도 함. 메

소년민캠프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카렌민족(1, 2, 3기)은 전화이용빈도가 높고 단 1회도 전화를 하지 않는 비율이 타 기수와 비교해 낮음. 반면 4기~8기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는 비율이 1기~3기에 비해 높은 19%에서 67%로 나타남.

4) 인터넷을 통한 모국 뉴스

[표 8-6-4] 인터넷을 통한 모국 뉴스

	계 (99)	1기 (10)	2기 (24)	3기 (15)	4기 (15)	5기 (3)	6기 (9)	7기 (8)	8기 (15)
매일(7)	23	1	4	6	1	0	4	2	5
	23%	10%	17%	40%	7%	0%	44%	25%	33%
5-6회	4	2	1	0	1	0	0	0	0
	4%	20%	4%	0%	7%	0%	0%	0%	0%
3-4회	19	1	4	2	6	0	1	0	5
	19%	10%	17%	13%	40%	0%	11%	0%	33%
1-2회	37	5	11	3	5	1	3	6	3
	37%	50%	46%	20%	33%	33%	33%	75%	20%
없음(0)	16	1	4	4	2	2	1	0	2
	16%	10%	17%	27%	13%	67%	11%	0%	13%

-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읽기는 84%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기수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1~2회 이용도가 37%로 가장 높으며 매일 이용하는 이들 역시 23명(23%)으로 나타남. 신문이나 잡지 이용도보다는 높음. 기수별로 보면 5기의 활용도가 가장 낮고 1회 이상을 기준으로 1기와 7기의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매일 활용도는 3기와 6기가 높음. 특히 3기의 경우 신문, 잡지, 책의 매일 활용도 및 드라마, 영화, 음악의 매일 활용도 및 전체 활용도에서도 가장 높음.

5) 모국의 음식

[표 8-6-5] 모국의 음식

	계 (97)	1기 (9)	2기 (23)	3기 (15)	4기 (15)	5기 (3)	6기 (8)	7기 (8)	8기 (16)
매일(7)	49	5	12	9	8	0	4	4	7
	51%	56%	52%	60%	53%	0%	50%	50%	44%
5-6회	4	0	2	1	1	0	0	0	0
	4%	0%	9%	7%	7%	0%	0%	0%	0%

3-4회	18	2	2	1	2	0	3	1	7
	19%	22%	9%	7%	13%	0%	38%	13%	44%
1-2회	20	2	6	3	3	2	0	3	1
	21%	22%	26%	20%	20%	67%	0%	38%	6%
없음(0)	6	0	1	1	1	1	1	0	1
	6%	0%	4%	7%	7%	33%	13%	0%	6%

- 매일 모국의 음식을 먹는 비율이 5기를 제외하면 5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회 이상 먹는 사람이 21%, 3~4회이상 19%로 나타남. 1기와 7기를 제외하고 1회도 먹지 않는 사람들도 각 기수마다 1명씩 존재하나 95% 이상이 1~2회 이상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모국의 음식을 매일 먹지 않는 49%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 1일 내지 6일 정도는 모국의 음식이 아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 같은 결과는 8-5의 전통음식을 자주 먹는 편인가에 대한 응답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응답 비율이 7%(7명)로 유사한 빈도로 나타남.
- 상기 8-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화, 이주, 정착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음식정체성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의 강한 동화 압력의 정도 등에 따라 차세대들의 음식정체성 역시 변화 혹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6) 모국에 있는 동료와 친구 소식

[표 8-6-6] 모국에 있는 동료와 친구 소식

	계 (98)	1기 (10)	2기 (24)	3기 (15)	4기 (15)	5기 (3)	6기 (8)	7기 (8)	8기 (15)
매일(7)	18	2	6	5	0	0	1	1	3
	18%	20%	25%	33%	0%	0%	13%	13%	0%
5-6회	3	0	1	0	1	0	0	0	1
	3%	0%	4%	0%	7%	0%	0%	0%	7%
3-4회	17	3	3	2	3	0	2	1	3
	17%	30%	13%	13%	20%	0%	25%	13%	20%
1-2회	35	3	13	6	3	0	1	5	4
	36%	30%	54%	40%	20%	0%	13%	63%	27%
없음(0)	25	2	1	2	8	3	4	1	4
	26%	20%	4%	13%	53%	100%	50%	13%	27%

- 모국의 동료나 친구와 1주일에 1~2회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 번도 접하지 않는 비율이 26%임. 매일 동료와 친구의 소식에 접근하는 비율에 있어서 1기(80%), 2기(96%), 3기(87%), 7기(87%), 8기(73%)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기(53%), 5기(100%), 6기(50%)의 경우 50% 이상이 1회도 소식을 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5기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지만 동료나 친구와의 소식 교류는 1주일에 1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 결

- 동족사회의 결속은 기수와 정착 지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함께 정착한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동족 사회 소속감. 모국과 관련된 문화, 종교, 언어 관련 정보 획득 역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수별로 차이는 드러나며 특히 1기~3기는 매우 높게 나타나면 4기~8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차이의 요인으로는 각 지역의 정착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차이, 해당 지역의 노동시간과 강도 차이, 종교를 비롯한 민족 공동체의 활성화, 민족의 동질성,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다양성,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수요의 차이, 가족구성의 차이(한 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가족 등), 민족 가게 등의 활성화로 인한 사랑방의 존재 유무, 주거지의 밀집도, NGO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이 외에도 모국의 동족사회의 교류 등에도 기수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는 난민화로 인한 가족이나 친족 등의 상실 혹은 관계의 단절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동시에 고단한 정착과정의 일상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고유한 문화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문화적 수용이 균형을 이룰 때 성공적이고 건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정착난민들의 동족사회 결속은 차이는 있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계열적으로 1기~4기와 같이 오랜 기간 정착기를 보내고 있는 기수들에서도 소속감이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민화에 따른 이주와 정착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민족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의 변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의 동화 압력의 정도 등에 따라 차세대들의 문화정체성과 언어정체성 및 음식정체성 역시 변화 혹은 정체성의 동화 혹은 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재정착난민들의 정체성의 다양성에 걸맞는 상호문화 사회의 관점에 기반한 다양성의 권장과 더불어 다양한 정체성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정과 지원이 요청됨. 특히 동족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재정착난민 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장려하고 부평의 예와 같이 초기부터 지원이 필요함.
- 난민 공동체는 각각의 난민들의 목소리 통로가 됨과 동시에 난민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초국적 정치와 디아스포라 연대, 나아가 자원동원을 이루며, 공동체 내의 다양한 수요와 난민화 된 현지 민족사회의 수요와 정착 지역사회 통합에 대응하는 소통 채널 및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됨. 줌머난민의 한국사회정착과정¹³⁾(최영일, 2019)에서 줌머난민들은 재한줌머인연대를 결성하여 그들의 세시풍속중의 하나인 설날잔치인 ‘보이사비’를 활용하여, 무대 위에 올린 민족정체성을 통한 농도 짙은 민족정체성의 확인, 차세대를 향한 정체성의 전달, 난민인정투쟁, 한국인 선주민 사회와의 상호교류, 네트워크 확장과 자원동원의 활성화, 초국적 정치, 디아스포라 연대, 아(sub)민족 간의 통합의 기능 등의 목적들을 달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음. 난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착국인 한국사회의 난민정착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들로 자리매김할 것임.

9. 언어와 문화

9-1) 한국어 수준

[표 9-1] 한국어 수준

내용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전혀 못함	7 7%	1 8%	2 8%	1 6%	0 0%	0 0%	0 0%	1 11%	2 12%
2) 조금	45 42%	4 33%	8 33%	7 44%	7 44%	1 33%	2 22%	5 56%	11 65%
3) 물건을 사거나 약간	21 20%	2 17%	3 13%	1 6%	6 38%	0 0%	3 33%	2 22%	4 24%

13) 줌머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최영일, 2019),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보통	31	5	11	6	3	2	3	1	0
	29%	42%	46%	38%	19%	67%	33%	11%	0%
5) 유창함	2	0	0	1	0	0	1	0	0
	2%	0%	0%	6%	0%	0%	11%	0%	0%

- 재정착난민 전체의 한국어 구사 수준은 ‘보통’ 이하로서, ‘아주 조금’ 또는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에 42%, 물건을 사거나 약간의 회화가 가능한 수준에 20%,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보통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29% 분포됨.
- 기수별로는 한국에 거주한 기간 및 출신에 따라 1기~3기, 4기~6기, 7기~8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1기~6기와 7기~8기 사이에는 정착기간의 장단에 따른 차이점이 확연하고, 1기~3기와 4기~6기 사이에는 정착기간 뿐 아니라 캠프난민과 도시난민이라는 출신에 따른 차이점이 관찰됨.
-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국 정착기간이 가장 짧은 7기와 8기에서 각각 67%, 77%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정착기간이 가장 긴 1기, 2기, 3기, 4기에서 각각 41%, 41%, 50%, 4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5기와 6기에서는 각각 33%, 22%로 낮게 나왔고, 또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기~3기에는 6%~8% 존재하고 있음에 반하여 4기~6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1기~3기와 4기~6기 사이에는 정착기간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이 관찰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구사의 수준이 단지 정착기간의 경과 연수라는 시간에 대한 변수일 뿐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의 정착의지와 능력에 대한 변수임을 보여준 것으로서, 1기~3기가 태국에서 먼저 온 난민촌 출신이며, 4기~6기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중에 온 도시난민 출신임을 고려하면 도시난민들이 캠프난민들보다 더 높은 언어적응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결과로 보임.
-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3기의 일상 회화가 가능하다는 비율은 의미 있게 증가한 반면 약간 할 수 있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거의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퇴보적 결과가 나왔는데(이호택, 2018), 시간이 경과하면서 캠프난민들의 한국어 구사의 수준이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 집단이 기대하는 만큼 언어에 진보가 없고 정체되면서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의 언어 수준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한 까닭으로 해석됨.

9-2) 한국인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표 9-2] 한국인과 대화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1	6	12	6	10	0	8	2	7
	48%	50%	50%	38%	62%	0%	89%	22%	41%
아니오	55	6	12	10	6	3	1	7	10
	52%	50%	50%	62%	38%	100%	11%	78%	59%

- 한국인과의 정기적인 대화 역시 기수별 차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착기간의 경과연수 및 출신에 따라 1기~6기와 7기~8기 사이에는 시간의 변수가, 1기~3기와 4기~6기 사이에는 출신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이 관찰됨.
- 난민들이 처음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한국인이란 멘토나 KIIP 한국어강사 또는 적십자나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의 봉사자들 혹은 직장동료일 수 있고, 정착기간이 길어지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한국인 친구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정착기간이 주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기수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한국인과의 정기적 대화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각 기수별 또는 개인별 형편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최근에 입국한 기수인 7기와 8기에서 한국인과의 정기적 대화율이 낮은 것은 아직 한국인과의 사회적 연결이 구축되지 못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지만, 정착기간이 오래된 1기~3기의 비율이 비교적 짧은 4기와 6기보다 낮게 나온 것은 난민캠프 출신인 1~3기가 도시간민출신인 4~6기보다 대화를 통한 한국사회와의 연결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보여줌.
- 같은 도시간민출신 가운데 5기는 응답한 3명 전원이 한국인과 정기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3명이 종사하고 있는 동일 사업장의 특성으로 보임. 제조업으로 수렴하는 재정착난민들이 직장 내에서 한국인과 함께 일하지 않고 주로 E-9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노동자들과 일을 하는 환경이기에 한국인과 대화를 통해 언어발달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임. 특히 김포처럼 2021년 산업조사 기준 10인 미만 제조업체가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있고 2023년 9월말 현재 13,780명의 고용허가제 인력이 주로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한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 김포거주 재정착 난민들 여러 명이 일하고 있는 식품회사와 같이 한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에서 같이 종사하고 있는 업체나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한다면 한국인과의 대화 기회는 조금 더 확보되고 한국어 능력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3D업종에서 잔업까지 장시간 노동을 마치고 퇴근 후 가사노동까지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교육참여나 한국인과의 교류의 기회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은 육아노동과 가사노동의 감소를 통해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조사 결과 (2018, p.189.)와 비교할 때 1기는 60%에서 50%로, 2기는 75%에서 50%로, 3기는 40%에서 38%로 각각 오히려 한국인과의 정기적 대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캠프난민출신 그룹에서 한국인과의 대화보다 민족그룹간의 대화로 결속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한국어학습의 골든타임 경과와 한국어 수준의 정체로 인한 의욕상실, 한국인 멘토의 부재, 실업자의 경우 가정에서 고립되고 취업자의 경우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동료노동자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한국인이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보임.

9-3) 추석 또는 광복절과 같은 한국기념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표 9-3] 한국 기념일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69	12	16	9	11	1	6	5	9
	65%	100%	67%	56%	69%	33%	67%	56%	53%
아니오	37	0	8	7	5	2	3	4	8
	35%	0%	33%	44%	31%	67%	33%	44%	47%

- 추석과 같은 한국의 명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한국의 기념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65%가 알고 있으며, 8년이 경과한 1기는 전원이 알고 있고, 2기부터 6기까지는 대체로 알고 있으며, 7기와 8기는 절반 정도가 알고 있음.¹⁴⁾
- 2018년 조사에서는 2기와 3기가 각각 94%, 80% 알고 있었는데(이호택,2018)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67%, 56%로 오히려 하락한 결과가 나왔음. 출입국·외

14) 영문 설문은 celebrate으로 되어 있어, 알고있지만 기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음

국민지원센터를 수료한 후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는 지역사회나 미디어에서 다소 단절되어 한국의 명절과 기념일을 단순히 휴일로 인식할 뿐 그 의미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결과로 보임.

9-4)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언어사용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표 9-4] 가족 및 친구들과의 언어사용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모국어(본국에서 주로 사용한 언어)로만 이야기 한다	58	9	16	13	2	1	5	5	7
	54%	75%	64%	81%	13%	33%	56%	56%	41%
2) 대체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28	0	5	0	8	2	2	4	7
	26%	0%	20%	0%	50%	67%	22%	44%	41%
3) 한국어와 모국어를 반반 사용하고 있다	20	3	4	3	6	0	1	0	3
	19%	25%	16%	19%	37%	0%	11%	0%	18%
4) 대체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1%	0%	0%
5) 한국어로만 이야기 한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한국의 재정착난민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 절반이 넘는 54%가 모국어로만 이야기한다 하였고, 대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26%, 한국어와 모국어를 반반 사용하는 비율이 19%이고, 대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1건(6기의 20대초 남자) 있었음.
- 여기서 모국어는 먼저 질문에서 제시한 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각민족의 모어라고 볼 수 있으나 부평의 카렌족과 달리 김포의 미얀마재정착난민들의 공동체에서는 가정 내 혹은 동족 간 사용하는 언어는 민족어가 될 것이고 타 민족 간 대화는 미얀마어 혹은 한국어를 보충어로 사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모어나 미얀마어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들의 경우 영어 혹은 한국어를 사용해 표현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족내혼, 족외혼 가정, 동족 친구간 혹은 타 민족 친구간, 부평과 김포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면(이호택,2018) 모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1기, 2기, 3기에서 각각 30%, 25%, 50%이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50%, 44%, 30%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모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특히 정착기간이 오래된 1기~3기에서 모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재정착난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난민들이 한국어 사용과 한국어 학습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익숙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언어중재자로서 통역의 역할을 하고 성인들은 한국어사용이 정제된 결과로 보임.
- 남녀 간 성비에 관하여는 모국어만 사용하거나(남:여=20:38) 대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룹에서(남:여=9:19)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반반 사용하는 그룹(남:여=11:9)과 대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룹(남=1)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와 가정에 머무르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에 비하여 모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조사 당시(이호택,2018), 대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룹과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 사용하는 그룹의 남녀 간 성비는 대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주로 초등학생 그룹의 자녀들이 점차 한국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상대하는 여성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중고등학생 이상의 장성한 자녀들이 많은 대가족이거나 너무 어린 자녀들만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편안한 모국어만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여성들의 한국어 사용이 약화된 것을 보면 가정내에서 한국어 소통책임이 여성들에게서 자녀들 자신에게로 넘어가고 여성들의 한국어 구사동기는 정제되거나 퇴보한 것으로 판단됨.

9-5) KIIP 단계 15)

9-5-1) 센터에서 나올 때 KIIP 한국어 수업 몇 단계를 마쳤습니까?

[표 9-5-1] KIIP 한국어 수업 단계

내용	계 (102)	1기 (12)	2기 (21)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1단계	22	3	3	6	0	0	0	2	8
	22%	25%	14%	40%	0%	0%	0%	22%	47%
2) 2단계	29	4	5	3	3	2	1	2	9
	28%	33%	24%	20%	19%	67%	11%	22%	53%
3) 3단계	15	1	0	0	4	0	6	4	0
	15%	8%	0%	0%	25%	0%	67%	44%	0%
4) 4단계	26	2	8	4	8	1	2	1	0
	25%	17%	38%	27%	50%	33%	22%	11%	0%
5) 5단계	10	2	5	2	1	0	0	0	0
	10%	17%	24%	13%	6%	0%	0%	0%	0%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사회통합운영기관으로서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me)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재정착난민들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시 수료한 한국어능력의 단계는 개인차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임.
- 1,2,3기의 경우에는 5단계까지 수료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후 기수로 갈수록 수료단계가 점점 낮아졌고, 가장 최근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퇴소하고 시흥에 정착한 8기의 경우 대부분 낮은 단계인 1단계나 2단계 수료에 그침.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8기가 세 차례로 나누어 입소하고 방역지침으로 강사들의 출입과 마스크 강제도 쉽지 않았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도 4개월까지 단축되기도 한 결과로 보임.

9-5-2) 현재 KIIP 한국어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표 9-5-2] 한국어 수업 지속 여부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20	1	2	4	1	0	1	1	10
	19%	8%	8%	25%	6%	0%	11%	11%	59%
아니오	86	11	22	12	15	3	8	8	7
	81%	92%	92%	75%	94%	100%	89%	89%	41%

15)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 한국문화)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정착지에서 KIIP 한국어교육은 경기글로벌센터, 어울림 이끌림,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김포이주민센터 등 가까운 사회통합운영기관에서 여건과 수준에 따라 계속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19%의 사람들만 KIIP 한국어수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81%의 사람들은 KIIP 한국어수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한국어수업을 지속하고 있는 20명에 5단계까지 완료한 10명을 추가하더라도 한국어수업 참여율은 28%(30/107)로서, 2018년 조사당시 1,2,3기의 경우 83.3%가 수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5단계까지 목표과정을 마쳤던 것에 비하면(2018, p.192.) 저조한 상태로 나타남.
- 언어와 문화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이 필요한데 8기의 경우 59%가 KIIP 한국어수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7기 이전 기수에서는 11%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KIIP 한국어수업 참여를 포함한 지역사회정착지원이 출입국·외국인센터에서 퇴소한 후 1년 동안만 지속된 후 점차 약화되고, 외국인비자점수제로 KIIP를 수강하려는 외국인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KIIP 수강신청을 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하루 8시간 꼬박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 지속방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재수강을 하면 5단계까지 자동 승급이 되는 규정이 적용되다가 2020년 7월 1일 이후 교재내용의 난이도 및 단계평가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승급 규정이 개정되면서 2, 3, 4단계까지는 60점 이상 합격하거나 재수강시엔 승급이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 5단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단계 평가에서 60점 미만일 경우 재수강을 해도 최저 점수제 적용으로 41점 이상 득점 시에만 승급이 가능하게 됨. 최저점수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4단계 재수강 이후 승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수강생들이 증가하게 됨.
- 상기와 같은 승급의 어려움, 신청에 있어 경쟁심화로 등록의 어려움, 노동시장에 신체적 적응, 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토픽중심 학습을 통해 토픽시험에 따른 획득 등급을 근거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상위단계로 바로 승급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한 난민들도 있음.

9-5-3) 계속하고 있다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표 9-5-3] 현재 하고 있는 KIIP 단계

내용	계 (19)	1기 (0)	2기 (2)	3기 (4)	4기 (1)	5기 (0)	6기 (1)	7기 (1)	8기 (10)
1) 1단계	1	0	1	0	0	0	0	0	0
	5%	0%	50%	0%	0%	0%	0%	0%	0%
2) 2단계	7	0	0	1	0	0	0	0	6
	37%	0%	0%	25%	0%	0%	0%	0%	60%
3) 3단계	4	0	0	0	0	0	0	0	4
	21%	0%	0%	0%	0%	0%	0%	0%	40%
4) 4단계	5	0	1	1	1	0	1	1	0
	26%	0%	50%	25%	100%	0%	100%	100%	0%
5) 5단계	2	0	0	2	0	0	0	0	0
	11%	0%	0%	50%	0%	0%	0%	0%	0%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수료 후 지속되는 KIIP수업단계는 주로 8기의 경우와 같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마친 과정에 이어 1년간 2단계 혹은 3단계의 수업을 계속하는 경우이고 이후에는 개인별로 자신의 수준에 따른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

9-5-4)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있다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9-5-4] 한국어공부를 계속하지 않는 이유

KIIP 공부를 계속하지 않는 이유	계 (79)	1기 (11)	2기 (21)	3기 (11)	4기 (14)	5기 (3)	6기 (7)	7기 (5)	8기 (7)
1)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31	7	3	3	5	3	6	3	1
	39%	64%	14%	27%	36%	100%	86%	60%	14%
2)해당 기관이 너무 멀어서	3	0	0	0	2	0	0	0	1
	4%	0%	0%	0%	14%	0%	0%	0%	14%
3)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25	4	11	6	2	0	1	0	1
	32%	36%	52%	55%	14%	0%	14%	0%	14%
4)필요한 만큼 이미 교육을 다 받아서	5	0	4	0	1	0	0	0	0
	6%	0%	19%	0%	7%	0%	0%	0%	0%
5)자녀를 돌보느라	10	0	0	0	4	0	0	2	4
	13%	0%	0%	0%	29%	0%	0%	40%	57%
6)기타	5	0	3	2	0	0	0	0	0
	6%	0%	14%	18%	0%	0%	0%	0%	0%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 KIIP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첫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9%), 둘째 공부 너무 어려워(32%), 셋째 자녀양육 때문(13%)이라고 함.
- 기수별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새로 들어온 8기와 7기에서 자녀양육의 비중이 각 57%, 40%로 높았고, 이상 주요 이유 이외에 4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과의 거리(14%), 2기에서는 필요한 만큼 이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19%)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나타남.
- 기타 이유는 고3이라, 신청기간이 지나서, 일하느라, 코로나 때문 등.

9-6) KIIP 이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표 9-6] KIIP 외 한국어 교육 참여 여부

내용	계 (104)	1기 (12)	2기 (23)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아니오	89	11	19	13	15	3	5	8	15
	86%	92%	83%	87%	94%	100%	56%	89%	88%
2) 학원	5	0	1	0	0	0	3	0	1
	5%	0%	4%	0%	0%	0%	33%	0%	6%
3) 과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커뮤니티 센터	3	1	1	0	1	0	0	0	0
	3%	8%	4%	0%	6%	0%	0%	0%	0%
5) 온라인 강의	5	0	1	2	0	0	1	1	0
	5%	0%	4%	13%	0%	0%	11%	11%	0%
6) 기타	2	0	1	0	0	0	0	0	1
	2%	0%	4%	0%	0%	0%	0%	0%	6%

- 전체의 86%가 KIIP이외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없지만, 학원과 온라인 강의에 각각 5%,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3%가 참여하고 있으며, TOPIK 한국어능력시험공부와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도 각각 1건이 있었음.

9-7) 자녀와의 언어적 격차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나요?

9-7-1) 자녀와의 한국어 격차

[표 9-7-1] 자녀와의 한국어 격차

자녀와의 한국어 격차	계 (73)	1기 (8)	2기 (15)	3기 (9)	4기 (12)	5기 (3)	6기 (5)	7기 (8)	8기 (13)
1) 없음	11	4	5	3	0	0	0	1	0
	15%	50%	33%	33%	0%	0%	0%	13%	0%
2) 조금	8	2	1	0	4	0	2	1	3
	11%	25%	7%	0%	33%	0%	40%	13%	23%
3) 보통	15	1	3	3	3	1	1	2	8
	21%	13%	20%	33%	25%	33%	20%	25%	62
4) 큼	8	0	0	1	5	1	1	3	2
	11%	0%	0%	11%	42%	33%	20%	38%	15%
5) 매우 큼	8	1	6	2	0	1	1	1	0
	11%	13%	40%	22%	0%	33%	20%	13%	0%

9-7-2) 자녀와의 모국어 격차

[표 9-7-2] 자녀와의 모국어 격차

자녀와의 모국어 격차	계 (73)	1기 (8)	2기 (15)	3기 (9)	4기 (12)	5기 (3)	6기 (5)	7기 (8)	8기 (13)
1) 없음	14	0	5	3	0	0	2	2	2
	19%	0%	33%	33%	0%	0%	40%	25%	15%
2) 조금	13	1	0	4	4	0	0	1	3
	18%	13%	0%	44%	33%	0%	0%	13%	23%
3) 보통	18	0	5	0	2	1	2	2	6
	25%	0%	33%	0%	17%	33%	40%	25%	46%
4) 큼	17	5	1	1	6	0	0	2	1
	23%	63%	7%	11%	50%	0%	0%	25%	8%
5) 매우 큼	11	2	4	1	0	1	1	1	1
	15%	25%	27%	11%	0%	33%	20%	13%	8%

- 조사 결과 8기에서 1기로 갈 수록, 정착기간이 오래된 기수로 갈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한국어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모국어 격차는 늘어나는 특징이 관찰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부모들과 자녀들이 모두 한국어 소통에 원활하게 되는 반면 자녀들은 모국어 사용이 줄어들어 부모와 모국어 소통이 어렵게 되기 때문임. 줌머난민의 정착과정(최영일, 2019)에서도 줌머난민의 자

녀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부터 모어 발음이 변하거나, 집에서도 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어로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어로 답하는 등 모어정체성 전달에 어려움 내지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늦추는 등 차세대에게 모어 전달을 위한 전략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동시에 모어사용의 장벽들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모어사용보다 한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문화 역시 모어정체성 전달을 저해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모어정체성 전달의 중요성과 모어존중문화의 확산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1기, 2기, 3기의 경우에도 2018년 조사당시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기수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한국어격차는 줄어들었고 모국어격차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호택, 2018)

[표 9-7-3] 2018/ 2023의 1-3기의 자녀와 한국어격차 비교

자녀와의 한국어격차		없음	조금	보통	큼	매우 큼
1기	2018	0%	13%	13%	13%	63%
	2023	50%	25%	13%	0%	13%
2기	2018	0%	14%	36%	21%	29%
	2023	33%	7%	20%	0%	40%
3기	2018	0%	0%	20%	20%	60%
	2023	33%	0%	33%	11%	22%

[표 9-7-4] 2018/ 2023의 1-3기의 자녀와 모국어격차 비교

자녀와의 모국어격차		없음	조금	보통	큼	매우 큼
1기	2018	37%	50%	0%	13%	0%
	2023	0%	13%	00%	63%	25%
2기	2018	50%	0%	29%	14%	0%
	2023	33%	0%	33%	7%	27%
3기	2018	50%	0%	40%	10%	0%
	2023	33%	44%	0%	11%	11%

9-8) 한국어 공부에 있어 어려운 점 혹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표 9-8] 한국어 공부 개선사항

내용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회화위주로 공부하고 싶다	40	1	3	6	7	0	5	3	15
	38%	8%	13%	38%	44%	0%	56%	33%	88%
2) 단어를 외우기가 어렵다	46	9	15	8	5	1	3	3	2
	44%	75%	65%	50%	31%	33%	33%	33%	22%
3) 수업시간이 주말에 있으면 좋겠다	12	2	2	1	3	2	1	1	0
	11%	17%	9%	6%	19%	67%	11%	11%	0%
4) 기타	7	0	3	1	1	0	0	2	0
	7%	0%	13%	6%	6%	0%	0%	22%	0%

- 한국어공부의 어려움이나 개선점에 관하여 단어를 외우기가 어렵다는 점과 회화위주로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별히 나중에 온 8기 쪽으로 갈 수록 회화위주로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고 먼저 온 1기 쪽으로 갈 수록 단어를 외우기 어렵다는 비율이 높았음.
- 2018년 조사당시에도 30명의 응답자 중 25명이 문법이나 책으로 공부하지 말고 말하기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이호택, 2018)

9-9) 한국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습니까?

[표 9-9] 한국음식에 대한 빈도

내용	계 (106)	1기 (11)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일 먹는다	37	2	7	3	10	3	3	1	8
	35%	18%	28%	19%	63%	100%	33%	11%	47%
2) 자주 먹는 편이다	21	5	4	2	2	0	5	2	1
	20%	45%	16%	13%	13%	0%	56%	22%	6%
3) 가끔 먹고 있다	42	3	12	10	4	0	1	5	7
	40%	27%	48%	63%	25%	0%	11%	56%	41%
4) 거의 먹지 않는다	5	1	2	1	0	0	0	0	1
	5%	9%	8%	6%	0%	0%	0%	0%	6%
5) 아예 먹지 않는다	1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11%	0%

- 문화적 요소 중 음식에 관하여는 한국음식을 가끔 먹는다는 비율이 40%로 가장 높지만 매일 먹는다는 35%와 자주 먹는다는 20%를 합치면 전체 55%가 한국음식을 자주 먹는 편이어서 음식에 관하여는 적용에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한국음식을 좋아하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각 기수 별로 한국음식을 좋아하게 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즉 매일 먹거나 자주 먹는 사람의 비율을 합한 것은 1기로부터 8기에 이르기까지 각각 63%(1기), 44%(2기), 32%(3기), 76%(4기), 100%(5기), 89%(6기), 33%(7기), 53%(8기)로서 기수 간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호의 변화추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음식은 오래 형성된 기호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개인적 기호라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 결과로 판단됨. 한국음식을 매일 먹는다는 사람의 연령과 성별도 다양함.

9-10)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고 실천하십니까?

[표 9-10]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102	12	24	15	15	3	8	8	17
	95%	100%	96%	94%	94%	100%	89%	89%	100%
아니오	5	0	1	1	1	0	1	1	0
	5%	0%	4%	6%	6%	0%	11%	11%	0%

-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하여는 95%가 그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음.

9-11)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표 9-11] 온라인 쇼핑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69	6	13	4	13	2	7	8	16
	65%	50%	52%	27%	81%	67%	78%	89%	94%
아니오	37	6	12	11	3	1	2	1	1
	35%	50%	48%	73%	19%	33%	22%	11%	6%

- 전체의 65%가 온라인 쇼핑방법을 알고 있지만, 기수별로는 4기 이후의 도시 난민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심지어 이제 막 지역사회에 정착한 8기까지도 압도적 비율로 온라인쇼핑방법을 알고 있음에 반하여, 1,2,3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수 이상이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캠프출신의 1,2,3기 난민들이 컴퓨터 활용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9-12) 한 주 동안 여가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표 9-12] 여가시간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없다	38	5	1	3	9	3	4	5	8
	36%	42%	4%	19%	56%	100%	44%	56%	47%
2) 1시간	16	0	1	1	0	0	3	2	9
	15%	0%	4%	6%	0%	0%	33%	22%	53%
3) 1시간 - 3시간	22	2	6	5	6	0	1	2	0
	21%	17%	24%	31%	38%	0%	11%	22%	0%
4) 3-6시간	11	0	6	4	0	0	1	0	0
	10%	0%	24%	25%	0%	0%	11%	0%	0%
5) 6시간 이상	20	5	11	3	1	0	0	0	0
	19%	42%	44%	19%	6%	0%	0%	0%	0%

- 주당 6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가진 20명(19%)을 제외하고 전체의 87명(81%)이 여가시간을 하루 1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음.
- 기수별로는 5기의 경우 100%가 한 주 동안 여가시간이 1시간도 없다고 답했고 가장 최근 기수인 8기는 100% 1시간이하로 답했음. 8기의 경우는 지역정착기가 1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전체적으로 정착기간이 긴 기수로 갈수록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됨. 오래된 기수의 난민들이 비교적 취업률이 낮고 자녀들이 성장한 결과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9-13)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표 9-13] 여가시간에 하는 일

내용	계 (106)	1기 (11)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집에서 휴식	50	7	11	5	7	3	4	4	9
	47%	64%	44%	31%	44%	100%	44%	44%	53%
2) TV 시청	18	2	5	3	2	0	1	1	4
	17%	18%	20%	19%	13%	0%	11%	11%	24%
3) 산책	17	2	5	4	2	0	2	2	0
	16%	18%	20%	25%	13%	0%	22%	22%	0%
4) 외식	1	0	0	0	1	0	0	0	0
	1%	0%	0%	0%	6%	0%	0%	0%	0%
5) 쇼핑	7	0	1	0	3	0	0	1	2
	7%	0%	4%	0%	19%	0%	0%	11%	12%
6) 여행	2	0	1	0	0	0	1	0	0
	2%	0%	4%	0%	0%	0%	11%	0%	0%
7) 종교활동	4	0	0	1	1	0	1	0	1
	4%	0%	0%	6%	6%	0%	11%	0%	6%
8) 기타	7	0	2	3	0	0	0	1	1
	7%	0%	8%	19%	0%	0%	0%	11%	6%

- 여가시간의 활용은 전체의 47%가 단순히 집에서 쉬는다고 하였고, TV시청과 산책이 각각 18%와 17%로 나왔고, 쇼핑(7%), 종교활동(4%), 여행(2%), 외식(1%)의 비율은 낮게 나왔음. 기타 여가활용은 음악감상(2%), 잠(1%), 청소(1%), 운동(1%), 건강공부(1%), 아이들과 놀아주기(1%).

9-14) 한국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표 9-14] 한국인 친구 여부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42	5	13	9	6	1	4	3	1
	39%	42%	52%	56%	38%	33%	44%	33%	6%
아니오	65	7	12	7	10	2	5	6	16
	61%	58%	48%	44%	62%	67%	56%	67%	94%

- 전체적으로 한국인 친구가 없다는 비율은 61%이며 친구가 있다는 비율 39% 보다 높았음.

- 기수별로는 정착기간이 오래된 기수로 갈수록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정착기간이 짧은 기수로 갈수록 한국인 친구가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대체적 경향이 관찰됨.
- 2018년 조사당시 1기~3기의 2%(2/25)에게만 멘토나 적십자 봉사자 외의 한국인 친구가 있었으나(이호택, 2018), 이번 조사에서는 51%(27/53)가 한국인 친구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정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소 결

- 언어는 취업과 교육을 비롯한 정착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며 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워야 더욱 효과적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떠난 뒤에는 직장, 생계, 육아, 학업 등에 쫓겨 사실상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이수한 KIIP 한국어 수업의 단계가 후기 기수로 갈수록 초기 기수에 비하여 낮아지고, 정착지에서 KIIP한국어 수업을 계속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음. KIIP 수업에 참가하고자 하여도 외국인들간의 경쟁으로 KIIP 등록이 쉽지 않음. 또한 2020년 7월 1일 이후 교재와 평가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승급 규정이 개정되면서 최저 점수제 적용으로 4단계 재수강 이후 승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수강생들이 증가하게 됨. 이에 KIIP 접근성 제고 및 재정착난민의 다양한 한국어 수업 참여 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주말에 진행되는 8시간 연속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재정착난민과 같이 장시간 여가시간 확보가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1회 학습 시간과 1학기를 기존 일괄적인 학기편성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공하는 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취업의 가장 큰 방해요소가 언어(표3-7), 직장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도 언어(표3-11)이지만,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하여 취업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며, 취업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므로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더 많은 언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 언어 훈련 이외에 직업과 언어훈련을 결합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언어교육을 생활 기초회화로 부터 접근하는 방식보다 취업 특히 비숙련 내지 반숙련 노동에 필요한 언어

교육에 집중하는 네덜란드 방식과 언어훈련을 직업과 결합하여 ‘Step-in-jobs’ 고용지원금 제공에 대한 조건으로 직장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직업관련 언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스웨덴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음(이호택, 2018).

- 언어는 재정착난민들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 등을 담은 그릇이고 재정착난민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한다고 하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재정착난민들의 문화정체성과 모국어는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함. 이를 위해 모어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이 들봄 및 교육기관 종사자와 난민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재정착난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고유의 명절 등을 기념하는 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김포시의 경우 지역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협약난민 공동체인 재한줌머인연대 회원 가정의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중언어환경에서 자녀양육과 같은 언어전문가의 강의를 제공하기도함. 나아가 지역의 이주민단체인 ‘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문맹인 상태로 구어중심의 모어만을 사용하고 있던 줌머인들 중 차크마 민족과 통천가 민족을 위한 문자교육을 위해 인디아에서 모어 강사를 초청하고 주말을 활용해 모어교육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는 공동체 역시 중요한데 2018년부터 부평지역 카렌 재정착난민들의 커뮤니티 모임이 만들어지고 2023년 초 김포지역에서도 미얀마 재정착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인천서구(1가구4명) 및 시흥지역 재정착난민들 중에서도 일부가 가입하고 있음. 이 같은 공동체의 활성화가 난민 당사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활동들과 대응을 촉진시키고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10. 안전 및 차별

10-1) 집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표 10-1] 집에서의 안전함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97	12	23	14	15	3	9	7	14
	92%	100%	92%	93%	94%	100%	100%	78%	82%
아니오	9	0	2	1	1	0	0	2	3
	8%	0%	8%	7%	6%	0%	0%	22%	18%

10-2) 밖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표 10-2] 집 밖에서의 안전함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95	11	21	14	14	3	9	8	15
	90%	92%	84%	93%	88%	100%	100%	89%	88%
아니오	11	1	4	1	2	0	0	1	2
	10%	8%	16%	7%	12%	0%	0%	11%	12%

-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가 집에 있을 때(90%) 또는 밖에 있을 때(88%) 안전하다고 느낌. 물론 ‘안전’이라는 주관적인 지표에 대한 답변이지만, 대부분의 재정착난민은 한국을 안전한 사회로 체감하는 듯 함. 한국에 정착한 모든 재정착난민이 상주국이었던 말레이시아에서 소위 ‘미등록(불법)’ 체류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안정된 체류자격과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이들의 안전함의 감각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됨.
- ‘6.건강’에서 언급된 것처럼 난민들은 난민 사유와 및 박해와 연관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전’의 문제는 더욱 세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 트리거가 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비단 재정착난민 뿐만 아니라, 협약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게도 해당됨. 말레이시아 거주 도시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의 단속이나 경찰의 월급 수령일에 맞춘 단속과 착취 뿐 아니라 빈번한 강도의 주거침입과 길거리 강도 및 살인 등으로 집안과 밖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트라우마가 100%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지 5년째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트라우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리셉션센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3)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표 10-3] 소방서 신고법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83	9	20	10	13	3	9	8	10
	78%	75%	80%	63%	81%	100%	100%	89%	59%

아니오	24	3	5	6	3	0	0	1	7
	22%	25%	20%	38%	19%	0%	0%	11%	41%

10-4) 범죄 등의 이유로 긴급상황 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표 10-4] 경찰서 신고법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83	10	21	10	12	3	9	8	10
	78%	83%	84%	63%	75%	100%	100%	89%	59%
아니오	24	2	4	6	4	0	0	1	7
	22%	17%	16%	37%	25%	0%	0%	11%	41%

- 설문 참여자의 상당수(77%)가 소방서 및 경찰서 신고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높은 편임(22%). 특히 최근 정착한 8기의 경우 설문 응답자 17명 중 7명이 소방서 및 경찰서 신고 번호를 모른다고 답변하여, ‘아니오’ 비율이 41% 전 기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출국전 사전교육 및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는 더욱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에 향후 정착하는 재정착난민에게 반복적으로 소방서 및 경찰서의 역할과 신고하는 방법 등을 숙지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5)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기관에 진정(민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표 10-5] 인권침해 신고법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24	1	6	4	5	3	1	2	2
	22%	8%	24%	25%	31%	100%	11%	22%	12%
아니오	83	11	19	12	11	0	8	7	15
	78%	92%	76%	75%	69%	0%	89%	78%	88%

- 설문 참여자의 상당수(77%)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 기관에 진정(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기수를 불문하고 ‘아니오’의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만 함. 난민의 경우, 출신 문

화권에 따라 ‘인권침해’ 혹은 ‘차별’에 대한 제도적 이해가 우리나라 국민들과는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통합 교육 및 지원 시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와 차별이 무엇인지 교육할 필요도 있어 보임.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과 같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여 재정착난민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권리 인식을 위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음. 현재 출입국향 출국대기실 및 난민신청실에는 유엔난민기구의 및 난민 조력 단체 연락처, 대사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권리 인식을 위한 안내문이 포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10-6) 한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표 10-6] 한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7	0	2	0	4	0	0	1	0
	7%	0%	8%	0%	25%	0%	0%	11%	0%
아니오	100	12	23	16	12	3	9	8	17
	93%	100%	92%	100%	75%	100%	100%	89%	100%

-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이(93%) 한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본 질문을 구체화하여 범죄 피해의 유형 등을 나누어 조사를 하면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특히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국인 보다 취약함¹⁶⁾(이상서(연합뉴스), 2020). 따라서 범죄 유형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재정착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예방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16) 이상서(연합뉴스)(2020). '재난생활비 대신 받아줄게' 외국인 보이스피싱 주의보(2020.09)

10-7)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표 10-7] 외국인에 대한 차별 경험

내용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없음	32	5	9	3	2	1	1	2	9
	30%	42%	36%	19%	13%	33%	11%	22%	53%
2) 가끔	57	3	13	12	13	1	5	5	5
	53%	25%	52%	75%	81%	33%	56%	56%	29%
3) 종종	14	4	2	1	1	1	2	1	2
	13%	33%	8%	6%	6%	33%	22%	11%	12%
4) 모름	4	0	1	0	0	0	1	1	1
	4%	0%	4%	0%	0%	0%	11%	11%	6%

- 설문 참여자의 상당수가(66%) 한국에서 가끔 혹은 종종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특히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기수(2기~4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한국 정착 기간이 비교적 짧은 8기에서는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음. 재정착난민은 타 외국인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법무부와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사회통합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인터뷰에 따르면 직장내 차별, 길거리 혐오 등을 경험한 이들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차별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4명인데 이는 실제로 차별을 받지 않았거나 ‘차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인권, 차별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8)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1) 한국 사회 전반

[표 10-8-1]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

	계 (104)	1기 (10)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안전	42	9	15	7	6	0	2	0	3
	40%	90%	62%	44%	38%	0%	22%	0%	18%
2) 대체로 안전	43	1	9	7	5	2	5	3	11
	41%	10%	38%	44%	31%	67%	56%	33%	65%
3) 대체로 불안전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1%	0%	0%

4) 매우 불안전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1%	0%	0%
5) 잘 모르겠다	17	0	0	2	5	1	0	6	3
	15%	0%	0%	13%	31%	33%	0%	67%	17%

-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고 답한 비율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81%, 교통사고 62%, 감염병 64%, 자연재난 68%, 학교 82%, 범죄 70%, 직장 75%로 드러남.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82%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직장과 범죄에 대해서 70% 이상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재난 68%, 감염병 64%, 교통사고 62% 순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1기 90%, 2기 62%, 3기 44%, 4기 38%, 5기 0%, 6기 22%, 7기 0%, 8기 18%가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계열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5기의 한부모 가장들과 7기의 경우에는 매우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답변이 7기, 5기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교통사고

[표 10-8-2]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계 (95)	1기 (10)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안전	37	8	14	10	2	0	1	0	2
	40%	80%	56%	63%	13%	0%	11%	0%	12%
2) 대체로 안전	21	1	7	5	2	1	4	2	9
	22%	10%	28%	31%	13%	33%	45%	22%	53%
3) 대체로 불안전	7	1	3	0	1	0	1	0	1
	7%	10%	12%	0%	6%	0%	11%	0%	6%
4) 매우 불안전	4	0	0	1	0	1	1	1	0
	4%	0%	0%	6%	0%	33%	11%	11%	0%
5) 잘 모르겠다	26	0	1	0	11	1	2	6	5
	27%	0%	4%	0%	68%	34%	22%	67%	29%

-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입장과 유사하게 시계열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즉 매우 안전하다고 하는 비율이 1기부터 순서대로 각각 80%, 56%, 63%, 13%, 0%, 11%, 0%, 12% 로 드러났으며 동시에 5기와 7기의 경우 매우 안전하다고 하는 비율이 0%로 아직 매우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남. 5기와 7기가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인식과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인식에서 동조화 현상을 드러내고 있음. 이 질문에 대해서는 4기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판단 유보의 답변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7기 67%, 5기 34%로 드러남.
-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김포 거주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등을 활용해 출퇴근하는 이들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를 경험한 이들이 있어서 출퇴근 거리에 따라 혹은 출퇴근시 이동 수단의 종류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3) 감염병

[표 10-8-3]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

	계 (104)	1기 (10)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안전	28	4	7	4	7	2	1	1	2
	27%	40%	29%	25%	44%	67%	11%	11%	12%
2) 대체로 안전	39	5	10	7	2	1	5	1	8
	37%	50%	42%	44%	12%	33%	56%	11%	47%
3) 대체로 불안전	7	1	3	2	0	0	0	0	1
	7%	10%	13%	12%	0%	0%	0%	0%	6%
4) 매우 불안전	2	0	1	0	0	0	1	0	0
	2%	0%	4%	0%	0%	0%	11%	0%	0%
5) 잘 모르겠다	28	0	3	3	7	0	2	7	6
	27%	0%	12%	19%	44%	0%	22%	78%	35%

- 감염병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4기와 5기가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고 특히 5기는 앞선 답변에서는 매우 안전하다는 문항에 0%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모든 기수보다 가장 높은 67%가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음. 그러나 판단 유보 비율인 잘 모르겠다는 답은 7기가 78%로 가장 높고 4기가 44%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8기가 35%로 세 번째로 높았음. 대체로 입국 시기가 늦은 이들을 중심으로 판단 유보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4) 자연재난

[표 10-8-4]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

	계 (101)	1기 (8)	2기 (24)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안전	27	3	9	5	6	1	1	0	2
	27%	37%	38%	34%	38%	33%	11%	0%	12%
2) 대체로 안전	42	5	8	6	4	1	5	3	10
	41%	63%	33%	40%	25%	33%	56%	33%	59%
3) 대체로 불안전	8	0	4	2	1	0	0	0	1
	8%	0%	17%	13%	6%	0%	0%	0%	6%
4) 매우 불안전	3	0	1	0	0	1	1	0	0
	3%	0%	4%	0%	0%	34%	11%	0%	0%
5) 잘 모르겠다	21	0	2	2	5	0	2	6	4
	21%	0%	8%	13%	31%	0%	22%	67%	23%

- 자연 재난의 경우 5기까지는 33%~38% 사이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12% 이하이며 7기는 매우 안전하다는 선택지에는 0%로 답하고 있음. 또한 이 문항에 대해서는 7기의 판단 유보 선택지인 잘 모르겠다 답이 67%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5) 아이들 학교 생활

[표 10-8-5] 아이들 학교생활의 안전

	계 (98)	1기 (8)	2기 (20)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안전	45	8	14	10	6	2	1	2	2
	46%	100%	70%	63%	37%	67%	11%	22%	12%
2) 대체로 안전	35	0	4	3	4	1	8	5	10
	36%	0%	20%	19%	25%	33%	89%	56%	59%
3) 대체로 불안전	5	0	0	1	3	0	0	0	1
	5%	0%	0%	6%	19%	0%	0%	0%	6%
4) 매우 불안전	2	0	0	0	0	0	0	0	2
	2%	0%	0%	0%	0%	0%	0%	0%	12%
5) 잘 모르겠다	11	0	2	2	3	0	0	2	2
	11%	0%	10%	12%	19%	0%	0%	22%	12%

- 아이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82%가 학교를 안전(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사회전반에 대해서는 81%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체로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임. 특히 5기에서는 67%가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고 안전하다가 100%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체로 불안전하다(3기, 4기, 8기)고 답하거나 매우 불안전하다(8기)고 답한 이들 역시 있으며 8기에서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불안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나 요인 등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연구와 대안과 대응이 필요해 보임.

6) 범죄 및 각종 폭력

[표 10-8-6]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계 (102)	1기 (9)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안전	34	7	12	6	5	1	1	0	2
	33%	78%	52%	37%	31%	33%	11%	0%	12%
2) 대체로 안전	38	2	6	7	5	1	6	2	9
	37%	22%	26%	44%	31%	33%	67%	22%	53%
3) 대체로 불안전	3	0	0	0	0	0	1	1	1
	3%	0%	0%	0%	0%	0%	11%	11%	6%
4) 매우 불안전	4	0	2	0	0	1	1	0	0
	4%	0%	9%	0%	0%	34%	11%	0%	0%
5) 잘 모르겠다	23	0	3	3	6	0	0	6	5
	23%	0%	13%	19%	38%	0%	0%	67%	29%

- 범죄에 대해서 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을 선택한 이들이 70%로 높고 자연재난 68%, 감염병 64%, 교통사고 62% 에 대한 인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 매우 안전하다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인 영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1기가 75%로 가장 높고 2기, 3기 순으로 높음. 4기보다는 5기가 근소하게 높지만 대체로 이후 입국자들이 불안감 내지 판단 유보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7) 직장

[표 10-8-5] 직장에서의 안전

	계 (101)	1기 (9)	2기 (24)	3기 (14)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안전	31	5	10	5	6	0	1	1	3
	31%	56%	42%	36%	38%	0%	11%	11%	18%
2) 대체로 안전	45	3	8	7	4	3	7	6	7
	44%	33%	33%	50%	25%	100%	78%	67%	41%
3) 대체로 불안전	5	0	2	0	0	0	1	0	2
	5%	0%	8%	0%	0%	0%	11%	0%	12%
4) 매우 불안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잘 모르겠다	20	1	4	2	6	0	0	2	5
	20%	11%	17%	14%	37%	0%	0%	22%	29%

- 직장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거나 대체로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이 75%로 높게 드러남. 자연재난 68%, 감염병 64%, 교통사고 62% 로 비해 높은 비율로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직장에서의 안전은 각종 산재의 확률을 고려한 답변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기부터 4기까지는 매우 안전하다는 비율이 36%이상으로 높고 5기부터 8기까지는 대체로 안전하다는 선택지가 5기 100%, 6기 78%, 7기 67%, 8기 41% 순서로 높음.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5기와 6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수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4기가 가장 높고 8기, 7기 순서로 높게 드러남.
- 4기의 경우 김포지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고 판단 유보를 선택한 이들이 6명(37%)으로 많음. 이는 4기 중 직장에 대해 대체로 불안전이나 매우 불안전을 선택한 이가 아무도 없고 매우 안전하다는 선택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직장의 환경이나 업무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위험도는 높지 않지만 실수나 특정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임. 이는 8기나 2기의 높은 판단 유보율과는 차이가 있는데 2기나 8기의 경우 ‘대체로 불안전하다’고 하는 답변이 각각 2명이 있고 매우 안전하다는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보아 평상시 산재 등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가 환경이나 업무과정에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0-8-1)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표 10-8-6] 아이들 학교생활의 안전

	계 (106)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예	71	10	18	11	13	1	8	7	3
	67%	83%	72%	69%	81%	33%	89%	78%	19%
아니오	35	2	7	5	3	2	1	2	13
	33%	17%	28%	31%	19%	67%	11%	22%	81%

10-8-2)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표 10-8-7] 실제 도움경험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46	8	10	9	11	0	3	4	1
	43%	67%	40%	56%	69%	0%	33%	44%	6%
아니오	61	4	15	7	5	3	6	5	16
	57%	33%	60%	44%	31%	100%	67%	56%	94%

- 설문 참여자의 상당수(67%)는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 도움을 받은 비율(43%)은 받지 않은 비율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재정착난민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본국 및 기존 상주국의 기준과 비교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재정착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점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10-9) 한국 사회는 다음의 기준에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성별

[표 10-9-1] 성별에서의 평등

	계 (105)	1기 (10)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평등	32	9	13	9	0	0	1	0	0
	30%	90%	52%	56%	0%	0%	11%	0%	0%
2) 대체로 평등	40	1	5	4	9	1	6	2	12
	38%	10%	20%	25%	56%	33%	67%	22%	71%

3) 대체로 불평등	5	0	1	2	1	0	0	0	1
	5%	0%	4%	13%	6%	0%	0%	0%	6%
4) 매우 불평등	2	0	0	0	2	0	0	0	0
	2%	0%	0%	0%	13%	0%	0%	0%	0%
5) 잘 모르겠다	26	0	6	1	4	2	2	7	4
	25%	0%	24%	6%	25%	67%	22%	78%	23%

- 한국사회에서의 성별에 대한 평등에 대한 답변으로는 30%가 ‘매우 평등’, 38%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25%, 대체적으로는 성별에 대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대체로 불평등 5%, 매우 불평등 2%)으로 드러남. 불평등하다고 느낀 7명의 성별은 여성은 3명, 남성 3명, 밝히지 않음 1명이었음. 기수별로는 1기-3기가 평등하다는 답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1기가 가장 높은 90%로 나옴. 4기 이후로는 대체로 평등하다고 답하거나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높았으며 5기와 7기에서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각 67%, 78%로 높았음. 특히 4기에서는 매우 불평등에 답한 비율이 13%로 높음. 4기부터 8기까지는 한국사회의 성별 평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혹은 판단 유보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캠프난민들과 도시난민들의 권리인식의 차이 혹은 비판적 관점의 차이로 보임.

2) 인종 및 민족

[표 10-9-2] 인종 및 민족에서의 평등

	계 (105)	1기 (16)	2기 (22)	3기 (13)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평등	21	5	10	4	0	0	1	0	1
	20%	31%	45%	31%	0%	0%	11%	0%	6%
2) 대체로 평등	43	5	8	5	9	1	6	2	7
	41%	31%	36%	38%	56%	33%	67%	22%	41%
3) 대체로 불평등	10	0	1	3	1	0	0	1	4
	9%	0%	5%	23%	6%	0%	0%	11%	24%
4) 매우 불평등	5	0	0	1	3	0	0	1	0
	5%	0%	0%	8%	19%	0%	0%	11%	0%
5) 잘 모르겠다	26	6	3	0	3	2	2	5	5
	25%	38%	14%	0%	19%	67%	22%	56%	29%

- 한국사회에서의 ‘인종 및 민족’의 평등에 대한 답변으로는 20%가 ‘매우 평등’, 41%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9%,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5%임. 기수별로 보면 1기-3기 부평거주자들은 매우 평등하다는 비율이 각 31%, 45%, 31% 로 상대적으로 높고 4기-8기는 매우 평등하다는 선택은 각 0%, 0%, 11%, 6%로 낮고 대체로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으로 나뉨.
-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곳은 3기(23%)와 8기(24%)가 있으며, 매우 불평등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곳은 4기(19%)와 7기(11%)가 있음. 길거리 차별, 직장 등에서의 차별을 느끼면서 가지게 된 인식으로 보이며 이 항목에서도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3) 교육

[표 10-9-3] 교육에서의 평등

	계 (104)	1기 (10)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평등	40	9	13	12	1	0	2	2	1
	38%	90%	54%	75%	6%	0%	22%	22%	6%
2) 대체로 평등	37	1	5	3	9	2	4	3	10
	36%	10%	21%	19%	56%	67%	45%	33%	59%
3) 대체로 불평등	6	0	2	0	0	1	1	0	2
	6%	0%	8%	0%	0%	33%	11%	0%	12%
4) 매우 불평등	6	0	0	1	3	0	0	1	1
	6%	0%	0%	6%	19%	0%	0%	11%	6%
5) 잘 모르겠다	15	0	4	0	3	0	2	3	3
	14%	0%	17%	0%	19%	0%	22%	34%	17%

-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의 평등에 대한 답변으로는 38%가 ‘매우 평등’, 36%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6%,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6%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14%가 있음. 기수별로는 부평 거주자들과 김포, 시흥거주자들의 입장의 차이가 있으며 역시 김포 및 시흥 거주자들인 도시난민들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비판적이며 다소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4) 의료

[표 10-9-3] 의료에서의 평등

	계 (104)	1기 (10)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평등	34	8	11	8	2	0	1	2	2
	33%	80%	46%	50%	13%	0%	11%	22%	12%
2) 대체로 평등	43	2	5	4	11	2	6	4	9
	41%	20%	21%	25%	69%	67%	67%	44%	53%
3) 대체로 불평등	3	0	2	1	0	0	0	0	0
	3%	0%	8%	6%	0%	0%	0%	0%	0%
4) 매우 불평등	6	0	1	1	1	1	0	1	1
	6%	0%	4%	6%	6%	33%	0%	11%	6%
5) 잘 모르겠다	18	0	5	2	2	0	2	2	5
	17%	0%	21%	13%	13%	0%	22%	22%	29%

- 한국사회에서의 ‘의료’의 평등에 대한 답변으로는 33%가 ‘매우 평등’, 41%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3%,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6%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17%가 있음. 평등하다(매우 평등, 대체로 평등)는 답변은 1기가 100%로 가장 높고 4기 82%>6기 78%>3기 75%>2기 67%= 5기 67%> 7기 66%> 8기 65% 임

5) 경제적 기회

[표 10-9-4] 경제적 기회에서의 평등

	계 (105)	1기 (10)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평등	21	6	11	1	1	0	1	0	1
	20%	60%	44%	6%	6%	0%	11%	0%	6%
2) 대체로 평등	36	3	4	8	7	1	2	2	9
	34%	30%	16%	50%	44%	33%	22%	22%	53%
3) 대체로 불평등	11	0	4	3	0	0	2	1	1
	10%	0%	16%	19%	0%	0%	22%	11%	6%
4) 매우 불평등	7	0	0	1	3	0	0	2	1
	7%	0%	0%	6%	19%	0%	0%	22%	6%
5) 잘 모르겠다	30	1	6	3	5	2	4	4	5
	29%	10%	24%	19%	31%	67%	45%	45%	29%

- 한국사회에서의 ‘경제적 기회’의 평등에 대한 답변으로는 20%가 ‘매우 평등’, 34%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10%,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7%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29%가 있음. 1기와 2기의 경우 매우 평등에 각 60%, 44%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부분이며, 다른 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기회 영역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른 항목과 달리 경제적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응답에서 평등하다(매우 평등, 대체로 평등)는 답이 54%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불평등하다는 답 역시 17%로 언어 항목과는 동일하고 그 외 다른 항목 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잘 모르겠다고 판단 유보의 답을 한 이들 역시 29%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불평등하다(대체로 불평등, 매우 불평등)는 응답은 7기의 경우 33%로 가장 높으며 3기가 25%, 6기가 22%, 4기가 19%, 2기가 16%, 8기가 12%, 1기와 5기는 0%이며 5기의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67% 판단 유보의 비율이 가장 높음. 이는 재정착난민들이 다른 영역보다는 경제적 기회에 있어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냄.

6) 언어

[표 10-9-5] 언어에서의 평등

	계 (105)	1기 (10)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평등	21	6	8	0	2	0	3	1	1
	20%	60%	32%	0%	13%	0%	33%	11%	6%
2) 대체로 평등	40	3	6	10	7	0	4	2	8
	38%	30%	24%	63%	44%	0%	44%	22%	47%
3) 대체로 불평등	10	0	2	3	1	0	1	1	2
	10%	0%	8%	19%	6%	0%	11%	11%	12%
4) 매우 불평등	7	1	1	1	4	0	0	0	0
	7%	10%	4%	6%	25%	0%	0%	0%	0%
5) 잘 모르겠다	27	0	8	2	2	3	1	5	6
	26%	0%	32%	13%	13%	100%	11%	56%	35%

- 한국사회에서의 ‘언어’의 평등에 대한 답변으로는 20%가 ‘매우 평등’, 38%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10%,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7%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

도 26%가 있음. ‘대체로 불평등’하다는 답변 중 3기가 가장 높은 답변(19%)을 하였으며, ‘매우 불평등’하다는 답변은 4기가 가장 많은 답변을(25%) 하였음. 재정착난민들의 한국어 수준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언어적 평등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언어수준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7) 취업

[표 10-9-6] 취업에서의 평등

	계 (105)	1기 (10)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평등	20	5	9	0	2	0	2	1	1
	19%	50%	36%	0%	12%	0%	22%	11%	6%
2) 대체로 평등	44	5	6	11	7	1	4	2	8
	42%	50%	24%	69%	44%	33%	45%	22%	47%
3) 대체로 불평등	13	0	4	2	0	1	2	1	3
	12%	0%	16%	12%	0%	33%	22%	11%	18%
4) 매우 불평등	4	0	0	0	3	0	0	0	1
	4%	0%	0%	0%	19%	0%	0%	0%	6%
5) 잘 모르겠다	24	0	6	3	4	1	1	5	4
	23%	0%	24%	19%	25%	34%	11%	56%	23%

- 한국사회에서의 ‘취업’의 평등에 대한 답변으로는 19%가 ‘매우 평등’, 42%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대체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12%,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4%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24%가 있음. [표 3-1]의 취업여부와 비교했을 때 취업중인 사람들이 느끼는 취업의 평등(매우평등+대체로평등)은 취업자(63명)의 70%이며,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취업자는 16%, 불평등(대체로 불평등+매우 불평등)은 14%임.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 중 48%는 평등한 편으로 답변하였으며, 19%는 불평등 한편, 33%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음.
- 상기의 한국사회에 대한 평등 항목들에 모든 항목은 과반수(50%)이상이 평등하다는 답변이었으며, 교육(77%)=의료(77%) > 성별(68%) > 인종(64%)=취업(64%) > 경제적 기회(58%) = 언어(58%)로 나타남. 기수별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수는 1기였으며 대다수가 불평등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포시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은 대체로 비판적이고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0-10) 아래 장소나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주민센터나 구청, 우체국, 출입국 등의 공공기관

[표 10-10-1]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경험

내용	총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차별 있다	27	2	5	4	5	2	2	4	3
	25%	17%	21%	25%	31%	67%	22%	44%	18%
2) 차별 없다	79	10	19	12	11	1	7	5	14
	75%	83%	79%	75%	69%	33%	78%	56%	82%

- 주민센터나 구청, 우체국, 출입국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25%가 ‘차별 있다’, 75%가 ‘차별 없다’고 답변 하였음. 기수별로는 상기 평등에 관련한 결과와 비슷하게 5기와 7기에서 차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 1기와 8기의 경우, 차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 83%와 82%로 가장 높았는데, 1기의 경우 한국 생활을 오래 해왔기에 언어와 문화의 익숙함 덕분에 공공기관에서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또한, 8기의 경우 공공기관 방문 이력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차별에 노출되는 경험이 적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 병원 등 의료 보건시설

[표 10-10-2] 의료보건시설에서의 차별경험

내용	총계 (105)	1기 (12)	2기 (24)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차별 있다	15	1	2	3	4	0	2	3	0
	14%	8%	8%	20%	25%	0%	22%	33%	0%
2) 차별 없다	90	11	22	12	12	3	7	6	17
	86%	92%	92%	80%	75%	100%	78%	67%	100%

- 병원 등 의료 보건시설에서의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14%가 ‘차별 있다’, 86%가 ‘차별 없다’고 답변 하였음. 8기의 경우 출입국지원센터에서 퇴소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의료와 관련한 서비스에서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몸 상태와 아픈 곳을 한국어로 설명하기 힘들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병원 등 의료 보건시설에서의 신속한 서비스와 차별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료 및 보건 인력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음¹⁷⁾ (MBN,2023).

3) 은행이나 상점, 식당 등 서비스 시설

[표 10-10-3] 서비스 시설에서의 차별경험

내용	총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차별 있다	29	0	3	3	11	2	3	5	2
	27%	0%	13%	19%	69%	67%	33%	56%	12%
2) 차별 없다	77	12	21	13	5	1	6	4	15
	73%	100%	87%	81%	31%	33%	67%	44%	88%

- 은행이나 상점, 식당 등 서비스 시설에서의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27%가 ‘차별 있다’, 73%가 ‘차별 없다’고 답변 하였음. 1기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차별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만큼 한국 언어 및 문화에 익숙하여 차별을 덜 경험했을 가능성이 큼. 4기, 5기 및 7기에서는 각각 69%, 67%, 56%로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겪었는지 그 원인과 양상에 대해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해 보임.

4) 길거리

[표 10-10-4] 길거리에서의 차별경험

내용	총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차별 있다	18	1	4	5	4	0	1	2	1
	17%	8%	17%	32%	25%	0%	11%	22%	6%
2) 차별 없다	88	11	20	11	12	3	8	7	16
	83%	92%	83%	68%	75%	100%	89%	78%	94%

- 길거리에서의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17%가 ‘차별 있다’, 83%가 ‘차별 없다’고 답변 하였음.

17) "한국말 몰라도 괜찮아요" 외국인 위한 의료서비스 앱 눈길 https://m.mbn.co.kr/news/society/4981403_-MBN.23.11.24

5) 이웃 주민

[표 10-10-5] 이웃 주민에게서의 차별경험

내용	총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차별 있다	29	2	2	5	11	1	1	4	3
	27%	17%	8%	31%	69%	33%	11%	44%	18%
2) 차별 없다	78	10	23	11	5	2	8	5	14
	73%	83%	92%	69%	31%	67%	89%	56%	82%

- 이웃 주민으로부터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27%가 ‘차별 있다’, 83%가 ‘차별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중 4기와 7기의 경우 ‘차별 있다’고 답한 비율이 69%와 4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두 기수의 응답자 대부분이 김포에 거주함. 이웃주민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웃의 ‘무관심’ 또한 이들의 차별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됨. ‘무관심’은 적극적인 차별은 아니나,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외국인을 이웃으로 적극 환대하는 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직장

[표 10-10-6] 직장에서의 차별경험

내용	총계 (105)	1기 (11)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차별 있다	36	2	5	6	11	2	5	4	1
	34%	18%	20%	40%	69%	67%	56%	44%	6%
2) 차별 없다	69	9	20	9	5	1	4	5	16
	66%	82%	80%	60%	31%	33%	44%	56%	94%

- 직장으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34%가 ‘차별 있다’, 66%가 ‘차별 없다’고 답변하였음. 차별과 관련된 10-10번 질의사항에서 ‘차별 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임. 직장에서는 임금체불 문제, 상사의 ‘갑질’,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 등으로 차별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재정착난민은 출입국지원센터에서 연계 받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을 시 출입국지원센터가 대응 및 인권 침해 진정 접수 방식 등을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임.

7) 한국인 친구

[표 10-10-7] 한국인 친구에게서의 차별경험

내용	총계 (105)	1기 (11)	2기 (25)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차별 있다	25	3	3	8	6	1	2	2	0
	24%	27%	27%	53%	38%	33%	22%	22%	0%
2) 차별 없다	80	8	22	7	10	2	7	7	17
	76%	73%	73%	47%	62%	67%	78%	78%	100%

- 한국인 친구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답변으로는 25%가 ‘차별 있다’, 76%가 ‘차별 없다’고 답변하였음. 8기의 경우 상기 몇 결과와 비슷하게 ‘차별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소 결

-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경험에 대해서는 설문 참여자의 상당수가(66%) 한국에서 가끔 혹은 종종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음. 차별경험에 대해 4기(87%), 3기(81%), 6기(78%) 7기(67%), 5기(66%), 2기(60%), 1기(58%), 8기(41%) 순서로 낮아지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리셉션터 거주기간까지 1년정도 거주한 8기의 경우 41%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8기의 차별경험이 타 기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가량으로 짧은 거주기간에 따른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며 7기처럼 리셉션 센터 거주기간까지 포함하여 한국에서 2~3년 거주기간만으로도 67%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가장 오랜 기간을 거주한 1기와 2기의 경우 60%이하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경험은 일정기간(1년~3년)의 거주기간이 지나면 거주기간과는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차별을 충분히 인지할 만큼 많은 차별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며 1기나 2기의 사례를 통해 일정 기간 이후의 차별경험의 빈도의 차이는 이주민 각자의 권리인식, 차별을 식별할 수 있는 인지의 차이 혹은 사회활동 영역이나 활동반경 등에 따른 차이로 보임. 재정착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사회 직장내 차별, 길거리 혐오, 관공서, 은행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사회에 외국인 차별의 경험이 일정기간의 거주 이후에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안

전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고 답한 비율이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82%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81%이상, 직장 75%, 범죄 70% 이상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연재난 68%, 감염병 64%, 교통사고 62% 순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시계열적 영향이 드러났으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거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말레이시아 거주 도시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의 단속이나 경찰의 월급 수령일에 맞춘 단속과 착취 뿐 아니라 빈번한 강도의 주거침입과 길거리 강도 및 살인 등으로 집안과 밖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트라우마가 100%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지 오래되어도 특정한 상황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트라우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리셉션센터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착과정까지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난민에 관한 호불호의 정서는 외국인주민과의 교류 경험(외국인주민 회피/ 상호교류), 한국 정치제도와 법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존중과 한국사회 소속 감(한국인의 자격 시민적 요건), 외국인주민의 합법적 체류 여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세계문제 해결 기여의 의미와 성과 등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난민 수용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태도 형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음.¹⁸⁾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도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특히 사회통합이 원활하지 않을 수록 난민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별금지법 등 법과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난민의 경우는 이들이 겪는 차별의 다면성과 교차성을 고려하여야 함.

18) 장주영, “난민에 대한 태도 이해: 난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습니까?”,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핑, 2018.5., p.10.

개인의 정체성은 다면성과 교차성을 지니고 있기에, 강제실향민과 무국적자들이 겪는 차별은 단일한 차별 사유에만 초점을 맞추면 종종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¹⁹⁾ 즉, 같은 난민이더라도 교차적 관점을 통해 여성, 남성, 소년 및 소녀,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인 난민은 각기 다른 차별의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차별의 교차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11. 참여

11-1) 한국에서 단체나 조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표 11-1] 단체나 조직에 참여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31	7	9	5	5	0	2	3	0
	29%	58%	36%	31%	31%	0%	22%	33%	0%
아니오	76	5	16	11	11	3	7	6	17
	71%	42%	64%	69%	69%	100%	78%	67%	100%

- 단체나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평균 29%이고, 기수별로 보면 대체로 정착기간이 긴 기수로 갈 수록 기간이 짧은 기수보다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1기~3기만 따로 보면 참여율이 40%(21/53)로서 2018년 조사당시 61.1%(22/36)보다 감소하였음 (이호택,2018).

11-2) 한국에서 봉사활동 한 적이 있습니까?

[표 11-2] 국내 봉사활동 경험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41	7	15	6	6	0	4	3	0
	38%	58%	60%	38%	38%	0%	44%	33%	0%

19) 유엔난민기구(UNHCR),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발의안 의견 요청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22.11.

아니오	66	5	10	10	10	3	5	6	17
	62%	42%	40%	42%	42%	100%	56%	67%	100%

-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평균 38%로서 기수별로 보면 대체로 정착기간이 긴 기수로 갈수록 기간이 짧은 기수보다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1기~3기만 따로 보면 참여율이 53%(28/53)로서 2018년 조사 당시 5.6%(2/36)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이호택, 2018).
- 봉사활동 참여가 조직이나 단체에의 참여보다 참여 비율도 높고 증가율도 높게 나타난 것은 재정착난민들이 조직이나 단체에의 가입이라는 조직적 방식보다는 자원활동이라는 유연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11-3) 한국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 11-3] 권리주장 활동 경험

	계 (107)	1기 (12)	2기 (25)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15	2	2	2	3	0	5	1	0
	14%	17%	8%	13%	19%	0%	56%	11%	0%
아니오	92	10	23	14	13	3	4	8	17
	86%	83%	92%	87%	81%	100%	44%	89%	100%

- 적극적 권리주장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평균 14%로서 단체활동(29%)이나 봉사활동(38%) 등 소극적 활동 참여 경험보다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적극적 권리주장 활동 참여에는 비교적 오랜 정착 경험과 지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며 권리주장 활동은 정착 초기에는 개인적 참여보다는 난민 공동체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더욱 장기적으로는 한국인선주민들의 다양한 권리 주장활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얀마재정착난민들의 경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한국 내에서 다양한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정착과정에서 인권 감수성과 참여적 정치문화에 훈련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기간이 오래된 기수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줄 것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러한 흐름을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은 재정착난민들이 생계 문제에 급급하여 이러한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됨.

11-4) 아래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 인터넷 이용

[표 11-4-1] 인터넷 이용 빈도 (복수응답)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일	63	8	17	13	7	1	5	5	7
	60%	67%	74%	81%	44%	33%	56%	56%	41%
2) 주3-4회	10	2	0	1	1	1	3	0	2
	10%	17%	0%	6%	6%	33%	33%	0%	12%
3) 주1-2회	12	1	1	1	3	1	1	1	3
	11%	8%	4%	6%	19%	33%	11%	11%	18%
4) 월1회	2	0	0	0	0	0	0	1	1
	2%	0%	0%	0%	0%	0%	0%	11%	6%
5) 연3-4회	2	0	0	0	1	0	0	0	1
	2%	0%	0%	0%	6%	0%	0%	0%	6%
6) 연1-2회	5	0	1	0	2	0	0	0	2
	5%	0%	4%	0%	13%	0%	0%	0%	12%
7) 전혀 없음	11	1	4	1	2	0	0	2	1
	10%	8%	17%	6%	13%	0%	0%	22%	6%

-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60%이고 주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85/105)로서 인터넷 이용 빈도는 활발한 편임.
- 주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의 기수별 비율은 92%(1기), 78%(2기), 93%(3기), 69%(4기), 100%(5기), 100%(6기), 67%(7기), 71%(8기)로서 정착기간이 오래된 기수의 인터넷이용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2) TV 시청

[표 11-4-2] TV시청 빈도(복수응답)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일	21	1	5	3	8	0	0	1	3
	20%	8%	22%	19%	50%	0%	0%	11%	18%
2) 주3-4회	16	4	1	3	3	0	1	0	4
	15%	33%	4%	19%	19%	0%	11%	0%	24%

3) 주1-2회	22	0	5	3	3	2	3	2	4
	21%	0%	22%	19%	19%	67%	33%	22%	24%
4) 월1회	8	0	0	1	1	0	3	2	1
	8%	0%	0%	6%	65%	0%	33%	22%	6%
5) 연3-4회	6	2	2	0	0	0	1	0	1
	6%	17%	9%	0%	0%	0%	11%	0%	6%
6) 연1-2회	10	1	2	1	0	1	0	2	3
	10%	8%	9%	6%	0%	33%	0%	22%	18%
7) 전혀 없음	22	4	8	5	1	0	1	2	1
	21%	33%	35%	32%	6%	0%	11%	22%	6%

- TV를 매일 시청하는 비율은 20%이지만 전혀 시청하지 않는 비율도 21%정도로서 반반이고, 1주에 1-2회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56%로서 절반 이상이 1주에 1-2회 이상 TV를 시청하는 정도의 빈도임.
- 기수별 TV시청 비율에는 의미 있는 흐름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정착기간이 오래된 1,2,3기에서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정착기간이 짧은 4기 이후와 새로운 기수에서 TV 시청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새로운 정보에 무심해지고 TV이외에도 정보를 얻는 수단이 다양해지는 반면, 정착을 시작한 난민들의 경우 TV가 주요한 정보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허용하는 선에서 자주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보임.
- 1,2,3기만을 보면 2018년 조사에서는 63.9%(23/36)가 매일, 88.9%(32/36)가 주 1-2회 이상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이호택,2018), 이번에는 매일 시청이 17%(9/53), 주 1-2회 이상 시청이 47%(25/53)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원으로서 TV시청의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스마트폰 소유의 증가 및 SNS나 유튜브 등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음.

3) 봉사활동

[표 11-4-3] 봉사활동 빈도(복수응답)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일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1%	0%	0%
2) 주3-4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주1-2회	6	0	0	0	2	0	2	0	2
	6%	0%	0%	0%	13%	0%	22%	0%	12%
4) 월1회	6	0	1	1	1	0	2	0	1
	6%	0%	4%	6%	6%	0%	22%	0%	6%
5) 연3-4회	11	1	1	0	4	0	1	2	2
	10%	8%	4%	0%	25%	0%	11%	22%	12%
6) 연1-2회	43	5	9	6	5	2	2	4	10
	41%	42%	39%	38%	31%	67%	22%	44%	59%
7) 전혀 없음	38	6	12	9	4	1	1	3	2
	36%	50%	52%	56%	25%	33%	11%	33%	12%

- 봉사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편으로서, 봉사활동을 매일 하는 사례는 6기에서 1건 있고, 월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은 12%인 반면,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36%,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2회 정도로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77%임.
- 기수별 경향이나 정착기간의 경과에 따른 봉사활동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음.

4) 단체활동

[표 11-4-4] 단체활동 빈도(복수응답)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주3-4회	2	0	1	0	0	0	0	0	1
	2%	0%	4%	0%	0%	0%	0%	0%	6%
3) 주1-2회	7	1	1	0	1	0	2	0	2
	7%	8%	4%	0%	6%	0%	22%	0%	12%
4) 월1회	16	2	2	0	4	0	5	2	1
	15%	17%	9%	0%	25%	0%	56%	22%	6%
5) 연3-4회	6	0	0	1	2	0	0	1	2
	6%	0%	0%	6%	13%	0%	0%	11%	12%
6) 연1-2회	28	1	5	3	4	2	1	3	9
	27%	8%	22%	19%	25%	67%	11%	33%	53%
7) 전혀 없음	46	8	14	12	5	1	1	3	2
	44%	67%	61%	75%	31%	33%	11%	33%	12%

- 단체활동도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발하지 못한 편으로서, 단체활동을 매일 하는 사례는 없고, 월1회 이상 단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24%인 반면, 단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44%, 단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2회 정도로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70%임.
- 정착기간의 경과에 따라 단체활동의 변화는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이들이 1기~3기에서 타기수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고 4, 5기, 7기에서 그 다음으로 높고, 6기, 8기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체활동을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으나 봉사활동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듯이 단체활동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이탈하거나 오랜 기간의 정착과정에서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일정규모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됨.

5) 출신국 모임

[표 11-4-5] 출신국 모임 빈도(복수응답)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일	5	0	0	2	3	0	0	0	0
	5%	0%	0%	13%	19%	0%	0%	0%	0%
2) 주3-4회	2	1	0	0	0	0	0	1	0
	2%	8%	0%	0%	0%	0%	0%	11%	0%
3) 주1-2회	18	2	7	2	3	0	1	1	2
	17%	17%	30%	13%	19%	0%	11%	11%	12%
4) 월1회	27	5	9	3	4	1	2	3	0
	26%	42%	39%	19%	25%	33%	22%	33%	0%
5) 연3-4회	11	0	1	1	3	0	2	0	4
	10%	0%	4%	6%	19%	0%	22%	0%	24%
6) 연1-2회	26	1	6	1	3	2	3	1	9
	25%	8%	26%	6%	19%	67%	33%	11%	53%
7) 전혀 없음	16	3	0	7	0	0	1	3	2
	15%	25%	0%	44%	0%	0%	11%	33%	12%

- 출신국 모임은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으로서, 출신국 모임을 매일 하는 비율이 5%, 월1회 이상의 비율은 50%인 반면, 출신국 모임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5%(16/105), 연1-2회 이하의 비율은 40%임.
- 1기부터 4기까지 월1회 이상 출신국 모임 비율은 61%로서 5기부터 8기까지의 월1회 이상 출신국 모임 비율 29%(11/38)보다 2배정도 높아 정착기간이 긴 기수일수록 출신국 커뮤니티 모임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음.

- 1~3기의 2018년 조사 당시 월1회 이상 출신국 모임 비율은 55.5%이었는데 (2018, 이호택), 이번 조사에서 1~3기의 월1회 이상 출신국 모임 비율은 60%로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신국 커뮤니티 모임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2018년부터 카렌난민 16가정이 카렌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매 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음.

6) 종교활동

[표 11-4-7] 종교활동 빈도(복수응답)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일	7	1	1	3	0	0	1	0	1
	7%	8%	4%	19%	0%	0%	11%	0%	6%
2) 주3-4회	6	0	1	0	1	0	2	1	1
	6%	0%	4%	0%	6%	0%	22%	11%	6%
3) 주1-2회	34	4	15	2	4	1	3	1	4
	32%	33%	63%	13%	25%	33%	33%	11%	24%
4) 월1회	19	3	6	0	4	0	1	3	2
	18%	25%	25%	0%	25%	0%	11%	33%	12%
5) 연3-4회	11	0	0	2	4	2	0	0	3
	10%	0%	0%	13%	25%	67%	0%	0%	18%
6) 연1-2회	17	1	1	4	2	0	2	2	5
	16%	8%	4%	25%	13%	0%	22%	22%	29%
7) 전혀 없음	12	3	0	5	1	0	0	2	1
	11%	25%	0%	31%	6%	0%	0%	22%	6%

- 종교활동 역시 출신국 모임과 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으로서, 종교활동을 매일 하는 비율이 7%(7/106), 주1회 이상이 45%(47/106), 월1회 이상의 비율은 63%(66/106)인 반면, 종교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1%(12/106), 연1-2회 이하의 비율은 27%(29/106)임.
- 1~3기의 2018년 조사당시 월1회 이상 종교활동 비율은 77.8%(28/36)이었는데 (2018, p.204), 이번 조사에서 1~3기의 월1회 이상 종교활동 비율은 69%(36/52)로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종교활동은 다소 감소하였음. 이는 이주민들의 공동체에서 종교의 역할이 초기 정착인들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 뿐 아니라 친교, 향수의 달램, 자원동원, 구직, 정보공유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점과 정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로 볼 수 있음. 또한 부평의 월1회 이상 종교활동 비율이 2018년 77.8%(28/36),

2023년 69%(36/52)인 것과 비교해 김포(인천 2명포함)의 월1회 이상의 종교활동 비율은 59,45(22/37)%로 더 낮아 부평의 카렌민족의 종교활동이 더욱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부평의 경우 종교활동이 전혀 없다는 이들이 빈도상 7명으로 김포(인천 2명포함)의 경우 3명보다 2.5배 많음.

11-5) 아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최근 한국의 정치적 쟁점

[표 11-5-1] 한국 정치적 쟁점

	계 (101)	1기 (9)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1) 잘 안다	3	0	0	1	0	0	0	0	2
	3%	0%	0%	6%	0%	0%	0%	0%	13%
2) 조금 안다	27	3	6	2	3	0	7	2	4
	27%	33%	26%	13%	19%	0%	78%	22%	25%
3) 거의 모른다	24	1	4	4	6	0	1	4	4
	24%	11%	17%	25%	38%	0%	11%	44%	25%
4) 전혀 모른다	47	5	13	9	7	3	1	3	6
	47%	56%	57%	56%	44%	100%	11%	33%	38%

- 한국의 최근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잘 안다고 대답한 3사례의 경우 중 하나는 2017년 3기 재정착난민 가운데 13세 나이로 입국하여 한국인으로 귀화한 19세 남자청년의 경우이고, 나머지 2사례는 말레이시아에서 2022년 입국한 8기 재정착난민가운데 30대의 남녀 각 한 명씩의 사례임. 전자의 경우 6년 간의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면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쟁점까지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도시난민의 경우 비록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캄프난민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사회통합이 빠르고 개인별 통합능력에도 차이가 있어 일부 개인들의 경우 최근 한국의 정치적 쟁점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빠른 사회통합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한편, 최근 한국의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초기 정착그룹인 1,2,3기의 비율이 전체 재정착난민 평균을 초과하고 특히 후기 정착그룹인 6,7,8기의 비율보다 높게 나온 점에 관하여는 이들 초기 그룹의 사회통합 지체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태국의 캠프난민 출신이었던 1,2,3기 초기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정치이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측면으로서, 캠프난민출신인 전기의 재정착난민들이 도시난민 출신인 후기의 재정착난민에 비하여 한국사회에 무관심하고,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못한 한국사회의 정치 이슈보다는 동족사회의 커뮤니티나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1,2,3기의 비율 56%(27/48) 및 6,7,8기의 비율 29%(10/34)를 2018년 조사 당시 1,2,3기가 한국의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83.3%와 비교하면(이호택, 2018), 캠프난민 출신인 1,2,3기 난민들이 정착기간의 경과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얻게 되기는 하지만, 도시난민출신인 후기의 6,7,8기 난민들보다 한국의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됨.

2) 최근 한국의 경제 동향이나 물가

[표 11-5-2] 한국 경제동향 및 물가

	계 (99)	1기 (11)	2기 (22)	3기 (13)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1) 잘 안다	6	0	1	2	1	0	0	0	2
	6%	0%	5%	15%	6%	0%	0%	0%	13%
2) 조금 안다	36	3	6	4	6	0	7	4	6
	36%	27%	27%	31%	38%	0%	78%	44%	38%
3) 거의 모른다	16	4	3	0	4	1	0	1	3
	16%	36%	14%	0%	25%	33%	0%	11%	19%
4) 전혀 모른다	41	4	12	7	5	2	2	4	5
	41%	36%	55%	54%	31%	67%	22%	44%	31%

- 최근 한국의 경제 동향이나 물가에 관하여는 정치에 대하여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나 물가에 대하여 잘 안다고 답변한 6 사례(남자5, 여자1)들 가운데, 2017년 13세로 입국한 19세의 3기 남성은 경제문제 뿐 아니라 정치이슈와 문화동향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40대의 3기 남성과 40대의 4기 여성의 경우 정치, 사회, 문화 이슈

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거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물가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특징이고, 다른 30대 8기 남성의 경우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20대 후반의 2기 남성과 20대 후반 8기 남성의 경우 경제와 문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개인적 취향이나 관심사가 결과에 반영되고 있음.

- 정치이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에 관하여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1,2,3기의 비율 50%(23/46) 및 6,7,8기의 비율 32%(11/34)를 2018년 조사 당시 1,2,3기가 경제동향이나 물가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86.1%와 비교하면(이호택, 2018), 캠프난민 출신인 1,2,3기 난민들이 정착기간의 경과에 따라 한국의 경제동향이나 물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얻게 되기는 하지만, 도시난민출신인 후기의 6,7,8기 난민들보다 잘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3)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사건이나 사고

[표 11-5-3] 한국사회 사건사고

	계 (99)	1기 (7)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1) 잘 안다	2	0	2	0	0	0	0	0	0
	2%	0%	9%	0%	0%	0%	0%	0%	0%
2) 조금 안다	24	2	4	3	3	0	6	0	6
	24%	29%	17%	19%	19%	0%	67%	0%	38%
3) 거의 모른다	26	2	6	4	5	0	0	4	5
	26%	29%	26%	25%	31%	0%	0%	44%	31%
4) 전혀 모른다	47	3	11	9	8	3	3	5	5
	47%	43%	48%	56%	50%	100%	33%	56%	31%

-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사건이나 사고와 같은 사회문제도 재정착난민 전체의 47%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 11-4-2)표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의 56%가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TV를 1주에 1-2회 이상 시청하고는 있지만 언어나 관심의 문제로 뉴스 등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한국사회의 주요사건이나 사고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2개 사례의 경우 2기 난민으로 13세에 입국한 20대초반의 남자와 15세로 입국한 20대 초

반의 여자 남매로서, 이들과 같이 입국한 이 가정의 부모나 20세 성인으로 입국한 딸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기에 입국한 위 자녀들과 대조되고 있음.

-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사건이나 사고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1,2,3기의 비율 50% (23/46) 및 6,7,8기의 비율 38%(13/34)를 2018년 조사 당시 1,2,3기가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80.6%와 비교하면(이호택, 2018), 정치나 경제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에 관하여도 캠프난민 출신인 1,2,3기 난민들이 정착기간의 경과에 따라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 사건이나 사고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얻게 되는 하지만, 후기에 들어온 도시간민출신인 6,7,8기 난민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4) 최근 유행가요나 영화 등 문화계 동향

[표 11-5-4] 문화계 동향

	계 (99)	1기 (7)	2기 (24)	3기 (16)	4기 (15)	5기 (3)	6기 (9)	7기 (9)	8기 (16)
1) 잘 안다	6	0	3	1	0	0	1	0	1
	6%	0%	13%	6%	0%	0%	11%	0%	6%
2) 조금 안다	30	3	8	3	5	0	4	0	7
	30%	43%	33%	19%	33%	0%	44%	0%	44%
3) 거의 모른다	19	1	4	3	4	0	1	3	3
	19%	14%	17%	19%	27%	0%	11%	33%	19%
4) 전혀 모른다	44	3	9	9	6	3	3	6	5
	44%	43%	38%	56%	40%	100%	33%	67%	31%

- 최근 유행가요나 영화 등 문화계 동향에 대하여도 44%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할 정도로 재정착난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지만,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례가 6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0대 남성들로서, 2016년에 청소년으로 입국한 3명의 2기 난민과 2017년 청소년으로 입국한 3기 난민 1인 그리고 2019년과 2022년에 입국한 6기와 8기 난민 각 1명임.
- 최근 유행가요나 영화 등 문화계 동향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1,2,3기의 비율 41%(21/47) 및 6,7,8기의 비율 34%(14/34)을 2018년 조사당시 1,2,3기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61.1%와 비교하면(이호택, 2018), 정치, 경제, 사회와 달리 문화에 관하여는 3자간에 편차가 적음.

11-6. 아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1) 내 가족

[표 11-6-1] 가족에 대한 소속감

	계 (104)	1기 (11)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많다	67	11	20	15	5	0	6	3	7
	64%	100%	87%	94%	31%	0%	67%	33%	41%
2) 조금 있다	24	0	3	1	8	0	1	4	7
	23%	0%	13%	6%	50%	0%	11%	44%	41%
3) 거의 없다	5	0	0	0	1	0	2	0	2
	5%	0%	0%	0%	6%	0%	22%	0%	12%
4) 없다	8	0	0	0	2	3	0	2	1
	8%	0%	0%	0%	13%	100%	0%	22%	6%

- 전체 재정착난민의 64%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13%를 제외하면 87%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소속감을 응답함. 소속감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경우 1기-3기에는 없고 4기-8기 사이에 8명이고 김포에서 7명임.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는 답은 출신국 혹은 상주국에 거주하는 가족관계에서의 소속감이 없거나 원가족을 상실한 상태 등을 의미할 것으로 보임.
- 기수 별로는 캠프난민 출신인 1,2,3기의 가족 소속감 92%(46/50)가 도시난민 출신인 4기~8기까지의 가족 소속감 39%(21/54)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 캠프난민출신들이 도시난민출신보다 가족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5기 재정착난민들 100%가 가족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부분은 한부모 가족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2) 내가 살고 있는 도시

[표 11-6-2] 도시에 대한 소속감

	계 (100)	1기 (8)	2기 (22)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많다	52	7	17	14	4	0	3	3	4
	52%	88%	77%	87%	25%	0%	33%	33%	24%
2) 조금 있다	26	0	3	2	5	0	3	3	10
	26%	0%	14%	13%	31%	0%	33%	33%	59%

3) 거의 없다	13	0	2	0	4	0	3	1	3
	13%	0%	9%	0%	25%	0%	33%	11%	18%
4) 없다	9	1	0	0	3	3	0	2	0
	9%	22%	0%	0%	19%	100%	0%	22%	0%

-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소속감은 부평지역에 살고 있는 캠프난민출신 1,2,3기의 강한(많다)도시 소속감이 83%(38/46)로 가장 크고, 김포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난민출신인 4,5,6,7기의 강한 도시 소속감은 27%(10/37)로 비교적 낮으며, 시흥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난민출신인 8기의 강한 도시 소속감은 적극적 소속도 부정적 소속도 아닌 유동적인 상태로 나타남.
- 2016년부터 2018년 부평지역에 정착한 1,2,3기의 경우 다른 기수보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더 두텁게 형성되었을 것이며 시흥지역은 가장 늦게 정착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소속에 대하여 유동적인 상태로 보임으로 보임. 김포지역 난민들의 도시 소속감이 부평지역 난민들의 도시 소속감에 비하여 낮고, 도시출신난민들의 개인적 성향과 캠프출신난민들의 공동체적 성향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김포거주자들 중에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고 답한 7명중 모든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 한국, 출신국에 대해 소속감이 없다고 답했으며 가족에 대해 소속감이 있다고 답한 1명은 나머지 소속감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살고 있는 도시, 한국, 출신국인 미얀마에 대해서 전혀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요인이 개인적인 생애사적인 경험이나 상처 혹은 성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평지역 난민들이 김포지역 난민들보다 도시 소속감이 높은 것은 도시 소속감이 가족, 동족, 동일국민, 한국인 선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지자체가 주는 삶의 질과 관계된 인프라와 서비스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소속감이기에 동질성이 높은 카렌민족 거주지이면서 동시에 부평지역이 오랜 시간 특히 미얀마 사람들의 거주와 활동의 중심지가 된 반면 김포는 다양한 미얀마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적과 민족의 외국인들이 혼합 거주하는 지역특성, 개인적 특성, 시계열적 영향 등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3) 내가 살고 있는 한국

[표 11-6-3] 한국에 대한 소속감

	계 (100)	1기 (7)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많다	38	6	12	9	3	0	3	1	4
	38%	86%	52%	56%	19%	0%	33%	11%	24%
2) 조금 있다	39	1	8	7	6	0	3	3	11
	39%	14%	35%	44%	38%	0%	33%	33%	65%
3) 거의 없다	14	0	2	0	4	0	3	3	2
	14%	0%	9%	0%	25%	0%	33%	33%	12%
4) 없다	9	0	1	0	3	3	0	2	0
	9%	0%	4%	0%	19%	100%	0%	22%	0%

- 한국에 대한 소속감(많다, 조금 있다)은 77%로 출신국 소속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소속감(많다, 조금 있다)은 부평지역에 살고 있는 캠프난민 출신인 1,2,3기의 소속감이 93% (27/46)로 가장 크고, 시흥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난민출신인 8기의 소속감은 88%(15/17)로 다음으로 높고, 김포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난민출신인 4,5,6,7기의 소속감은 51%(19/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김포시거주자들 중 가족 소속감이 없다고 답한 이들 7명 모두가 살고 있는 도시 및 한국, 출신국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소속감이 가족 혹은 다른 소속감과 연동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특히 가족에 대해 소속감이 없다고 한 7명 모두 가족이 있다는 점과 한부모 가정들이거나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음.
- 김포지역 재정착난민들의 한국 소속감에 대해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의 장벽이 높은 것을 알고 한국으로의 재정착에 대하여 비판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 도시난민의 출신과 김포지역의 특성이 이 지역 재정착난민들에게 국적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다양성, 열린 사회의식, 진취적 사고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들도 있음. 그러나 상기와 같이 도시 소속감이 없다고 답한 이들 김포거주자들 7명 모두 다른 소속감들(가족, 한국, 출신국 소속감)과 연동된 소속감의 부재 현상을 볼 때 개인적인 특성과 경험에서 비롯된 모든 소속감에 대한 거부나 유보에 따른 결과로 보임.

4) 출신국 (국적국가)

[표 11-6-4] 출신국에 대한 소속감

	계 (101)	1기 (7)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많다	42	5	11	9	4	0	5	3	5
	42%	71%	46%	56%	25%	0%	56%	33%	29%
2) 조금 있다	30	2	10	2	4	0	1	2	9
	30%	29%	42%	13%	25%	0%	11%	22%	53%
3) 거의 없다	12	0	1	2	4	0	3	1	1
	12%	0%	4%	13%	25%	0%	33%	11%	6%
4) 없다	17	0	2	3	4	3	0	3	2
	17%	0%	8%	19%	25%	100%	0%	33%	12%

- 모든 기수의 긍정하고 있는 소속감(많다, 조금 있다)으로 보면 가족(87%) > 도시(78%) > 한국(77%) > 출신국(72%)순서로 나타남. 즉 일부의 강한 소속감과 달리 긍정적인 한국 소속감이 출신국 소속감보다는 높게 나옴. 1, 2, 3기 역시 긍정적인 소속감(많다, 조금 있다)의 비율로 보면 가족(100%)>도시(93)=한국(93)>출신국(82.9) 순서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적이 소속감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소속감과 한국 소속감이 동일하고 한국 소속감이 출신국 소속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김포와 시흥 거주자들인 4,5,6,7,8기는 가족(75.9) > 도시(64.8) > 한국(62.9) > 출신국(61.1) 순서로 나타나며 1,2,3기와 동일한 순서임. 4,5,6기의 김포거주자들의 경우 가족(50)>도시(38.8)>한국(35.1)=출신국(35.1) 순서로 한국과 출신국의 소속감이 동일하게 나타남.
- 소속감이 많다(강한 소속감)고 응답한 비율을 가족, 도시, 본국, 한국이라는 집단의 종류별로 보았을 때, 가족이 64%, 도시가 52%, 출신국이 42%, 한국이 38% 로, 가족, 도시, 본국, 한국의 순서로 나타나서, 조국을 잃은 난민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장 크게 의지할 공동체요 사회적 지지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재정착난민들에게는 한국보다는 살고 있는 지역인 도시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소속감이 더 크다는 것과 출신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한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보다 여전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그러나 강한 소속감(많다)이 아니라 출신국에 대한 긍정적인 소속감(많다, 조금 있다)을 보면 한국(77%)에 대한 소속감이 출신국(72%)에 대한 소속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일부 난민들은 출신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착국인 한국에 대한 소속감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난민들은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출신국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 주로 미얀마 출신의 재정착난민들은 출신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많다, 42%)이 정착국인 한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많다, 38%)보다도 오히려 강하고, 특히 1,2,3기의 경우 출신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53%(25/47)로 더욱 강화된 특징이 있음. 이는 일부 재정착 난민들이 박해로 인하여 본국을 떠나왔을지라도 정서적으로는 출신 본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됨을 의미함.
- 2018년 조사 결과(2018, p.205.)와 비교하면. 가족에 대한 강한(많다)소속감은 86.1%에서 전체적으로는 64%로 하락하였지만 1,2,3기의 가족 소속감은 92%로 강화된 점, 2018년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97.2%로 도시에 대한 소속감 75% 보다 높았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도시 소속감이 52%로 한국에 대한 소속감 38%보다 높아 순서가 역전된 점, 2018년 조사에서는 출신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11.1%로 아주 낮았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출신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전체적으로는 42%, 1,2,3기의 경우는 53%로 더욱 강화된 특징이 있음.

소 결

- 난민 사회통합의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통합 뿐 아니라 이들이 정착지에서 배척이나 차별 없이 이웃들로부터 받아들여 짐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누리고 있는지, 또 이들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가면서 자립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이웃으로부터 획득해가고 있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이호택, 2018)
- 조사 결과 재정착난민들의 집단 소속감이 가족, 도시, 본국, 한국의 순서로 나타난 것은 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이 건강한 가족에의 소속과 지역 커뮤니티에의 참여로부터 나온다는 점과 비록 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나 출신국 정체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많다, 조금 있다)고 답한 비율이 72%로 드러나며 한국에 대한 소속감 77%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아직 국적을 따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소속감이 더 높는데 이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난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출신국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거나 상실된 까닭으로 보임. 정체성의 다중성을 고려하면 한국 국적을 획득하면서 점진적으로 한국 소속감이 현재 비율보다 높아지겠지만 출신국의 정체성 혹은 소수민족자치구에 아직도 존재하는 에스닉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 공존할 것임으로 정착국에서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로 자리 잡아갈 것임. 또한 다수자 민족인 버마민족과 달리 소수민족 출신 난민들의 경우 미얀마 내에서도 계층화된 시민권과 국가폭력으로 인해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음을 볼 때 다수자 민족인 미얀마인들과 메솃을 상주국으로 살던 카렌민족,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 사이에는 출신국 정체성에 대한 기반이 상이하고 정착의지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기타 Others

<영주권 및 시민권>

12-1) 한국 영주권 신청의 관심여부

[표 12-1] 한국 영주권 신청의 관심여부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72	10	13	8	11	3	6	7	14
	68%	84%	54%	50%	69%	100%	67%	78%	82%
아니오	34	2	11	8	5	0	3	2	3
	32%	16%	46%	50%	31%	0%	33%	22%	18%

- 영주권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 106명 중 72명(68%), 아니오로 답변한 사람은 34명(32%)였음. 영주권 신청 예정인 난민은 5기가 100%로 가장 높고 1기와 8기가 각 84%, 82%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기와 3기는 각 54%, 50%정도인 반 정도의 인원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12-2) 한국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의 이해

[표 12-2] 한국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의 이해

	계 (105)	1기 (12)	2기 (24)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36	4	9	4	5	3	4	7	0
	34%	33%	38%	27%	31%	100%	44%	78%	0%
아니오	69	8	15	11	11	0	5	2	17
	65%	67%	62%	73%	69%	0%	56%	22%	100%

- 한국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자격요건²⁰⁾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34%인 36명임. 가장 최근에 들어온 8기의 경우 아무도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최근 기수들이 영주권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시사.
- 1기와 8기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대해 많은 수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음.

20) 난민인정자(F2-4)의 영주권 신청요건

1. 체류요건 : 난민인정(F2-4비자 발급) 후 2년 이상 체류
2. 소득요건 : 영주권 신청 전년도 1년간의 소득 심사
 - 가족 소득 합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약 3740만원 (2022년 기준)
3.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4. 범죄경력 조회 (해외 또는 국내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제출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서류

한국이민영주 적격시험 합격증 (영주용 종합평가),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 합격증 (귀화용 종합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영주 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
 귀화 적격과정) 중 택 1.

범죄경력 내용

대한민국의 법규를 잘 준수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국내내 범죄 경력은 전산화된 국내 시스템으로 심사
 하고 외국의 기록은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가)해외 범죄 기록- 난민 신청전 해외 체류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나)국내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불가)

- a.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b.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c.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d.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는 제외)
- e.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f.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 g.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12-3)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 12-3] 한국 영주권 신청의 어려움(복수응답)

내용	계 (65)	1기 (10)	2기 (8)	3기 (4)	4기 (13)	5기 (3)	6기 (6)	7기 (7)	8기 (14)
1) 한국어공부 및 시험이 어렵다	46	10	4	4	8	1	2	5	12
	71%	100%	50%	100%	62%	33%	33%	71%	86%
2) 소득심사 기준(통장잔고,자산)이 너무 높다	8	0	3	0	1	1	2	0	1
	12%	0%	38%	0%	8%	33%	33%	0%	7%
3) 해외 범죄경력 증명을 받기 어렵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영주 시험이 어렵다	7	0	1	0	1	1	1	2	1
	11%	0%	13%	0%	8%	33%	17%	29%	7%
5) 영주권을 받기 위해 F-2-4(난민인정자)로 2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길다	4	0	0	0	3	0	1	0	0
	6%	0%	0%	0%	23%	0%	17%	0%	0%
6)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표12-1] 영주권 신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는 총 72명으로, 신청하기 위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한국어 공부 및 시험이 어렵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음. 실제로 재정착난민들 중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답변한 9-1의 답변 내용 중 대다수가 ‘조금 할 줄 안다’에 답변했던 것으로 볼 때, 실제 영주권에 대한 도전은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수 있음. 1기부터 8기 까지 모든 그룹이 한국어 공부 및 시험의 어려움이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되는 항목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음.
- 또한 소득심사 기준이 높다고 답변한 그룹 중 주목해볼 수 있는 그룹은 2기 재정착난민 그룹이 있음. 실제로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기준 (한국은행 GNI) 연간 소득 4천 48만 2천원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임. 자산(월 평균 337만 3,500원)으로 대신 할 경우 금융재산으로 4억 1천 500만원 필요.
- 해외 범죄경력 증명의 경우는 아무도 답변한 사람이 없는 데, 이는 재정착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이전 이미 점점이 되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약 난민신청자들에 비해서는 장벽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증빙하기 어려움)

- 영주 시험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들도 있는데, 영주시험(KIIP 5단계 수료) 기준까지 한국어 레벨이 못 미치는 이들이 많기에 1번 항목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영주권을 받기위해 최소 거주기간 2년을 지나야 한다는 항목이 길다고 답변한 이들도 4기에 3명, 6기에 1명이 있음. 서울의 한 난민지원기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사례 관리 당시 영주권 및 국적변경(귀화)를 위해 최소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및 위 요건들이 오랜 기간 난민으로 제 3국에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난민인정자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다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큰 어려움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상주국인 말레이시아에서 10년 가까이 난민으로 지낸 가정의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말레이시아의 사전교육 때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음.

12-4) 한국 시민권(귀화)을 신청하였거나 혹은 신청할 예정입니까?

[표 12-4] 한국 시민권 신청 관심여부

	계 (104)	1기 (12)	2기 (22)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77	11	14	8	14	3	7	9	11
	74%	92%	64%	50%	88%	100%	78%	100%	65%
아니오	27	1	8	8	2	0	2	0	6
	26%	8%	36%	50%	12%	0%	22%	0%	35%

- 귀화(한국시민권) 신청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이는 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4%임. 1기, 4기, 5기, 7기의 답변은 80%가 넘는 이들이 귀화신청을 원한다고 답변하였고, 2기, 3기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인 56%,50%만 귀화를 원한다고 답변하였음.
- 한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관심과 신청 의지에 있어 부평거주 카렌민족 보다 김포나 시흥거주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이 높게 나타남.

12-5) 한국 시민권(귀화)를 위한 자격요건을 알고 있습니까?

[표 12-5] 한국 시민권 자격요건 이해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30	5	5	1	8	2	3	6	0
	29%	42%	22%	6%	50%	67%	33%	67%	0%
아니오	75	7	18	15	8	1	6	3	17
	71%	58%	78%	94%	50%	33%	67%	33%	100%

- 귀화를 위한 자격요건을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8%인 30명임. 과반 수 이상이 이해하고 있는 기수는 4기, 5기, 7기이며, 오래된 기수의 경우 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음. 영주권 전치주의에 의해 순서상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귀화신청으로 순서가 이어짐으로, 두 가지 모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함. 재정착난민들 중 많은 수가 오랜 시간 출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 여권을 받아 해외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만남, 한국 안에서의 보장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국적 취득(귀화)’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2-6) 한국 시민권 신청의 어려움

[표 12-6] 한국 시민권 신청의 어려움(복수응답)

내용	계 (29)	1기 (5)	2기 (4)	3기 (1)	4기 (8)	5기 (2)	6기 (3)	7기 (6)	8기 (0)
1) 소득심사 기준(통장잔고, 자산)이 너무 높다	13	1	3	1	2	2	1	3	0
	45%	20%	75%	100%	25%	100%	33%	50%	0%
2)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8	3	1	0	2	0	1	1	0
	28%	60%	25%	0%	25%	0%	33%	17%	0%
3) 귀화를 위해 5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길다	6	0	0	0	4	0	1	1	0
	21%	0%	0%	0%	50%	0%	33%	17%	0%
4) 해외 범죄경력 증명을 받기 어렵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30만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기타	2	1	0	0	0	0	0	1	0
	7%	20%	0%	0%	0%	0%	0%	17%	0%

- <12-5>에서 귀화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있는 이들 중 귀화 신청 시 어려움이 라고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은 높은 소득심사 기준임.(2023년 기준 4,048만 2천 원, 자산의 경우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 4기의 경우는 절반의 인원인 4명이 귀화를 위해 5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길다고 답변하였음. 기타 내용으로는 귀화시험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한국어가 어려워서 영주권 단계인 KIIP 시험부터 막힌다 등으로 답변함.

소 결

- 빠른 보호 조치 및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재정착난민 제도 안에서 영주권과 귀화(시민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 영주권과 시민권을 소유한 난민은 법적지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사회권의 범주도 달라짐. 해외의 사례 중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과정 및 요건이 난민에겐 다른 외국인들의 범주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난민의 인도주의적 특수성에 고려하여 기준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음.
- 한국에서 수용한 재정착난민의 경우, 4기 이후로 부터 난민지원기관에 영주권에 관한 난민들의 요청 및 문의가 많았고, 사전교육에서 영주권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재정착난민들이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세부적인 정보들을 알게 되는데,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기존에 있는 국내 국적법이 난민들에게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하였음. 상주국에서 재정착난민을 심사하는 과정 중 사전교육 단계에서 충분히 한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정착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교육에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요건을 명확히 교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실제 재정착난민들이 영주권 요건에 적용되는 언어점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난민들의 상황으로서는 영주권을 얻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짐.

- 귀화 시험에 대한 내용은 재정착난민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귀화 신청자들에게도 어렵기로 이미 언론에 나온 바가 있음. 또한 한국인이 풀어도 어렵다는 견해가 많아, 귀화시험에 관련한 어려움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2018.12.20부로 국적법 제 5조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되면서 영주권자에게만 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영주권을 가진 난민인정자는 일반귀화 요건으로 적용, 귀화용 종합평가 및 면접평가에 합격해야만 귀화가 가능.)

<은행 계좌 및 핸드폰 개설>

12-7)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표 12-7] 통장개설의 어려움

	계 (103)	1기 (12)	2기 (22)	3기 (15)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52	5	10	8	13	1	2	4	9
	50%	42%	45%	53%	81%	33%	22%	44%	53%
아니오	51	7	12	7	3	2	7	5	8
	50%	58%	55%	47%	19%	67%	78%	56%	47%

12-7-1) ‘예’라고 대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2-7-1] 통장개설의 어려움의 이유

내용	계 (52)	1기 (5)	2기 (10)	3기 (8)	4기 (13)	5기 (1)	6기 (2)	7기 (4)	8기 (9)
1) 언어소통 어려움	37	4	9	7	8	1	0	1	7
	71%	80%	90%	88%	62%	100%	0%	25%	78%
2) 신분증명의 문제	7	1	0	1	2	0	1	1	1
	13%	20%	0%	13%	15%	0%	50%	25%	11%
3) 출신국가에 따른 통장개설 제한	3	0	0	0	3	0	0	0	0
	6%	0%	0%	0%	23%	0%	0%	0%	0%
4) 여권 말소	1	0	1	0	0	0	0	0	0
	2%	0%	10%	0%	0%	0%	0%	0%	0%
5) 기타	4	0	0	0	0	0	1	2	1
	8%	0%	0%	0%	0%	0%	50%	50%	11%

- 응답자의 절반(50%)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음. 계좌 개설이 힘든 사유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3%가 신분 증명의 문제로 응답하였음.
- 은행 계좌는 한국에서 생활 전반 및 취업, 자녀 교육 등 다방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한국 재정착 초기에 개설하게 됨. 아직 언어 능력이 서툰 초기 재정착난민에게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은행 이용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 첫 계좌 개설은 난민 인정 이후 필수적이며 이 부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개설을 도와줌. 이후에 추가적인 계좌를 난민 개인이 가서 개설하기에 어렵다고 추측됨. 금융 제재를 받는 나라 (이란, 미얀마, 러시아 등)에서 온 경우, 은행에서 계좌 개설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파악하고 허가하려 함. 계좌 개설은 은행마다 그 유연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됨. 특히 적금의 경우 제재가 큼.
- 난민 자체가 낮은 은행 직원들은 은행 이용자가 여권 대신 난민여행증을 신분증으로 쓰는 것을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음. 은행에서는 송금 등 금융 거래 시 여권을 요구하지만,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 난민이 난민여행증을 제시하면 대처를 어려워함. 난민과 난민여행증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12-8)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표 12-8] 핸드폰 개통의 어려움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32	5	8	8	5	1	0	1	4
	30%	42%	35%	50%	31%	33%	0%	11%	24%
아니오	73	7	15	8	11	2	9	8	13
	70%	58%	65%	50%	69%	67%	100%	89%	76%

12-8-1) ‘예’라고 대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2-8-1] 핸드폰 개통의 어려움의 이유

내용	계 (32)	1기 (5)	2기 (8)	3기 (8)	4기 (5)	5기 (1)	6기 (0)	7기 (1)	8기 (4)
1) 언어소통 어려움	25	3	7	7	3	1	0	0	4
	78%	60%	88%	88%	60%	100%	0%	0%	100%

2) 신분증명의 문제	4	1	0	1	1	0	0	1	0
	13%	20%	0%	13%	20%	0%	0%	100%	0%
3) 여권 말소	3	1	1	0	1	0	0	0	0
	9%	20%	13%	0%	20%	0%	0%	0%	0%
4)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핸드폰 개통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답변이 70%로 다수를 차지함. 다만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한 30%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 고충이었다는 답변이 78%로 가장 컸음.
- 또한 은행 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핸드폰 개통 시 신분 증명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남. 재정착난민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여권 대신 임시여행 증명서로 입국하며 난민인정 후에도 출신국 여권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급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사용하게 됨. 이런 경우 계좌개설과 핸드폰 개통 시, 여권에 의한 신분 증명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응대하는 관련 직원도 난민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이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음.

소 결

- 재정착난민에게 매칭되는 멘토를 통해 계좌 개설 및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과정, 그에 필요한 언어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추후 혼자서도 은행 이용 및 핸드폰 개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가 필요함.
- 또한 관련 부처에서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난민의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난민여행증은 난민인정자의 여권이라는 점)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점마다 다른 기준으로 응대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함.
- 재정착난민들 중 금융 제재를 받는 나라(이란, 미얀마, 러시아 등)에서 온 경우, 계좌 개설은 은행마다 그 유연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적금이나 송금의 경우 제재가 큼. 이러한 금융제재의 경우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재정착을 선택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2-9)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연도가 언제 입니까?

[표 12-9] 입소연도

입소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답변 수	12	23	15	13	8	9	0	22	105

-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시기는 다음과 같음.

제1기(4가구 22명) 2015.12.23 입소, 제2기 (7가구 34명) 2016.11.2 입소, 제3기 (5가구 30명) 2017.7.25 입소, 제4기(8가구 26명) 중 4가구 13명은 2018.12.21에 먼저 입소, 나머지 4가구 13명은 2018.12.21.에 입소함. 제5기(8가구 17명) 2019.9.26 입소, 제6기(7가구 20명) 2019.12.11 입소, 제7기(5가구 17명) 2020.11.19 입소하였으며, 제8기(14가구 43명)중 8-1기(7가구 20명) 2022.5.26 입소, 8-2기 (5가구 12명) 2022.7.15 입소, 8-3기 (3가구 11명) 2022.8월에 입소하여 세 번에 걸쳐 입소함. 제9기(10가구 27명) 2022.12월에 입소함.

12-10)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표 12-10] 센터에서의 생활 만족도

내용	계 (105)	1기 (12)	2기 (23)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1) 매우 만족	34 32%	6 50%	15 65%	7 44%	1 6%	0 0%	2 22%	1 11%	2 12%
2) 만족	32 30%	6 50%	5 22%	7 44%	4 25%	0 0%	5 56%	0 0%	5 29%
3) 보통	32 30%	0 0%	2 9%	2 13%	10 63%	3 100%	2 22%	7 78%	6 35%
4) 불만족	7 7%	0 0%	1 4%	0 0%	1 6%	0 0%	0 0%	1 11%	4 24%
5) 매우 불만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32%가 매우 만족, 30%가 만족으로 합계 62%가 만족하는 편이어서, 7%의 불만족 및 30%의 보통을 상회하고 있음. 특히 1기는 매우 만족 50%에 만족이 50%로서 100%가 만족하였고, 2기도 매우 만족 65%에 만족 22%로 87%가 만족하였으며, 3기도 매우 만족 44%에 만족 44%로 88%가 만족하였음.

- 그러나 4기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6기에서 그나마 만족도가 조금 높을 뿐 보통이라고 답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8기에서는 불만족도 24%가 나오고 7기는 11%, 4기는 6%가 나옴. 이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원과 강사들이 초기에는 재정착난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한 잦은 변경과 다양한 생활 통제로 인해 센터 운영방식의 경직성이 대두되었고, 초기 캠프 난민에 비하여 후기 도시난민이 센터에 대한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았던 결과로 해석됨. 재정착난민 인터뷰에 따르면 경직성에 대해서는 지나친 출입통제, 아픈 자녀들을 위한 음식반출 통제, 코로나로 인해 외부 종교인 등 지나친 통제, 생필품 구입을 위한 출입의 어려움, 음식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 제기들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 다양한 음식정체성을 고려한 음식 제공, 일정한 외출시간 보장 등의 개선이 일부 있었다고 했으며 재정착난민 외에도 협약 난민신청자들의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입소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드러남.

12-11)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만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표 12-11] 센터에서의 생활 만족했던 점 (복수답변)

내용	계 (186)	1기 (30)	2기 (47)	3기 (35)	4기 (18)	5기 (3)	6기 (12)	7기 (13)	8기 (28)
1)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67	10	18	12	9	0	3	6	9
	36%	33%	38%	34%	50%	0%	25%	46%	32%
2) 숙소 시설	40	5	9	7	3	2	2	3	9
	22%	17%	19%	20%	17%	67%	17%	23%	32%
3) 음식	26	3	7	5	3	1	3	2	2
	14%	10%	15%	14%	17%	33%	25%	15%	7%
4)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교류	23	6	6	5	1	0	0	0	5
	12%	20%	13%	14%	6%	0%	0%	0%	18%
5) 법무부의 다양한 지원	26	6	6	6	2	0	2	1	3
	14%	20%	13%	17%	11%	0%	17%	8%	11%
6) 기타	4	0	1	0	0	0	2	1	0
	2%	0%	2%	0%	0%	0%	17%	8%	0%

-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만족했던 점 1위는 전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임. 이는 재정착난민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이므로 전체 만족항목 선택 중 가장 많은 36%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만족항목으로 선택함.
- 다음 순위로 비교적 좋은 만족도가 드러난 항목은 숙소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는 2인실 33개와 가족실(4인실) 4개로 대략 82명 수용의 규모로 잘 꾸며진 37실의 난민숙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족실보다는 2인실이 많아서 크고 작은 가족단위로 구성된 재정착난민들에게는 불편한 점들도 있었겠지만 전체 의견의 22%가 숙소시설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였음. 반면 음식은 전체 의견 중 비교적 낮은 14%만 만족항목으로 선택되었음.
- 비교적 후순위의 만족항목으로 선택된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교류나 법무부의 다양한 지원은 기수별 차이를 보였는데 1,2,3기 난민들의 경우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교류나 법무부의 다양한 지원을 만족항목으로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기 이후의 후기 난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마지막 8기 난민들의 경우 아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나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기타항목에는 병원에 가운 것(1), 안전(1), 막연히 좋다(1), 좋은 항목이 없다(1)가 있었음.

**12-12.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복수답변)**

[표 12-12] 센터에서의 필요 개선점

내용	계 (139)	1기 (16)	2기 (24)	3기 (17)	4기 (21)	5기 (3)	6기 (13)	7기 (15)	8기 (27)
1)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52 37%	7 43%	12 50%	5 29%	9 43%	1 33%	3 23%	5 33%	10 37%
2) 숙소 시설	13 9%	2 13%	2 8%	0 0%	2 10%	1 33%	1 8%	1 7%	4 15%
3) 음식	35 25%	4 25%	7 29%	7 41%	5 24%	0 0%	3 23%	2 13%	7 26%

4)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교류	15	1	1	1	2	1	2	1	3
	11%	6%	4%	6%	10%	33%	15%	7%	11%
5) 법무부의 다양한 지원	18	1	0	4	3	0	3	4	3
	13%	6%	0%	24%	14%	0%	23%	27%	11%
6) 기타	6	1	2	0	0	0	1	2	0
	4%	6%	8%	0%	0%	0%	8%	13%	0%

- 재정착난민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것이므로 만족 뿐 아니라 개선에 관하여도 전체 개선요구 중 가장 많은 37%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집중되고 있음.
- 전체 개선요구항목 중 2번째로 많은 25%가 음식이었는데, 음식은 문화와 종교적 차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 주고 이슬람 배경의 난민들을 고려한 할랄음식도 제공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기호가 달라서 집단생활에서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출신지역에 따른 음식문화를 연구하면서 꾸준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기타 개선사항은 영주권취득이나 KIIP교육에 대하여 출국 전 사전교육이 없었던 점 1,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생활 특히 밥 먹을 때 예절 차이로 인한 불편함 1, 외출에 대한 통제 1, 개선요구사항 없음 2.

소 결

(1)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초기 적응교육

- 재정착난민들은 입국 즉시 초기 적응교육을 위해 영종도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하여 6개월 내외의 정착교육을 받고 퇴소하여 부평, 김포, 시흥 등지의 정착지로 나갔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성인 정착교육은 2개월씩 3단계로 6개월간 진행되는데 1단계는 초기적응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은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6개월간 총 582시간(주 5일, 일3시간)을 운영하며 능력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됨. 2단계는 취업교육에 중점을 두

고 한국사회 문화의 이해, 직업선택 및 구직 요령, 근로관계 기본 지식 등을 배움. 특히 구직, 취업을 위해서는 정보화교육이 중요하므로 3기 재정착난민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컴퓨터 작동법, 인터넷 사용 정보검색, 스마트폰 사용법 등 정보화 관련 교육이 새로 추가됨. 3단계는 정착지와 취업업종을 결정하기 위해 정착예정지역의 이해, 직장문화 익히기, 선택한 직업의 용어 익히기 등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됨.²¹⁾

- 한국어교육 이외에 한국사회 문화교육은 주4회, 일2시간 총 306시간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체험학습(젓가락 사용법, 김밥 만들기, 한국음식 명절음식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쇼핑, 아파트 생활체험, 대중교통, 교통신호체계 및 픽토그램 익히기, 미용실·영화관 등 편의·문화시설, 은행 업무, 고궁 등), 정보화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특강(금융 경제특강, 원예 테라피, 홈페이지 직업특강, 소방안전교육, 생활범죄예방 등), 기업체 견학, 구직체험 등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생활적응교육과 취업 및 정착준비교육임.
- 학령기 학생들은 영종도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원적을 두고 다문화 징검다리 학교인 교육부 산하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초등학생은 6개월, 중고생은 1년간 교육을 진행하면서,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방과 후 과제수행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함.
- 미취학 아동을 위하여 지원센터 생활관 1층에 영·유아놀이방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이 한국어 수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보육교사가 언어활동, 신체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당해 연도 취학예정 미취학아동에 대하여는 한글 특별교육을 실시함.
-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1) 최단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가동, 2) 오랜 기간 동안 캠프 생활을 해온 난민들

21) 1기 9개월간 정착교육 커리큘럼은 1단계 초기적응(2개월), 2단계 한국어 집중교육(4개월), 3단계 취업 및 정착지원(3개월)로 나누어, 600시간의 한국어교육(주5일간 1단계 매일2시간, 2단계 매일3시간, 3단계 매일 5시간), 192시간의 한국문화이해(주4일간 1단계와 2단계 매일 2시간), 294시간의 체험학습과 특강(매 금요일 오후 4시간), 292시간의 심리, 종교, 체육활동(주4일간 매일 2시간)으로 구성됨. cf. 센터 내 난민신청자의 한국어교육시간은 486시간, 한국문화교육시간은 146시간임.

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현장 체험학습도 병행 실시(기존 협약 난민신청자 교육생들과 분리하여 교육 및 취업 지원 실시), 3) 문화충격 극복을 위한 심리안정, 정서순화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유대강화, 결연 가족 맺기, 개인별 멘토 지정 등 프로그램 다양화(성인은 재정착 생활의 안정 및 취업 관련 결연, 아동은 학업증진 관련 결연에 중점), 4) 난민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재정착난민 교육 및 취업 등 정착 지원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 운영(학습 능력에 따른 반 편성 학습 부진 자에 대하여는 별도 보충수업) 등.²²⁾

-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본격적인 사회통합기관이라기 보다는 지역 사회정착을 위한 트랜짓 센터와 같은 곳으로서 재정착난민들의 지역 정착 전 기초교육 및 적응 지원의 업무로서 한국어교육 이외에 인적자원조사 및 경력 등을 고려한 사업체 매칭노력 등 노동시장 탐색과 취업알선, 자녀들의 등하교, 출퇴근, 교통 등을 고려한 주거지 선정, 건강권을 위한 질병관련 파악과 지원, 후원연계, 가족결합 수요파악과 지원 등 종합적인 사회통합 준비가 필요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집단생활이 가진 다양한 위기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소재 등으로 인한 외출 등의 통제와 제한, 급식의 통제와 매점개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공무원이 운영하는 데서 오는 한계, 관료주의, 무한책임주의 때문에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나가야 함.

(2)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재정착난민들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퇴소계획의 일환으로 거주지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취업 및 취학을 확정된 후 퇴소함. 거주지 임대주택마련을 위하여 2년내 상환조건의 보증금 1,000만원 대출과 1년간의 월임차료를 무상지원함. 취업은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의 추천을 통해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회 위원들이 운영 하는 회사 등을 선정하고 사전에 재정착난민 본인들이 취업처를 미리 견학하게 함으로써 가장 선호하는 직장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함.
- 성인들은 퇴소 후에도 정착지 인근 사회통합운영기관이나 지역학습관으로 학습장소를 변경하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계속

22) 법무부 난민과, 2016년 재정착난민 정착지원 세부 추진계획, 2016.4.

함. 초등학생들은 국내 학교생활의 빠른 적응을 위해 퇴소와 동시에 정착지 학군 내 일반 초등학교로 전학 조치하고 한누리학교 위탁 교육은 종료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은 퇴소 즉시 원적 학교를 정착 예정지 인근 일반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로 변경 하되 한국어 실력 및 학교 적응 문제, 기숙사비 재원마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학기 혹은 2학기 동안 한누리학교 위탁교육을 연장하기도 하였음. 부평의 경우 아동들의 부족한 교육보충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 이끌림에서는 방과 후 교육으로 영어, 수학 등 교과목과 수업을 비롯하여 취미를 위해 연극, 합창, 태권도, 컴퓨터 등 교육을 진행함. 유아는 정착 예정지 인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우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유치원비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후에는 사실상 정착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 한국어교육,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질병의 치료와 정신건강 등 향후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지원센터에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함. 특별히 한국어 교육은 재정착난민을 위한 필수교육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재와 커리큘럼을 새로 마련하여야 함. 가족단위로 들어온 재정착난민 가장들의 경우 가족부양의 책임 때문에 제조업 등에 한번 취업하면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우므로 지원센터에 있는 동안 충분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고, 일본처럼 퇴소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직장 선택 시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취업 등을 위해서 일정기간 직업탐색기를 제안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재정착난민들의 정착지가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가까운 수도권이었기에 6개월 정도를 해당 지원센터에서 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만약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정착지를 선택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을 모두 지내고 난 뒤 정착지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리셉션 센터 기능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정착지역에서의 거주를 혼합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직장 탐색과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생활 멘토 Mentors>

12-13)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후, 생활멘토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표 12-13] 퇴소 후 생활멘토 도움 경험 여부

	계 (105)	1기 (11)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88	11	21	14	11	2	9	7	13
	84%	100%	88%	88%	69%	67%	100%	78%	76%
아니오	17	0	3	2	5	1	0	2	4
	16%	0%	13%	13%	31%	33%	0%	22%	24%

- 멘토링 제도가 1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16%임. 이는 조기 퇴소 후 정착 등 특정한 사유로 멘토가 위촉되지 않은 경우, 위촉되었지만 멘토가 활동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멘토를 거부한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로서 독립한 경우 등으로 보임. 4기(31%), 5기(33%), 7기(22%), 8기(24%)의 경우 일부가 생활멘토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멘토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요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14) 위 질문(12-13)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생활 멘토의 도움은 만족하십니까?

[표 12-13] 퇴소 후 생활멘토 도움 만족도

내용	계 (88)	1기 (11)	2기 (21)	3기 (14)	4기 (11)	5기 (2)	6기 (9)	7기 (7)	8기 (13)
1) 매우 만족	43	9	14	11	2	0	3	2	2
	49%	82%	67%	79%	18%	0%	33%	29%	15%
2) 만족	21	2	7	2	1	2	4	0	3
	24%	18%	33%	14%	9%	100%	44%	0%	23%
3) 보통	22	0	0	1	7	0	2	5	7
	25%	0%	0%	7%	64%	0%	22%	71%	54%
4) 불만족	2	0	0	0	1	0	0	0	1
	2%	0%	0%	0%	9%	0%	0%	0%	8%
5) 매우 불만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생활멘토에 대한 만족도는 강한 긍정을 표한 1기, 2기, 3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도 보통까지 포함하면 98%이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포함하면 73% 역시 높은 비율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수별로 보면 4기와 8기에서 불만족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빈도 역시 4기(64%), 7기(71%), 8기(54%)에서 높게 나타나 만족이나 매우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하면 1기 100%, 2기 100%, 3기 93%, 4기 27%, 5기 100%, 6기 77%, 7기 29%, 8기 38%로 나타나 만족하는 비율은 1기, 2기, 3기, 5기, 6기에서 77%이상으로 나타남. 그러나 4기, 7기, 8기는 38%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냄. 부평 1기~3기와 김포의 5기, 6기는 만족도가 높고 김포 4기, 7기와 시흥 8기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부평 거주자들 만큼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평의 1기~3기와 달리 김포와 시흥 정착자들의 경우 민족 동질성이 높지 않고 한부모가정의 비율도 높고 접촉이 차단되던 코로나 시기에 입국한 이들 역시 많다는 측면에서 멘토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돌봄과 통역, 행정 지원의 수요가 높은 미취학 아동들과 어린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역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12-15) 위 질문(12-13)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생활멘토에게 만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표 12-15] 생활멘토 만족도(복수답변)

내용	계 (152)	1기 (23)	2기 (41)	3기 (26)	4기 (15)	5기 (4)	6기 (12)	7기 (13)	8기 (18)
1) 생활멘토와의 교류	41	3	6	9	7	2	3	2	9
	27%	13%	15%	35%	47%	50%	25%	15%	50%
2) 생활멘토의 한국어 지도	46	8	17	6	4	1	2	5	3
	30%	35%	41%	23%	27%	25%	17%	38%	17%
3) 생활멘토의 생활 지도	35	7	10	8	2	1	2	3	2
	23%	30%	24%	31%	13%	25%	17%	23%	11%
4) 생활멘토의 적극적인 연계지원	27	5	8	2	2	0	4	2	4
	18%	22%	20%	8%	13%	0%	33%	15%	22%
5) 기타	0	0	0	1	0	0	1	1	0
	0%	0%	0%	4%	0%	0%	8%	8%	0%

- 생활멘토에게 가장 만족했던 점은 한국어지도(30%)로 가장 높고, 생활멘토와의 교류(27%), 생활지도(23%), 적극적인 연계지원(18%) 순서로 높게 나타남. 한국어 지도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기수는 1기, 2기, 7기이며 7기의 경우 멘토 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도가 낮았으나, 한국어 지도에 대해서는 만족을 나타냄. 7기는 예외적으로 보이지만 6기~ 8기까지는 코로나 19시기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을 비롯해 지역정착을 시작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됨. 멘토와의 교류에 만족도가 50% 이상인 기수는 3기, 5기, 8기임.
- 4기와 8기는 멘토 제도에는 만족도가 낮았지만 멘토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생활 지도와 연계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8기의 경우 미얀마 멘토와 한국인 멘토를 한 팀으로 묶어 멘토를 지정하였는데 한국인 2인 1조로 묶어진 멘토보다는 미얀마 통역인이 한 명 위축되었다는 측면에서 교류는 원활하겠지만 한국어 지도에는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얀마인들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감추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와 관련하여 정보유출 등의 불안감과 거리감을 두고 있는 소수민족 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보임. 동시에 한국 생활과 보육지도에 필요한 생활지도와 자원동원이 필요한 적극적인 연계지원에 있어서는 한국인 1인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6기는 연계 지원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16) 위 질문(12-13)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생활멘토 제도의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표 12-16] 생활멘토 제도의 필요 개선점(복수답변)

내용	계 (96)	1기 (11)	2기 (26)	3기 (17)	4기 (14)	5기 (5)	6기 (12)	7기 (8)	8기 (14)
1) 생활멘토와의 교류	22	0	4	1	6	1	2	0	8
	23%	0%	15%	6%	43%	20%	17%	0%	57%
2) 생활멘토의 한국어 지도	30	1	13	4	4	1	2	2	3
	31%	9%	50%	24%	29%	20%	17%	25%	21%
3) 생활멘토의 생활 지도	18	1	5	3	1	1	2	3	2
	19%	9%	19%	18%	7%	20%	17%	38%	14%
4) 생활멘토의 적극적인 연계 지원	19	1	2	7	1	2	4	1	1
	20%	9%	8%	41%	7%	40%	33%	13%	7%
5) 기타	15	5	2	2	2	0	2	2	0
	16%	45%	8%	12%	14%	0%	17%	25%	0%

- 개선점에 대해서는 한국어지도가 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멘토와의 교류, 연계지원, 생활지도 순으로 나타남. 기수별로는 1기는 한국어지도에 만족도가 높고 개선점은 기타가 높음. 2기의 경우 한국어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국어에 대해 50%로 높고 3기는 교류에 만족도가 높고 개선점에 있어 연계지원이 높음. 4기와 8기는 교류에 만족도가 높음과 동시에 개선희망도 높았음. 5기는 교류에 있어 만족도가 높았고 개선점은 연계지원이 높으며 6기는 연계지원에 있어 만족도, 개선점 모두 높게 나타남. 7기는 한국어에 만족도가 높았고 개선희망은 생활지도가 높음. 8기는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동시에 개선희망에 대해서도 높음.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교육관련 정보 및 조언을 받고 싶음(2명), 건강문제(보험)에 대한 조언 및 영주권(귀화)관련 정보를 받고 싶음(7기 2명), 나를 도와줬던 멘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멘토가 그렇지는 않음(1명) 등이었음.

12-17) 위 질문(12-13)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생활멘토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표 12-17] 생활멘토 제도 인식여부

	계 (17)	1기 (0)	2기 (3)	3기 (2)	4기 (5)	5기 (1)	6기 (0)	7기 (2)	8기 (4)
예	5 29%	0 0%	2 67%	1 50%	1 20%	0 0%	0 0%	0 0%	1 25%
아니오	12 71%	0 0%	1 33%	1 50%	4 80%	1 100%	0 0%	2 100%	3 75%

- 멘토의 도움을 받았느냐에 아니오라고 답한 이들중에서 생활멘토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71%로 높게 나타남. 출입국에서 매 기수마다 멘토를 위촉하고 있지만 멘토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멘토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모든 기수에 멘토위촉이 행해졌었고 멘토단과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과 담당공무원의 관리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됨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13의 분석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임.
- 12-13에서 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 응답이 4기(31%), 5기(33%), 7기(22%), 8기(24%)였는데 이 문항에서 이해를 묻는 이 질문에 4기(80%), 5기(100%), 7기(100%), 8기(75%)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기나 8기처럼 멘토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도움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음.

소 결

- 멘토링 제도가 1기부터 8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멘토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16%로 나타났다는 점은 멘토제도에 대한 관리에 있어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4기, 7기, 8기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요인을 찾고 분석하는 것이 멘토제도의 개선점을 드러내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5기의 경우 김포에 정착한 이들로 한부모 가정이 많았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미얀마 재정착난민들 중 일부의 멘토 거부, 재정착난민 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 유지, 국내 타 지자체 이주와 연구참여 거부 등의 사례를 볼 때 정착 초기에 영향력이 큰 멘토 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청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1기부터 7기까지 주로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익숙한 한국인 2인 1조를 위촉하여 격주로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한국어지원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8기에는 미얀마인 1인, 한국인 1인을 1개조 구성해 위촉함으로써 언어소통이 가능해서 상호교류의 장점은 있었지만 한국어지도 및 생활지도, 자원동원 등을 위한 연계지원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멘토제도가 전문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앞서 언급했듯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난민화 과정의 요인으로 인해 다수자 민족인 미얀마인들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직도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보의 유출을 두려워 하기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멘토를 미얀마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이렇듯 생활멘토와 관련해서는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매우 전문적이고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으로 도입하는 난민특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사전에 연구하고 정착과정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각 기수의 특성 역시 멘토 위촉이나 운영을 위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8기의 경우 8월11일 입국해서 12월 14일에 시흥시에 정착하느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점과 타 기수에 비해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자녀의 수가 많기에 보육을 위한 생활지도 및 자원연계가 중요한 시점에 적합한 멘토링 제도의 운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즉 한국어교육과 보육 및 생활지도 나아가 자원연계 등에 적합한 멘토 위촉과 멘토링 제도 운영의 미를 살리도록 운영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멘토링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지원과 멘토링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주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멘토의 과도한 개입이나 과도한 멘티의 요구 등으로 인한 멘토링의 중단, 멘토멘티 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의 부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족결합>

12-18) 국외에 직계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 있으십니까?

[표 12-18] 국외 직계가족 여부

	계 (106)	1기 (12)	2기 (24)	3기 (16)	4기 (16)	5기 (3)	6기 (9)	7기 (9)	8기 (17)
예	41	5	12	6	6	0	3	4	5
	39%	42%	50%	38%	38%	0%	33%	44%	29%
아니오	65	7	12	10	10	3	6	5	12
	61%	58%	50%	63%	63%	100%	67%	56%	71%

- 5기를 제외하면 모든 기수에서 39%(31명)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즉 잠재적 가족결합권이 있는 이들이 국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결합 수요는 1기, 2기, 7기에서 높고 5기와 8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설문조사 과정에서 만난 김포 거주자들의 상담 요청으로 만난 몇 가정의 경우 가족결합 수요에 있어서 자녀들의 연령대가 미성년자들 보다는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김포의 경우 이미 자녀 혹은 배우자가 국내로 입국한 가정들이 여럿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12-19) 위 질문(12-18)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서 직계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재결합하길 원하십니까?

	계 (41)	1기 (5)	2기 (12)	3기 (6)	4기 (6)	5기 (0)	6기 (3)	7기 (4)	8기 (5)
예	37	5	10	5	6	0	2	4	5
	90%	100%	83%	83%	100%	0%	67%	100%	100%
아니오	4	0	2	1	0	0	1	0	0
	10%	0%	17%	17%	0%	0%	33%	0%	0%

- 응답을 통해 보면 가족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결합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2기, 3기, 6기에서 직계가족이 해외에 있지만 가족결합을 원하지 않음. 그 외 가족결합을 원하는 응답이 1기 100%(5명), 2기 83%(10명), 4기 100%(6명), 6기 67%(2명), 7기 100%(4명), 8기 100%(5명)으로 나타남.

12-20) 위 질문(12-18)에 ‘예’라고 응답하고 가족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결합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표 12-20] 가족결합의 어려움(복수응답)

내용	계 (50)	1기 (5)	2기 (13)	3기 (8)	4기 (6)	5기 (0)	6기 (4)	7기 (8)	8기 (6)
1)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22	5	3	4	4	0	1	2	3
	44%	100%	23%	50%	67%	0%	25%	25%	50%
2) 숙소 시설	3	0	1	1	0	0	1	0	0
	6%	0%	8%	13%	0%	0%	25%	0%	0%
3) 음식	4	0	3	1	0	0	0	0	0
	8%	0%	23%	13%	0%	0%	0%	0%	0%
4)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교류	5	0	2	0	0	0	1	2	0
	10%	0%	15%	0%	0%	0%	25%	25%	0%
5) 법무부의 다양한 지원	12	0	2	2	2	0	1	2	3
	24%	0%	15%	25%	33%	0%	25%	25%	50%
6) 기타	4	0	2	0	0	0	0	2	0
	8%	0%	15%	0%	0%	0%	0%	25%	0%

- 가족결합의 어려움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이 44%(2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1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령기 정착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응답으로 파악됨. 이는 비단 난민 뿐 아니라 여타의 이주민들 역시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자녀와의 결합에 대해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난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들이 현재 거주지의 안전, 불안정한 임시적 거주, 자녀의 보호자 즉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없는 상황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주민들과는 차이점이 존재함. 다음으로 법무부의 다양한 지원이 24%(12명)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난민들의 가족결합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입장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가족결합을 위해서는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교류, 음식, 숙소 시설 등의 쟁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남. 기타의견으로 비자가 안 나와서 등으로 나옴.

소 결

- 가족결합 문항에서 제기된 쟁점들 가운데 법무부 즉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주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리셉션센터에서부터 재정착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족결합의 수요 파악과 지원 방안들과 개입과 지원범위 등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함. 즉 가족결합의 수요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가정별로 스스로 해결할 문제인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과 해외 사례에 비추어 한국정부의 가족결합 지원 매뉴얼의 준비 등 정리가 필요해 보임.
- 인터뷰에 따르면 재정착난민 중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가족결합 수요가 있어서 말레이시아에서 UNHCR에 요청했지만 한국에 가면 도와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한국에서 와서 다시 리셉션센터에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지역으로 나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을 뿐이라고 함. 자녀들이 미얀마의 인접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있었고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인접국 당국의 국경차단으로 미얀마 귀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가족결합이 불가능해졌기에 요청을 한 사안임. 이러한 경우에 한국의 외교부와 법무부 나아가 UNHCR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족결합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으로 비자가 안 나와서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현지 상황과 대사관과 관련된 문제로 추정되며 이 또한 난민의 가족결합에 대한 한국정부의 분명한 정책적 입장이 요청되는 지점으로 앞선 언급과 동일선상에 있는 사항으로 보임.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은 성공적인 재정착 난민 수용 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정착한 재정착난민들의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의 정규화 등 향후 한국 재정착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8년간 한국에 정착한 성인 141명의 재정착난민가운데 107명의 재정착 난민을 대상으로 11가지 영역(상주국 경험, 출국 전 사전교육, 취업 및 재정, 교육 훈련, 아동 교육, 건강, 주거, 동족사회 결속, 언어와 문화, 안전 및 차별, 참여) 및 기타 영역(영주권 및 시민권, 은행 계좌 및 핸드폰 개설,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 생활멘토, 가족결합)에서의 정착실태 조사를 수행하였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착 지표인 RISE (Refugee Integration Survey and Evaluation)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히 상주국 경험을 추가하여 상주국에서의 경험 등이 정착과정에 미치는 영향들도 파악하고자 함. 또한 2022년까지 한국에 수용된 재정착난민의 정착실태를 분석하되 특별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수용된 1기부터 3기까지의 재정착난민에 대하여는 2018년 조사 이후 5년간 정착지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2018년 이후 수용된 4기부터 8기까지의 재정착난민 정착실태와 비교하였음.
- 실태조사 4장의 1. 상주국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한 1기~3기의 경우 카렌족으로 태국이 상주국이었고, 김포시와 시흥시에 정착한 4기~8기의 경우 다민족으로 말레이시아가 상주국이었음. 태국 메솻의 캠프난민(1기~3기)들은 1가정 로힝야를 제외하고 모두 카렌족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4기~8기)은 미얀마 내 대표적인 다수민족 미얀마족과 7대 소수민족들인 산, 카렌, 카친, 몬, 라카인, 친, 카야를 포함하여 동일 민족 자치구 내 다양한 민족 출신들로 이루어져 13개 이상의 언어정체성을 가진 다민족, 다문화, 다정체성 커뮤니티로 드러

남. 또한 부평의 카렌민족이 대부분 족내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반면 김포시와 시흥시의 도시난민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족외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족내 언어, 민족, 문화적 다양성이 있음.

- 상주국에서의 경제활동 경험 차이가 뚜렷하고 캠프난민은 농업, 도시난민들은 요식업과 서비스업이 다수였으며 한국에서의 경제생활 참여는 도시난민에게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상주국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체류자격, 정부의 단속, 생계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단속은 난민캠프인 메솿보다는 말레이시아 거주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남. 도시난민들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직간접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했던 길거리, 엘리베이터, 집 문 앞, 집안에서의 강도, 살인 등에 관한 기억과 공포감이 단속의 경험 못지 않게 강한 것으로 드러나 정착국인 한국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상주국에서 난민들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배제된 건강권,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된 경제활동, 나아가 교육, 주거, 돌봄, 강도로 인한 재산과 생명의 위협과 같은 안전권으로부터 배제 등 모든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된 비시민들로 드러나며 상주국에서 배제된 삶의 불안정함과 곤궁함으로 인한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상주국 경험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상주국에서의 트라우마, 경제활동, 교육 등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 등을 포함한 난민들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착 난민들의 선정과 정착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상주국 경험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4장의 2. 출국 전 사전교육에 관한 조사에서 한국은 IOM과 협력하여 최종 선발된 난민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사전교육을 실시 했으며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85%)가 출국 전 사전교육이 한국에서의 정착 및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함. 출국 전 사전교육이 재정착 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출국 전 사전교육은 정착국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 통합의 첫 단추이기에 사전 교육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4기-8기 난민들 사이에서 말레이시아 UNHCR에서 한국에 가면 영주권을 줄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으나 한국정부에서 영주권을 주지 않아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들 역시 사전교육 과정에서 해소되어야 할 왜곡된 기대 혹은 정보라 할 수 있음.

- 4장의 3. 취업 및 재정에 관한 조사에서 4-8기의 도시난민들의 취업 및 이직 활동이 앞의 1-3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드러남.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1%로 나타났고 구직방식은 지인을 통해서 (38%), 일자리 센터 및 공공서비스 기관(36%), 직업소개소(8%), 시민-종교단체 (7%), 인터넷(4%) 순서로 답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여성이 71%로 압도적으로 많음. 여성 미취업자의 경우 31%가 자녀돌봄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답하였음. 1-3기는 4-8기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수가 조금 적고, 4-7기의 취업률은 한부모, 1인가구 비율이 높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음. 8기의 경우 조사 설문 당시, 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대다수 취업상태임. 4-7기는 도시난민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지속했다는 특성과 정착지역인 김포시에 제조업체가 2021년 조사기준 13,582개 업체로 많은 지역특성이 활발한 취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김포시 거주자들 중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의견은 없으나 부평거주자들과 시흥거주자들에게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드러남. 직장을 갖는데 방해요소로는 언어(49%)였으며, 다음으로 아이양육과(16%), 건강문제(12%)임. 모든 기수가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 ‘언어’가 가장 큰 방해요소라고 답변하였으며, 일하면서 갖는 어려움에서는 언어(44%), 관계의 어려움(19%), 작업환경 및 일 자체의 어려움 (각 11%), 작업시간(7%) 순으로 나타남.
- 재정착 난민들의 67%가 제조업 근무 경험에 응답하였고 제조업체의 업무 강도가 높으며 노동현장에 한국인보다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아서 한국어 사용이 빈번하지 않기에 근무경력이 오래되어도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아무런 제약 (언어, 시간, 환경)이 없다면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제조업 39%, 식당 15%, 농업 12% 순으로 나타남. 말레이시아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이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 한국인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고 말레이시아와 달리 사업주들의 통제 등 서비스업계의 사업주와 직원간 관계가 다소 권위적이며, 종업원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제한 혹은 팀문화의 부재 등이 서비스업 진출의 장애 요인들로 드러남. 또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서비스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에 대해 한국어 기반 비즈니스 문화, 자격증 요구 문화, 과도한 고객 중심 문화(요구도가 높은 소비자)로 설명하는 의견도 있음. ‘카렌’ 재정착난민 20대 중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미성년으로 정착을 시작한 ‘자녀그룹’의 경우 그들의 ‘희망직군’과 달리 현실에서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고등교육’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로탐색과 함께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4장의 4. 교육 훈련의 경우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20%(21명)가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아니오’라고 답변한 이들은 79%(85명)로 대다수가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이 없었음. 직업과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1%(12명)에 지나지 않음. 부평거주 2기(6명)가 가장 많은 면허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자격증 소유 답변자들은 모두 20대였으며, 대부분 미성년일 때 입국하여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라 답변함.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정착이 질적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내일배움카드 활용과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안내가 필요하며 자격증 관련 교육을 다양한 언어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은 그 중요성이 재정착 난민 사회뿐 아니라 이주민사회에서도 부각되고 있는데, 그들이 시험을 보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하나로 응시를 하게 됨. 2018년 8월 이전에는 다언어 시험이 가능했으나 이후로는 위 3개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의 시험이 폐지되었음.
- 한국어 수업에 대해 90%(96명)가 받은 적이 있다, 10%(11명)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함. 한국어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는, 73%(8/11)가 건강문제로 답하였고, 일부는 아이 양육으로 답함. 학위과정에 대한 등록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86%, 고등학교 과정까지 진행했다는 응답자는 14%, 전문대 1%, 대학교 1%임. 전문대 및 대학교 과정을 이수한 이는 1기와 2기로 정착이 오래된 기수에서 소수로 드러났고, 고등과정 이수자의 경우 20대가 80%정도이며, 30대가 20%임. 전문대의 경우는 20대가 100%, 대학교(학사) 이수의 경우는 20대 50%, 5-60대 50%임. 학위과정을 등록한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입국하여 성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음. 김포시의 난민가정자녀들 역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제조업으로 바로 진입하거나 대학진학에 성공하였지만 학업의 어려움과 생활비 등의 문제로 제조업에 취업하는 이들이 있는 실정임. 노동을 통해 자력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야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중도에 학업의 어려움이나 생활비의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고급교육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4장의 5. 아동 교육에서 자녀가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난민은 73%였으며,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은 만족한다가 84%로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친구들과의 관계도 92%가 잘 어울리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자녀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답변자는 90%였음. 자녀가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51%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5%임. 학교선생님의 말씀이나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의 이해도는 ‘이해한다’는 답변이 37%,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63%로 부평구에 정착한 기수들 역시 정착이 오래 되었어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음.

- 재정착난민 자녀들은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무는 동안 학교 연계 및 입학 문제 처리 등의 도움을 받고, 퇴소 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됨.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퇴소 후 각 지역에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등에 수용되고 있으나 대기 기간이 길고 경쟁발생 정도에 따라 수 년이 걸리기도 함. 자녀들이 태국 캠프나 말레이시아의 상황에서 정규 학교 과정에 차이가 있거나 상주국 환경에 따라 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에 한국에서의 정착 시 학교와 수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제조업 일자리에서 수입증대를 위해 잔업을 늦게까지 하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돌봄과 급식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도움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한국인선주민 자녀들과는 달리 초기 정착기의 난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기에, 지역아동센터 역시 모든 프로그램을 이원화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함.

- 김포시의 경우 지역의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여 재정착 난민 가정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것이 용이해졌음. 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 한국인선주민 아이들과 돌봄 경쟁이 발생, 지역아동센터의 인적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함. 김포시와 시흥시의 경우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지역자원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이 같은 조건이 잘 형성됨. 일반 학교만으로는 정착을 시작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책임지는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함께 책임지는 것이 필요함. 재정착난민들의 정착지역 선정 시 난민가정의 자녀와 성인들을 위한 교육, 돌봄, 사회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여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이외에도 학교의 공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공지 문자나 문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소수언어의 경우 영어 번역이라도 제공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통역 기관 적극적 연계 등에 있어서 교육당국의 정책적 제고가 필요함. 이는 가족단위로 정착하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수요임. 또한 난민들이 지역정착 초기 위축되는 멘토들을 통해 통역이나 상담, 교육 등 유관 서비스 기관들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정착난민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관한 소통 및 근황에 대해 대다수의 부모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자녀들이 한국사회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과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 외에도 ‘이주민’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차이와 차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기회의 문제, 이중언어 및 문화를 경험하며 생기는 정체성의 문제 등은 여전히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문제이기에 아이들의 학교 적응 및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상담가 또는 멘토 등이 필요하며, 보다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또한 부모가 바쁜 생업 중에서도 자녀의 상황에 대해 안정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학교 간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4장의 6. 건강과 관련된 조사에서 전체 재정착 난민의 13%는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답함. 이를 볼 때, 개별적인 사유로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본 제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측 됨. 이러한 현황에 따라 재정착난민에게 낯설 수 있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정보 제공 시에는 국가건강보험이 문화적으로 낯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유형(직장가입, 지역가입), 가입 유형 전환 시점, 기초생활 수급 시의 추가 변동사항,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에게 차별적임. 문제는 난민인정자, 즉 재정착난민에게도 그 기준이 까다로움.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는 국민에 준하는 보장을 받기로 된 대상이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또한 국민과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함.
- 재정착 난민은 병원 예약 및 의료기관 정보 접근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본인의 증상에 알맞은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의학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또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의료진과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기수(거주연도)와 상관없이 높다는 점에서 지원이 절실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언어지원은 통역 제공, 건강 및 질병 관련 쉬운 한국어 표현 책자 제공, 증상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자료 제공, 난민 대상 한국어 심화교육 제공, 의료기관 대상 외국인 환자 응대 교육 및 외국어 서식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음.

- 더불어, 재정착 난민의 91%가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으며 주로 보고하는 증상은 불안, 심한 스트레스, 불면, 우울감 등임. 난민의 특성상 박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재정착 난민의 정신건강 지표를 보았을 때, 이들이 한국에서 건강하게 정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으려면 주거나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성인 재정착 난민의 정신건강은 그들이 양육하는 난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난민 가정 전체를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함. 난민이 겪은 박해를 그 인생에 닥친 ‘재난’과 가깝다고 생각할 때, 국가에서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회복 서비스가 이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4장의 7. 주거에 관한 조사에서는 정책 대상이 재정착 난민을 포함한 협약 난민까지로 확대가 필요함. 모든 난민인정자도 공공 임대 주택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함. 2022년 인천과 김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경우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였음. 이는 추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착을 시도하는 난민 가정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건강, 주거비 절약 등을 고려하면 장점이 많음. 친족 네트워크가 없는 정착국에서 돌봄 노동의 빈곤과 수입의 한계가 있는 초기 재정착 난민,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건강권, 안전권, 경제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등 돌봄기관이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자립과 사회적 비용 발생 최소화에 도움이 됨. 주거는 곧 정신적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자녀 양육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파악하고 자본을 축적하기까지 공공 임대 주택은 재정착난민에게 큰 도움이 됨. 사회적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착 난민이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이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소득조건 충족 시, 공공 임대 주택은 낮은 월세를 내고 지속적으로 거

주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아파트단지 이기에 다세대 주택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음.

- 4장의 8. 동족사회의 결속은 기수와 정착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함께 정착한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동족 사회 소속감, 모국과 관련된 문화, 종교, 언어 관련 정보 획득 역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수별로 차이는 드러나며 특히 1기~3기는 매우 높게 나타나면 4기~8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차이의 요인으로는 각 지역의 정착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차이, 해당 지역의 노동시간과 강도 차이, 종교를 비롯한 민족 공동체의 활성화, 민족의 동질성,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다양성,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수요의 차이, 가족구성의 차이(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가족 등), 민족 가게 등의 활성화로 인한 사랑방의 존재 유무, 주거지의 밀집도, NGO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고유한 문화정체성 유지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문화적 수용이 균형을 이룰 때 성공적이고 건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정착 난민들의 동족사회 결속은 기수별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계열적으로 1기~4기와 같이 장기간 정착기를 보내고 있는 기수들에서도 소속감이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민화에 따른 이주와 정착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민족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의 변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의 동화 압력의 정도 등에 따라 차세대들의 문화정체성과 언어정체성 및 음식정체성 역시 변화 혹은 정체성의 동화 혹은 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재정착 난민들의 정체성의 다양성에 걸맞는 상호문화사회의 관점에 기반한 다양성의 권장과 더불어 다양성이 자원이라는 관점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요청됨. 또한 난민 공동체는 각각의 난민들의 목소리 통로가 됨과 동시에 난민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초국적 정치와 디아스포라 연대, 나아가 자발적인 자원동원을 이루며, 공동체 내의 다양한 수요와 난민화된 현지 민족사회의 수요와 정착 지역사회 통합에 대응하는 소통 채널 및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난민들의 공동체형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착국인 한국사회의 난민정착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됨.

- 4장의 9. 언어와 문화에서 언어는 취업과 교육을 비롯한 정착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며 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워야 더욱 효과적이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떠난 뒤에는 직장과 생계, 육아, 학업 등에 쫓겨 사실상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조사 결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이수한 KIIP 한국어 수업의 단계가 후기 기수로 갈수록 초기 기수에 비하여 낮아지고 정착지에서 KIIP한국어 수업을 계속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으며 KIIP 수업에 참가하고자 하여도 외국인들 간의 경쟁으로 KIIP 등록이 쉽지 않고 2020년 7월 1일 이후 교재와 평가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승급 규정이 개정되면서 최저 점수제 적용으로 4단계 재수강 이후 승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수강생들이 증가하게 됨. 이에 KIIP 접근성 제고 및 재정착난민의 다양한 한국어 수업 참여 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주말에 진행되는 8시간 혹은 4시간 연속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재정착난민과 같이 장시간 여가시간 확보가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되는 KIIP 학기제와 같이 1회 학습시간과 한 학기를 기존 일괄적인 학기편성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공하는 안이 필요해 보임.
- 모어(Mother tongue)사용과 관련해서는 부평과 김포에서 교육이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부평의 경우 가정이나 공동체 자체가 카렌어 사용 사회라는 점, 김포의 경우 모어가 아닌 국어인 미얀마어를 주말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모어사용보다는 한국어 사용을 권면 혹은 강조하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며 자녀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인식하거나 모어금지로 받아들임. 소수 선주민족들이 많은 난민 특성을 고려할 때 모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착난민들의 모어는 정체성과 문화, 역사 등을 담은 그릇이고 재정착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한다고 하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재정착난민들의 문화정체성과 모국어는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함. 이를 위해 모어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이 돌봄 및 교육기관 종사자와 난민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4장의10. 안전 및 차별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의 상당수(66%)가 한국에서 가끔 혹은 종종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차별경험에 대해 4기(87%)>3기(81%)>6기(78%)>7기(67%)>5기(66%)>2기(60%)>1기(58%)>8기(41%) 순서로 낮아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리셉션 센터 거주기간까지 포함하여 1

년 정도 거주한 8기의 경우 41%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가량으로 짧은 거주기간에 따른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며 7기처럼 리셉션센터 거주기간 까지 포함하여 한국에서 2~3년 거주기간만으로도 67%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반면 가장 오랜 기간을 거주한 1기와 2기의 경우 60%이하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경험은 일정기간(1년~3년)의 거주기간이 지나면 거주기간과는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차별을 충분히 인지할 만큼 많은 차별에 노출되지만 1기나 2기와 같이 차별경험의 빈도의 차이는 각자의 권리인식, 차별을 식별할 수 있는 인지의 차이 혹은 사회활동 영역이나 활동반경 등에 따른 차이로 보임. 재정착 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사회 직장내 차별, 길거리 혐오, 관공서, 은행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도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특히 사회통합이 원활하지 않을 수록 난민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별금지법 등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안전과 관련해서는 82%가 학교를 가장 안전(매우 안전, 대체로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전반에 대해서는 81%이상, 직장 75%, 범죄 70% 이상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시계열적 영향이 드러났으며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거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남. 말레이시아 거주 도시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의 단속이나 경찰의 난민들의 월급 수령일에 맞춘 단속과 착취, 빈번한 강도의 주거침입과 길거리 강도 및 살인 등으로 집안과 밖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노출됨. 이러한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100%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지 오래되어도 특정한 상황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트라우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리셉션센터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착과정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4장의 11. 참여와 관련된 조사 결과 재정착난민들의 소속감은 긍정하고 있는 소속감(많다, 조금있다)으로 보면 가족(87%)>도시(78%)>한국(77%)>출신국(72%) 순서로 나타남. 즉 일부 재정착난민의 강한 소속감과 달리 긍정적인 한국

소속감이 출신국 소속감보다는 높게 나옴. 1, 2, 3기 역시 긍정적인 소속감(많다, 조금 있다)의 비율로 보면 가족(100%)>도시(93)=한국(93)>출신국(82.9) 순서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적이 소속감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소속감과 한국 소속감이 동일하고 한국 소속감이 출신국 소속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김포와 시흥거주자들인 4,5,6,7,8기는 가족(75.9)> 도시(64.8) > 한국(62.9) >출신국(61.1) 순서로 나타나며 1,2,3기와 동일한 순서임. 4,5,6기의 김포거주자들의 경우 가족(50)>도시(38.8)>한국(35.1)=출신국(35.1) 순서로 한국과 출신국의 소속감이 동일하게 나타남. 강한 소속감(많다)은 가족(64%)>도시(52%)>출신국(42%)> 한국이(38%)로, 가족, 도시, 본국, 한국의 순서로 나타남. 출신국에 대한 긍정적인 소속감(많다, 조금 있다)을 보면 한국(77%)에 대한 소속감이 출신국(72%)에 대한 소속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일부 난민들에게는 여전히 출신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유지되고 있으며 1,2,3기의 경우 강한 소속감이 강화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착국인 한국에 대한 소속감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직 국적을 따지 않았음에도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는데 이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난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출신국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거나 상실된 까닭으로 보임. 정체성의 다중성을 고려하면 한국 국적을 획득하면서 점진적으로 한국 소속감이 현재 비율보다 높아지겠지만 출신국의 정체성 혹은 소수민족자치구에 아직도 존재하는 에스닉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 공존할 것임으로 정착국에서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로 자리 잡아갈 것임. 또한 다수자 민족인 버마민족과 달리 소수민족 출신 난민들의 경우 미얀마 내에서도 계층화된 시민권과 국가폭력으로 인해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음. 이를 볼 때 다수자 민족인 미얀마인들과 달리 메솿을 상주국으로 살던 카렌민족과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사이에는 출신국 정체성에 대한 기반이 상이하고 정착 의지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장의 12. 기타 항목들에서는 영주권 및 한국 시민권(귀화), 은행 계좌 및 핸드폰 개설,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에 관해 조사함. 영주권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 106명 중 72명(68%), ‘아니오’로 답변한 사람은 34명(32%)였음. 한국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자격요건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34%인 36명임. 영주권 신청의 어려움 중 ‘한국어 공부 및 시험이 어렵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

고1기부터 8기 까지 모든 그룹이 한국어 공부 및 시험의 어려움이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되는 항목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음. 귀화(한국시민권) 신청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이는 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4%임. 1기, 4기, 5기, 7기의 답변은 80%가 넘는 이들이 귀화신청을 원한다고 답변하였고, 2기, 3기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인 56%,50%만 귀화를 원한다고 답변하였음. 한국 영주권이 나 시민권에 대한 관심과 신청 의지에 있어 부평거주 카렌민족보다 김포나 시흥거주 말레이시아 도시난민들이 높게 나타남. 귀화를 위한 자격요건을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28%인 30명임. 재정착 난민들 중 많은 수가 오랜 시간 출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 여권을 받아 해외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만남, 한국 안에서의 보장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국적 취득(귀화)’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귀화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있는 이들 중 귀화 신청 시 어려움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은 높은 소득심사 기준으로 드러남. 재정착 난민 제도에 있어서 영주권과 귀화(시민권)의 문제는 법적지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사회권의 범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착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해외의 사례 중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과정 및 요건이 정착국인 한국에 정착한지 2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외국인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외의 한국어능력, 자산조건 등에 있어서도 다른 외국인들의 범주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난민의 인도주의적 특수성에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상주국에서 재정착 난민을 심사하는 과정 중 사전교육단계에서 충분히 한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정착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교육에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요건을 명확히 교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귀화 시험에 대한 내용은 재정착 난민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귀화 신청자들에게도 어렵기로 이미 언론에 나온 바가 있음. 또한 한국인이 풀어도 어렵다는 견해가 많아, 귀화시험에 관련된 어려움들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재정착 난민에게 계좌 개설 및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과정, 그에 필요한 언어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추후 혼자서도 은행 이용 및 핸드폰 개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가 필요함. 또한 관련 부처에서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난민의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난민여행증은 여권이라는 점)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점마다 다른 기준으로 응대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함. 재정착난민들 중 금융 제재를 받는 나라(이란,

미얀마, 러시아 등)에서 온 경우, 계좌 개설은 은행마다 그 유연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적금이나 송금의 경우 제재가 큼. 이러한 금융제재의 경우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재정착을 선택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재정착난민들의 리셉션센터 기능을 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관련 조사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집단생활이 가진 다양한 위기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소재 등으로 인한 외출 등의 통제와 제한, 급식의 통제에 따른 문제들과 함께 매점 개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운영하는 데서 오는 한계, 관료주의, 무한책임주의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도 있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후에는 사실상 정착지원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 한국어교육,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질병의 치료와 정신건강 등 향후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지원센터에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함. 특별히 한국어 교육은 재정착난민을 위한 필수교육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재와 커리큘럼을 새로 마련하여야 함. 취업은 지역출입국외국인청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사전에 재정착난민 본인들이 취업처를 미리 견학하게 함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취업한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문제들 역시 발생하여 정착 초기 1-2년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낸 기수들도 있음. 가족단위로 들어온 재정착난민 가장들의 경우 가족부양의 책임 때문에 제조업 등에 한번 취업하면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쉽지않고 이직 비용이 발생하기에 지원센터에 있는 동안 충분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고, 일본처럼 퇴소 후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직장 선택 시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취업 등을 위해서 일정기간 직업탐색기를 제안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재정착난민들의 정착지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가까운 수도권이었기에 6개월 정도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만약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정착지를 선택할 경우 출입국에서 6개월을 모두 지내고 난 뒤 정착지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리셉션센터 기능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정착지역에서의 주택 임대 및 거주 기간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직장탐색과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멘토링 제도와 관련된 조사에서 1기부터 8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멘토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16%로 나타났다는 점은 멘토제도에 대한 관리에 있어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4기, 7기, 8기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요인을 찾고 분석하는 것이 멘토제도의 개선점을 드러내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임. 8기의 경우 미얀마인 1인, 한국인 1인을 1개조로 구성해 위촉함으로써 언어소통이 가능해 교류의 장점은 있었지만 한국어지도 및 생활지도, 자원동원 등을 위한 연계지원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멘토제도가 전문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앞서 언급했듯 미얀마 소수선주민족들이 난민화 과정의 요인으로 인해 다수자 민족인 미얀마인들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직도 고향 살고 있는 가족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보의 유출을 두려워 하기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멘토를 미얀마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임. 이렇듯 생활멘토와 관련해서는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매우 전문적이고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으로 유입될 난민특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사전에 연구하고 정착과정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렇듯 재정착난민의 다양한 특성 역시 멘토 위촉이나 운영을 위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멘토링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지원과 멘토링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주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멘토의 과도한 개입이나 과도한 멘티의 요구 등이 있었음. 이로 인한 멘토링의 중단, 멘토멘티 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의 부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족결합 관련 조사에서 제기된 쟁점들 가운데 법무부의 개입과 지원범위 등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함. 이는 상주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리셉션 센터에서부터 재정착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족결합 수요파악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가정별로 스스로 해결할 문제인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의 외교부와 법무부 나아가 UNHCR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황 별 처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실태조사를 통해 2015년 시작된 재정착난민 수용에 있어 상주국 경험 및

정체성 연구의 필요성, 사전교육과 리셉션센터의 기능과 운영의 문제,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한 인적자원조사와 직업탐색 기회 활성화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진입의 문제, 한국어를 비롯한 직업교육 활성화와 학자금 대출정책에서 배제된 고급 교육 진입의 장애 해소문제, 생활멘토사업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제작과 교육과 멘토링 비용의 현실화문제, 가족결합수요에 따른 정부의 역할정립의 문제, 아동교육, 건강보험의 차별적 적용과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을 포함한 건강권 문제, 공공임대주택제도에서 난민인정자가족의 배제와 같은 주거정책의 문제, 한국사회 이주민 차별의 문제, 금융제재를 비롯한 난민에 대한 각 부처나 기관들의 인식이나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영주권과 시민권 획득의 있어 언어와 자산조건의 문제, 부평의 수급권자 증가 현상 등 개선할 점들도 많이 드러났음. 그럼에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포시, 시흥시에 정착한 1기~8기의 난민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대체로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착 지자체의 위탁기관, 지역 시민사회와 NGO들과 종교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나아가 난민들의 회복탄력성과 정착의지에 힘입은 결과로 보임.

- 특히 한국의 재정착난민 유입은 2018년 예멘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반난민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지속되었고 재정착난민의 유입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인들의 국내 체류 허용, 광주지역사회의 후원으로 1,830여명의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항공료 지원을 받아 입국하는 일들이 이어졌음.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난민화와 국제적인 난민인권레짐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사회가 강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사무로 취급되는 난민정책을 점진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정착 난민의 수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분담하는 국가의 자발적 결정이므로 수용 및 정착에 관한 국가의 책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난민들의 책임과 기여가 필요함. 난민들이 자립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용국으로부터의 환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난민들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당연한 사람들로 인식되기 쉽지만, 난민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다양한 언어능력,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 노동시장 개혁 및 생산성 증진 동력, 문제해

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새로운 인구네트워크라는 고유한 자산을 비롯해 강인한 회복능력과 전략을 가진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자산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해야함.

- 국제사회는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재정착 난민 제도를 보다 많은 국가가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 재정착 난민제도를 보완하는 ‘보충적 유입경로(Complementary Pathways)’를 통해 재정착난민의 수용 외에 다양한 도입 방안을 실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인도적 보호의 확대, 입국조건 완화, 가족결합, 일본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난민유학제도(Education Pathways), 취업기회부여(Refugee Labour Mobility), 개인 혹은 커뮤니티 후견초청(Private or community sponsorship), 국제개발 연계 유입 등을 실행하고 있음. 이에 우리도 이미 서강대를 시작으로 보충적유입경로인 유학제도를 통해 2명의 난민이 유입되었고 상기와 같은 일련의 한국시민사회의 참여는 한국의 난민 인권 거버넌스 형성의 잠재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재정착난민제도의 정규화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점진적 개방을 통해 보충적 유입경로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난민인권레짐에서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책무와 당위성 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내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전문적인 인력 양성, 난민공동체 및 민관학이 참여하는 난민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할 것임.

2. 정책 제언

가. 자립과 책임의 원칙

- 조사 결과 캠프난민 출신인 1기~3기 17가구 가운데 6가구(1가구 김포시 재이주)가 5~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 조사 결과 캠프난민출신인 1~3기가 4~8기와 달리 취업, 언어, 동족집단결속, 사회적 연결 등 여러 면에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동족사회집단 내부로 지향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자립 대신 지원과 의존, 통합 대신 고립의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반면, 4~8기 도시난민출신의 경우 소속과 결속의 면에서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드러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제고가 필요함. 정착은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조급한 판단보다는 차세대를 포함하여 시계열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의성 있고 적합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모색이 필요함.

- 재정착이 난민문제의 진정한 항구적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난민의 수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정착국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난민은 다른 이주자보다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정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난민이며 지원이 자칫하면 난민의 자립역량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재정착난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난민수용에 대한 반대론에서 항상 거론되는 첫번째 논거는 난민들이 국민들의 세금에 무임 승차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난민수용이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반 난민 정서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자립의식의 고취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착난민들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미국의 단기 신속취업강조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미국 재정착난민 정착지원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는 3~6개월의 단시간 안에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하는 경제적 통합이며, 반면 유럽의 재정착난민 사회통합은 언어 문화에 치중되어, 난민들이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2년반-3년(영국1년, 포르투갈 6개월) 소요되고, 그 동안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의 3개월 단기신속 취업 강조 정책에 대하여는 난민은 실업자와 달리 박해로 인한 충격을 가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며 지지기반이 없는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므로 취업에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트라우마, 질병이 있거나, 취업경험이 없는 무슬림 여성, 장기 캠프난민 등 취업에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며, 신속한 취업의 강요로 경력과 전문지식을 살리는 일자리를 찾거나, 보수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단기 신속 취업 자립정책은 미국으로 간 탈북 난민들이 가장 적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립도도 높고, 미국사회에 감사하면서 자존감이나 사명감도 높았다는 평가보고가 있음.

- 다만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보다 높은 언어장벽의 문제가 있어 1년은 언어를 배우고 취업하여 정착을 기대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며 2년 내지 3년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에, 한국의 경우에 미국과 유럽 각각의 모범 사례를 따라 취업을 통한 단기 신속 자립 강조정책을 취하되 국제어가 아닌 한국어를 새로 배우는 기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함. 한국의 재정착난민들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충분한 지원을 받고 언어교육에 집중한 후 일자리를 찾아 6개월 후부터 자립모드에 들어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6개월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경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자립을 지향하는 난민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서는 고급교육 진입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함. 본 조사를 통해 학위과정을 등록한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으로 입국하여 성년이 된 차세대들이 드러남. 김포시 거주 난민가정의 자녀들 중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제조업으로 바로 진입하거나 대학진학에 성공하였지만 학업의 어려움과 생활비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 난민의 고급교육은 열려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비용문제, 언어문제 등, 현실적인 삶의 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단순히 난민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넘어 이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지점까지 고려해보아야 함. 난민인정자들에게 ‘학자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전에 재정착난민 및 협약난민의 자녀들이 대학진학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2018년부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난민지원기관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법무부의 적극적인 모색에도 교육부 소관으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재정착 난민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기존 난민인정자들 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 역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음. 학자금 대출 역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함. 2021년에 8월 26일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경우도(재정착난민에 준하는 처우) 비슷

한 상황임.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학자금 대출 대상을 국민에서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난민들이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함.

- 실태조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1%(12명)에 지나지 않음. 자격증 소유 답변자들은 모두 20대였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로 입국하여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라 답변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정착이 질적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내일배움카드 활용과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안내가 필요하며 자격증 관련 교육을 다양한 언어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은 그 중요성이 재정착 난민 사회뿐 아니라 이주민사회에서도 부각되고 있는데, 그들이 시험을 보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하나로 응시를 하게 됨. 2018년 8월 이전에는 다언어 시험이 가능했으나 이후로는 위 3개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의 시험이 폐지되었음. 자격증 사회인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언어다양성 기반 자격증 시험의 활성화로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재정착난민의 경우 ‘단기 수용’이 아닌 한국에서 삶을 수십년간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 때문에 이들이 입국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First Job, Any Job’으로 시작하지만, 역량이 개발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는 이들이 개발된 것을 가지고 다른 가능성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의 기회임. 난민지원기관들은 그동안 개별 난민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나 취업상담, 본인의 관심과 강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실제 취업 및 자기 개발로 연결되는 결과가 미비하였음. 다양한 교육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 난민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의 한 난민지원기관에서는 취업훈련을 원하는 탈북정착민들이 기업에서 실습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하였고, 이를 통해 정착민들이 인턴과 같이 취업현장에서 교육받고 실무에 잘 적응 및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음. 이와 같은 사례처럼, 재정착난민이 정착과 취업에 대한 교육

이 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 및 예산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 다른 난민지원기관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24세 이하인 후기 청소년들이 지역의 청년재단, 청소년 재단의 지원체계 안으로 진입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언어문제 및 해당기관들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음.

- 성인의 경우는 첫 정착교육단계에서 머무르게 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체와 인턴쉽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진로 탐색 및 훈련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움. 대한민국 국민의 처우에 준하는 바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들이 국민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이나 관련한 지자체 프로그램 등 대다수가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언어적 접근이 어려워 실 사용이 어려움. 재정착난민 정착 지자체를 시작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출국 전 사전교육 강화

- 사전교육의 강화 필요

성인 10명(8가구 17명)으로 구성된 5기는 이번 조사에 단지 3명의 성인이 참가하여 다른 기수보다 참여가 적었는데 이는 5기가 미얀마뿐 아니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출신도 포함하여 출신지역 다양화를 시도한 한 기수이고, 성인 싱글 여성과 싱글 남성으로 구성된 가족이 많았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히 재정착 선발 및 사전교육 과정에서 사전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정착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였던 결과임. 5기의 8가정 17명의 구성은 이란인 2가정, 아프간인 싱글남 1가정, 미얀마 싱글여성 5가정으로 이 중 미얀마 여성 3명만 조사에 참여하였음. 이들은 한국으로의 재정착이 오랜 난민생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전문직 취업의 어려움, 임대아파트 입주 불가, 학자금융자 불가, 금융제재 등 여러 면에서 재정착이 본인들이 기대한 실제적 보장에 미흡하다고 여기고 특히 즉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영주권취득에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확인하자 다른 나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출국 전 사전교육에서 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출국 전 사전교육을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었음.

- 출국 전 사전교육 시간은 15시간 내외로 그다지 길지 않고, 출국준비 및 여행과 관련된 실제적인 안내도 하여야 하므로, 한국으로의 이주 및 정착과 관련된 난민들의 기대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한국에 먼저 온 재정착 선배들이 실시간 영상교육의 방법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실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재정착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일어날 일이므로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가급적 일찍부터 일어나는 것이 좋고, 출국 전 사전교육의 단계로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고

- 리셉션센터(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성공적인 운영방안 모색
리셉션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과 언어교육을 비롯한 정착교육이 리셉션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 오전에는 언어교육, 오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됨. 따뜻한 환대와 집중적 언어교육,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질병의 치료와 정신건강(트라우마관리), 가족결합 수요과약 등 향후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지원센터에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체험형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재정착난민들의 리셉션센터 기능을 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집단생활이 가진 다양한 위기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소재 등으로 인한 외출 등의 통제와 제한, 급식의 통제에 따른 문제들과 함께 매점 개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운영하는 데서 오는 한계, 관료주의, 무한책임주의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도 있음.
- 생활 멘토 제도의 전문성 강화
전문성을 갖춘 멘토는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멘토의 역할과 윤리가 매뉴얼로 잘 정리되지 않으면 멘토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멘토의 과중한 업무부담, 멘티의 과도한 멘토 의존이 나타날 수 있고, 지나친 개입과 통제 또는 방치나 의존으로 오히려 정착에 방해가 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멘토 매뉴얼의 작성과 이에 따른 위촉 및 교육, 멘토의 업무 범주의 명확화, 멘토의 전문화, 전문화에 따른 멘토링 사업의 예산확대와 비용지급의 현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멘토링 제도에 참여한 헌신적인 멘토들의 지난 8년간의 멘토 일지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개선되고 있는지,

매뉴얼에 따른 멘토의 위촉과 교육과 소통에 있어 적절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멘토들과 멘티 사이에 이루어진 많은 상담과 고충들이나 이야기 및 제안들 중 엄선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번역하여 온라인이나 책자로 배포한다면 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엄선된 자료들은 입국 전 사전교육프로그램시 링크를 공유하여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생활멘토제도의 지자체 위탁의 필요성

생활멘토제도는 법무부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가시적 정착지원사업으로서 멘토 위촉, 멘토링 일지 작성, 보고 및 멘토와의 소통, 멘토의 교육과 행정적 관리, 멘토 사업의 평가를 통한 매뉴얼의 제작 및 지속적인 개정,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중앙사무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통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제외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 지원사업들이 지자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난민 역시 지역에서 산다는 점에서 재정착난민의 정착 지자체에 국비를 투입하고, 지방사무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가 스스로 난민 정착지원, 연계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양성, 지역 내 난민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 상주국의 경험과 사회통합의 상관관계 분석 필요

본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와 달리 상주국의 경험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그 결과 거의 모든 조사항목에서 1기~3기의 카렌족 캠프난민과 다수 복합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의 도시난민 4기~8기 사이에 뚜렷한 정착지표상의 차이가 발견되었음. 1기~3기의 경우 다수의 난민촌 체류기간이 10년 혹은 20년 이상이고, 기독교, 메솿(멜라, 움삐얌마이)캠프 중심, 스고카렌언어 중심, 전통적인 족내혼 등의 공동체적 연대가 강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캠프에서의 노동단절과 비합법 노동경험 등이 정착 및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함. 상주국 경험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상주국에서의 트라우마, 경제활동, 교육 등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 등을 포함한 난민들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멘토 위촉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재정착난민의 사회통합정책 실행에 있어서도 상주국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활용하고 각 기수의 상주국 경험 및 정체성 특성을 고려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봄.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율 및 운영방안 제고

언어는 취업과 교육을 비롯한 정착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며 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워야 더욱 효과적이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떠난 뒤에는 직장과 생계, 육아, 학업 등에 쫓겨 사실상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조사 결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이수한 KIIP 한국어 수업의 단계가 후기 기수로 갈수록 초기 기수에 비하여 낮아지고 정착지에서 KIIP한국어 수업을 계속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으며 KIIP 수업에 참가하고자 하여도 외국인들 간의 경쟁으로 KIIP 등록이 쉽지 않고 2020년 7월 1일 이후 교재와 평가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승급 규정이 개정되면서 최저 점수제 적용으로 4단계 재수강 이후 승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수강생들이 증가하게 됨. 이에 KIIP 접근성 제고 및 재정착난민의 다양한 한국어 수업 참여 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주말에 진행되는 8시간 혹은 4시간 연속 교육과정뿐 아니라 재정착난민과 같이 장시간 여가시간 확보가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현재 놓여준 지역에서 활용되는 KIIP 학기제와 같이 1회 학습시간과 한 학기를 기존 일괄적인 학기편성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공하는 안이 필요해 보임.
- 모어존중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

4기~8기 말레이시아출신 도시난민의 경우 같은 13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난민화되어 이주를 한 시점, 각 지역이나 가정별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에 따라 미얀마 사람이라 하여도 미얀마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족외혼의 경우 민족과 언어가 달라 정체성에 있어 동질성이 약화되고 소통에 있어 다중언어 사용이 불가피하기에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녀의 모어정체성 획득과 정착국 언어 습득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즉 이중언어 교육 장려와 같이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나는 차세대를 둘러싼 돌봄과 교육기관에서의 모어 존중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해 보임.
-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도 개선

조사에 참여한 재정착 난민의 13%는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답함. 이를 볼 때, 개별적인 사유로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본 제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측 됨. 이러한 현황에 따라 재정착난민에게 낯설 수 있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정보 제공 시에는 국가건강보

험이 문화적으로 낮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유형(직장가입, 지역가입), 가입 유형 전환 시점, 기초생활 수급 시의 추가 변동사항,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에게 차별적임. 문제는 난민인정자, 즉 재정착난민에게도 그 기준이 까다로움.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는 국민에 준하는 보장을 받기로 된 대상이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또한 국민과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함.

○ 트라우마 관리

재정착 난민의 91%가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으며 주로 보고하는 증상은 불안, 심한 스트레스, 불면, 우울감 등임. 난민의 특성 상 박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성인 재정착 난민의 정신건강은 그들이 양육하는 난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난민 가정 전체를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함. 난민이 겪은 박해를 그 인생에 닥친 ‘재난’과 가깝다고 생각할 때, 국가 심리적 회복 서비스가 이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시급하게 치료받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도 발견되며 이민국의 단속이나 경찰의 난민들의 월급 수령일에 맞춘 단속과 착취, 빈번한 강도의 주거침입과 길거리 강도 및 살인 등으로 집안과 밖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노출됨. 이러한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100%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지 오래되어도 특정한 상황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트라우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리셉션센터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착과정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난민인정자 가족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지원의 필요성

모든 난민인정자도 공공 임대 주택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함. 2022년 인천과 김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경우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였음. 이는 추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착을 시도하는 난민 가정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건강, 주거비 절약 등을 고려하면 장점이 많음. 친족 네트워크가 없는 정착국에서 돌봄 노동의 빈곤과 수입의 한계가 있는 초기 재정착 난민,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건강권, 안전권, 경제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등 돌봄기관이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불 때 자립과 사회적 비용 발생 최소화에 도움이 됨. 주거는 곧 정신적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자녀 양육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한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파악하고 자본을 축적하기까지 공공 임대 주택은 재정착난민에게 큰 도움이 됨. 사회적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착 난민이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이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소득조건 충족 시, 공공 임대 주택은 낮은 월세를 내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아파트단지 이기에 다세대 주택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음.

○ 난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난민 공동체는 각각의 난민들의 목소리 통로가 됨과 동시에 난민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초국적 정치와 디아스포라 연대, 나아가 자발적인 자원동원을 이루며, 공동체 내의 다양한 수요와 난민화된 현지 민족사회의 수요와 정착 지역사회 통합에 대응하는 소통 채널 및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난민들의 공동체형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착국인 한국사회의 난민정착거버넌스형성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됨.

라. 재정착 대상의 확대와 정규화 준비

- 우리나라는 2015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우선 3년간 재정착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재정착난민의 한국 내 정착 상황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정식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사업을 정규화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을 연장해가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규모와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대상과 관련하여는 우리와 문화 및 정서가 비교적 비슷한 미얀마 난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상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5기 난민가운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3가정을 수용한 바 있고, 재정착난민 수용과 유사한 경험으로 2018년 5월 500명 가량의 예멘난민을 수용하고 2021년 8월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수용한 바 있음.
- 현재 국제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난민 그룹 가운데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미얀마, 로힝야, 우크라이나 등의 난민들이 있고 이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다양한 출신 배경의 난민수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의 인종과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으로 말미암은 사회통합의 어려움과 게토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심도 깊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 재정착난민의 수용은 정착가능성보다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기 난민의 정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얀마 출신의 한부모 가정이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다민족 출신의 구성이 정착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 준 경험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초기에는 보호의 필요성 뿐 아니라 정착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병행하여 사업자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룬 후 신중하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의 발전과 정규화 모색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더욱 진전될 것이며 경험과 연구의 축적이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때 더욱 발전할 것임. 재정착난민의 통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협의회(ARGE Resettlement)를 통해 재정착난민의 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정부 관계자가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례 평가를 실시하고 노르웨이 국제이주기구(IOM)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난민의 재정착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재정착난민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규사업 전환 이후에도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착난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시아의 일본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재정착 난민 제도를 보다 많은 국가가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 재정착 난민제도를 보완하는 ‘보충적 유입경로(Complementary Pathways)’를 통해 재정착난민의 수용 외에 다양한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인도적 보호의 확대, 입국조건 완화, 가족결합, 일본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난민유학제도(Education Pathways), 취업기회부여(Refugee Labour Mobility), 개인 혹은 커뮤니티 후견초청(Private or community sponsorship), 국제개발 연계 유입 등을 실행하고 있음. 이에 우리도 이미 서강대를 시작으로 보충적유입경로인 유학제도를 통해 2명의 유학생이 유입되었음. 시민사회가 강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착난민제도 및 보충적유입경로에 있어 한

국시민사회의 참여는 한국의 난민 인권 거버넌스 형성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재정착난민제도의 정규화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점진적 개방을 통해 보충적 유입경로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 난민인권레짐에서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책무와 당위성 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내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전문적인 인력 양성, 난민공동체 및 민관학이 참여하는 난민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1. 권아현 (2023). “한국 좋지만 한국서 살기 어렵네요” 재정착난민 1호 카렌족의 최대 장벽, 조선일보(2023.10.29).
2. 김혜미 외(2022).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 연구소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 위한 과제’, 다문화와 평화 제 16집 1호 DOI p.16
3. 노승환 (2023). "한국말 몰라도 괜찮아요" 외국인 위한 의료서비스 앱 눈길, MBN 뉴스 (2023.11.)
4.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차별의 건강보험제도 - “국가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다”
5. 사단법인 피난처(2012). 난민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해외난민신청 탈북자.
6. 신지원 외(2013).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연구 65 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p. 191-230.
7. 유엔난민기구(UNHCR).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8. 유엔난민기구(UNHCR) (2017). Review of the pilot resettlement programme in the Republic of Korea.
9. 유엔난민기구(UNHCR) (202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발의안 의견 요청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Opinion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for the Inquir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the Proposals for the Equality Act)
10. 유엔난민기구(UNHCR) (2023). Projected Global Resettlement Needs 2024.
11. 이상국(2016). 상상의 공동체에서 네트워크 공동체로: 카렌족의 사례를 통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주의론 비판적 검토, 동아연구 제35권 2호, pp. 227~279.
12. 이상서 (2020). ‘재난생활비 대신 받아줄게’ 외국인 보이스포싱 주의보, 연합뉴스 (2020.09)
13. 이한숙 (2023) - “마음 속 혐오를 끄집어내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2023.2.1.)
14. 이호택(2018). 2018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15. 장주영(2018). ‘난민에 대한 태도 이해: 난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습니까?’ IOM 이민국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5. p10
16. 정금심(2020). 재정착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자립과 통합 이론의 조화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p.50-53.

17. 조영희(2017).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IOM이민정책 연구원 정책보고서. No. 2017-01.
18. 채보근(2021).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1-08. 이민정책연구원. p.2
19. 최영일(2019). ‘중머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 최유(2014). 일본 재정착난민 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조사 p.32

정부문건

- 국민 재난 안전포털 - 심리회복지원소개 (safekorea.go.kr)
법무부 난민과(2016). 재정착난민 정착지원 세부 추진계획 (2016.04)
법무부(2021). 재정착난민실무협의체 회의자료 (2021.5.12)

설문지

2023 대한민국 재정착난민 실태 조사 설문지

2023 Survey on Resettled Refugees in Korea

이름(Name):

성별(Sex):

연락처(Contact Number):

(남(Male), 여(Female), 기타(Others):)

입국 월/연도(Month/Year of Entrance to Korea):

1. 상주국 경험

Experience in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refers to a country where one resided other than one's country of origin before entering Korea)

1-1. 본국을 제외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 거쳤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Other than your country of origin, in what countries did you reside before entering Korea? (You can select more than one)

- ① 말레이시아 Malaysia
- ② 태국 Thailand
- ③ 인도 India
- ④ 이란 Iran
- ⑤ 기타 Others

1-2. 상주국에는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How long did you reside in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 ① 3년 미만 Less than 3 years
- ② 3년-5년 From 3 years to 5 years
- ③ 5년-10년 From 5 years to 10 years
- ④ 10년 이상 More than 10 years
- ⑤ 기타 Others

1-3. 상주국에서는 어떤 생계활동을 하셨습니까?

What did you do for living in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 ① 제조업(공장) Manufacturing (Factory work)
- ② 식당 Restaurant
- ③ 농업 Farming
- ④ 일용직 Part-time dayworker
- ⑤ 사무직 Office job
- ⑥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 ⑦ 기타 Others
- ⑧ 무직 Unemployment

1-4. 상주국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W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in your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 ① 생계 Livelihood ② 건강 Health ③ 교육 Education ④ 체류자격 Visa Status
- ⑤ 언어 Language ⑥ 문화 Culture ⑦ 자녀양육 Childcare ⑧ 자녀교육 Child Education
- ⑨ 정부의 단속 Government's crackdown ⑩ 주거 Housing
- ⑪ 기타 Others: ()

2. 출국 전 사전교육 Pre-departure Orientation

2-1. 사전교육의 내용이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How helpful was the orientation in terms of your integration in Korea?

- ① 매우 도움됨(Very helpful) ② 도움됨(Helpful)
- ③ 도움되지 않음(Unhelpful) ④ 매우 도움되지 않음 (Very unhelpful)

2-2. 사전교육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What was the most helpful contents from the pre-departure orientation?

- ① 출국준비 Preparation of departure
- ② 한국 생활정보 Information on Korea's life
- ③ 한국 문화정보 Information on Korea's culture
- ④ 기초 한국어 Basic Korean language
- ⑤ 긴급 전화번호 Emergency contacts in Korea
- ⑥ 한국 의료정보 Information on Korea's medical facilities
- ⑦ 한국의 기초 법질서 및 권리와 의무 Basic laws and rights/responsibilities in Korea
- ⑧ 기타 Others: ()

<직업과 교육수준의 관계 Employment Relative to Education Level>

3-6. 하고 있는 일이: Considering all your previous jobs, you are employed:

- ① 내가 받은 교육수준보다 낮은 일이다 (Below your education level)
- ② 비슷한 수준이다 At your education level
- ③ 교육수준보다 높은 일이다 Above your education level

<직장을 갖는 데 방해요소 Barriers to Employment>

3-7. (미취업자가) 직장을 갖는 데 방해요소는 무엇입니까?

(When unemployed) Barriers to Employment:

- ① 직업훈련참가 Enrollment in vocational training
- ② 아이양육 Childcare
- ③ 자원봉사활동 Working as volunteer
- ④ 일자리가 없음 Couldn't find job
- ⑤ 건강문제 Health and disability
- ⑥ 나이 Age
- ⑦ 학교공부 Attending school
- ⑧ 언어 Language
- ⑨ 기타 Others ()

<나의 소득과 가계소득 My & Family Income>

3-8. 나와 가족의 월간 순 소득은 어느정도입니까?

My & Family's Average Monthly Net Income

3-8-1. 나의 월 소득 My Monthly Income

- ① 100만원 미만 (Less than 1 mil KRW)
- ② 100만원 - 200만원 (Between 1 mil KRW and 2 mil KRW)
- ③ 200만원 - 300만원 (Between 2 mil KRW and 3 mil KRW)
- ④ 300만원 이상 (More than 3 mil KRW)

3-8-2. 가족의 월 소득 My family's monthly income

- ① 100만원 미만 (Less than 1 mil KRW)
- ② 100만원 - 200만원 (Between 1 mil KRW and 2 mil KRW)

- ③ 200만원 - 300만원 (Between 2 mil KRW and 3 mil KRW)
- ④ 300만원 이상 (More than 3 mil KRW)

3-9.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If you are employed, how are you satisfied with your job?

분류 (Criteria)	④매우만족 (Very satisfied)	③만족 (Satisfied)	②보통 (Average)	①불만족 (Unsatisfied)	①매우불만족 (Very unsatisfied)
① 월급 (Salary)					
② 근무 시간 (Working Hours)					
③ 휴가 및 복지 제도 (Annual Leave and benefits)					
④ 동료들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⑤ 상사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your supervisor)					
⑥ 회사까지의 거리 (Distance to your workplace)					
⑦ 본인의 능력 (Your capacity for work)					
⑧ 본인의 적성 (Your aptitude for work)					

3-10. 현재 직장이 없거나, 전에 그만 둔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수선택가능)

If you are currently unemployed or have quit your job, what were the reasons? (You can select more than one)

분류(Criteria)	체크 (Select)
① 월급 문제 (Salary)	
② 아이양육 문제 (Childcare)	
③ 거리 문제 (Distance to work)	
④ 근로 시간 문제 (Working hours)	

⑤ 건강문제 (Health)	
⑥ 적성 문제 (Aptitude)	
⑦ 능력 문제 (Capacity)	
⑧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⑨ 상사와의 관계 문제 (Relationship with supervisor)	
⑩ 구직 중임 (Currently looking for a job)	
⑪ 학업 또는 취업교육을 받고 있어서 (Currently in school or receiving career education)	
⑫ 기타 (Others) :	

3-11.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 3가지를 골라보시오

What were the difficulties when you were working? (You can select more than one)

분류(Criteria)	체크(Select)
① 언어 (Language)	
② 관계 어려움(Relationship)	
③ 작업환경 (Working environment)	
④ 작업시간 (Working hours)	
⑤ 일 자체가 어려움 (Work itself)	
⑥ 기타 (Others):	

3-12. 한국에서 일했던 회사는 어떤 직종의 회사입니까?

What kind of job have you worked in Korea?

- ① 제조업(공장) Manufacturing (Factory work)
- ② 식당 Restaurant
- ③ 농업 Farming
- ④ 일용직 Part-time dayworker
- ⑤ 사무직 Office job
- ⑥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 ⑦ 기타 Others
- ⑧ 무직 Unemployment

3-13. 직장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구직방식)

How have you obtained your job? (Methods you utilised for finding employment)
(You can select more than one)

- ① 일자리센터 등 공공서비스 기관 (Public services such as governmental career centres)
- ② 직업소개소 (Private employment agency)
- ③ 지인 (Acquaintance)

④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Distant from hospitals or lack of transportation to hospitals)	
⑤ 식구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No one else to take care of family members while taking treatments)	
⑥ 치료해도 나아 것 같지 않아서 (Does not think I will get better even with treatments)	
⑦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서 (Overdue payment for health insurance)	
⑧ 의료기관의 정보(진료과목, 병원위치 등)가 부족해서 (Lack of information on hospital)	
⑨ 언어 소통이 안돼서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⑩ 휴가 내기가 어려워서 (Difficult to take leave) :	
⑪ 기타 (Others)	

6-10. 건강상태 Health status

질문 (Question)	예 (Yes)	아니오 (No)
① 자주 운동을 하는 편입니까? (적정운동시간: 하루30분이상 주3~4회) Do you exercise often? (Recommended: 30 mins per day / 3-4 times a week)		
② 식사는 하루 세끼로 규칙적인 편입니까? Do you eat as regularly as three times a day?		
③ 술이나 담배를 자주 마시거나 피는 편입니까? Do you drink or smoke often?		
④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편입니까? (적정수면시간: 하루 7~9시간) Do you regularly sleep? (Recommended: 7-9 hours a day)		

6-11. 위생 상태 Sanitary Conditions

질문 (Question)	1	2	3	4	5	7	14
①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in a day?)							
② 일주일에 샤워를 몇 번하고 있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take showers in a week?)							
③ 일주일에 청소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clean your house in a week?)							

④ 일주일에 빨래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How many times do you do your laundry in a week?)							
⑤ 자녀는 샤워를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How many times does your child take shower in a week?)							

6-12. 정신건강 Mental health

최근 당신이 경험중인 것에 표시해주세요 (복수답변 가능) Please select what you are experiencing (You can select more than one)	해당 (Select)
① 우울감(Depression)	
② 심한 스트레스(Severe stress)	
③ 불안(Anxiety)	
④ 불면(Insomnia)	
⑤ 알콜 의존(Dependence on alcohol)	
⑥ 낮은 자아존중감(Low self-esteem)	
⑦ 인터넷/게임 중독(Game/Internet addiction)	
⑧ 도박(Gambling)	
⑨ 무력감(Sense of helplessness)	
⑩ 조현병(환청, 망상 등) (Schizophrenia (Auditory hallucination, Delusion))	
⑪ 자살충동 (A suicidal impulse)	
⑫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6-13.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복수선택가능)

Do you have anything below in particular that you are worried about? (You can select more than one)

항목 (Criteria)	체크 (Select)
① 건강 Health	
② 경제, 돈 문제 Economy and money	
③ 언어 Language	
④ 직장 Employment	
⑤ 육아, 자녀교육 Childcare	
⑥ 집안 살림 Domestic work	

⑦ 가족내 갈등 Family conflict	
⑧ 한국인과의 교류 Interactions with Koreans	
⑨ 인간관계 Relationship with others	
⑩ 기타 Others:	
⑪ 없다 None	

7. 주거 Housing

7-1. 당신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housing situation?

- ① 노숙 homeless
- ② 노숙자 쉼터 homeless shelter/transitional housing
- ③ 친구나 친척집 home of friends/family
- ④ 월세 Monthly rent
- ⑤ 전세 (Jeonse (Jeonse is a lump-sum deposit given to a landlord by the tenant))
- ⑥ 자기 소유 집 I own house/condo
- ⑦ 기타 Others: ()

7-2. 현재 주거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Are you currently getting help from the government to pay your rent or housing costs?

- ① 예(Yes)
- ② 아니요(No)

7-3. 주거 환경 (Residential environment)

질문 (Question)	예 (Yes)	아니오 (No)
①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had conflicts with your landlord?)		
② 집 주변 이웃과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had conflicts with neighbours?)		
③ 시장 또는 슈퍼마켓이 근처에 있는 편입니까? (Are there supermarkets nearby your residence?)		
④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의 접근이 쉬운 편입니까? (Is it easy to access public transportation from your residence?)		
⑤ 우체국,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근처에 있습니까? (Are there government offices nearby your residence such as post office and community center?)		

7-4. 현재 직장이 있다면,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If you are currently employed,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residence to work place?

- ① 30분 이내 (Within 30 minutes)
- ② 30분 이상~1시간 이내 (More than 30 minutes and less than 1 hour)
- ③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More than 1 hour and less than 2 hours)
- ④ 2시간 이상 (More than 2 hours)

8. 동족사회 결속 Social Bonding

8-1. 동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Do you spend time with people who share your culture, ethnic group, language, or religion?

- ① 예(Yes)
- ② 아니요(No)

8-2. 동족의 문화나 언어 혹은 종교 등 동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Do you access information about your culture, ethnic group, language, or religion?

- ① 예(Yes)
- ② 아니요(No)

8-3. 한국에 온 후 동족 기념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Since coming to Korea, have you attended a celebration or event of your culture, ethnic group, language, or religion (i.e., march, parade, or festival)?

- ① 예(Yes)
- ② 아니요(No)

8-4. 동족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한국 정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How much do you think interactions with communities of same culture helpful for settling in Korea?

- ① 매우 도움됨(Very helpful)
- ② 전반적으로 도움됨(Helpful overall)
- ③ 도움되지 않음(Unhelpful)
- ④ 매우 도움되지 않음 (Very unhelpful)

8-5 동족 사회 교류 Interactions with communities of same culture

질문 (Question)	예 (Yes)	보통 (Average)	아니오 (No)
① 한국에 온 후, 동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편인가요? (After arriving in Korea, do you feel sense of belonging with the people of same culture?)			
② 동족들과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인가요? (Do you often meet and spend time with people of same culture?)			

③ 본국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편인가요? (Do you share information/news on your country of origin with people of same culture?)			
④ 한국에 온 후 동족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participated in the events hosted by/for the people of same culture in Korea?)			
⑤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종종 하는 편입니까? (Do you occasionally contact your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your country of origin?)			
⑥ 자녀에게 본국의 문화나 언어 수업을 합니까? (Do you teach your language and culture for your children?)			
⑦ 본국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려고 하는 편인가요? (Do you tend to protect the uniqueness of your country's culture?)			
⑧ 본국의 전통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인가요? (Do you often eat traditional food of your country?)			

8-6. 한국에서 모국의 문화를 1주일에 어느 정도나 접하고 있습니까?

How often do you encounter the culture of your home country in Korea per week?

질문 Question	매일(7) Everyday(7)	5-6회 5-6 times	3-4회 3-4 times	1-2회 1-2 times	없음(0) None(0)
① 모국관련 신문, 책, 잡지 (Newspapers, books, magazines of your country)					
② 모국관련 영화, 드라마, 음악 (Movies, TV shows, music of your country)					
③ 모국과의 전화 (Call with people in your country)					
④ 인터넷을 통한 자국 뉴스 (News of your country via internet)					
⑤ 모국의 음식 (Food of your country)					
⑥ 모국에 있는 동료와 친구 소식 (News about your friends of your country)					

9. 언어와 문화 Language and Culture

9-1. 한국어 수준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your Korean skills?

- ① 전혀 못함 (cannot)
- ② 조금 (a little)
- ③ 물건을 사거나 약간 (can speak when shopping or doing other types of business)
- ④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보통 (can speak in most social and work situations)
- ⑤ 유창함 (fluent)

9-5-4.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있다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f you are not continuing with KIIP, please specify the reason:

하지 않는 이유 (Reason for not continuing with KIIP)	체크 (Select)
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No sufficient time)	
② 해당 기관이 너무 멀어서 (The relevant institution is too far)	
③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Study material is difficult)	
④ 필요한 만큼 이미 교육을 다 받아서 (Already received sufficient education)	
⑤ 자녀를 돌보느라 (Childcare)	
⑥ 기타 (Others):	

9-6. KIIP 이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Are there any Korean education programme you are participating in other than KIIP?

- ① 아니오 (No)
- ② 학원 (Academy)
- ③ 과외 (Tutoring)
- ④ 커뮤니티 센터 (Community Center)
- ⑤ 온라인 강의 (Online class)
- ⑥ 기타 (Others)

9-7. 자녀와의 언어적 격차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나요?

Do you have problems in communicating with your children due to the gap in language ability?

자녀와의 언어격차 (Gap in language ability with your children)	① 없음 (None)	①조금 (A little)	②보통 (Average)	③ 큼 (Huge)	④매우 큼 (Very huge)
① 자녀와의 한국어 격차 (Gap in Korean)					
② 자녀와의 모국어 격차 (Gap in mother language)					

9-8. 한국어 공부에 있어 어려운 점 혹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challenges in learning Korean or any improvements you would like to see in Korean classes?

- ① 회화위주로 공부하고 싶다 I want to focus on communication skills
- ② 단어를 외우기가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memorize words
- ③ 수업시간이 주말에 있으면 좋겠다 I hope the classes were conducted on weekends
- ④ 기타 Others ()

④의료 (Medical care)					
⑤경제적 기회 (Economic opportunity)					
⑥언어 (Language)					
⑦취업 (Employment)					

10-10. 아래 장소나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discriminated against for being a foreigner by the places below or people?

항목(Criteria)	① 차별 있다 (Discriminated)	② 차별 없다 (Not discriminated)
①주민센터나 구청, 우체국, 출입국 등의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ommunity center, post office and immigration office)		
②병원 등 의료 보건시설 (Hospital and medical facilities)		
③은행이나 상점, 식당 등 서비스 시설 (Bank, stores and restaurants)		
④길거리 (Streets)		
⑤이웃 주민 (Neighbours)		
⑥직장 (Work)		
⑦한국인 친구 (Korean friends)		

11. 참여 Civic Engagement

11-1. 한국에서 단체나 조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participated in meetings of community organizations, clubs, or governmental agencies in the past year?

① 예(Yes)

② 아니요(No)

